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923 E-mail : kora@ktra.or.kr
<http://www.ktra.or.kr>

건축사



큰 건물에 강한 첨단 시스템에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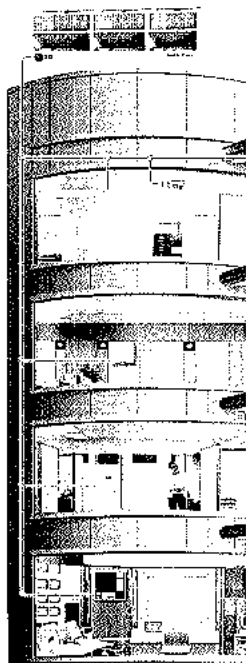
MULTI V™ PLUS

경제성에서 첨단 기술까지 성능도 유려함도 더욱 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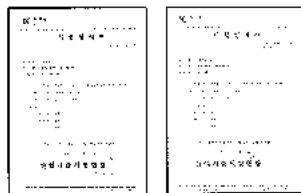


MULTI V™ PLUS

최대 46마력의 대용량 시스템에어컨으로 중대형 빌딩 공조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형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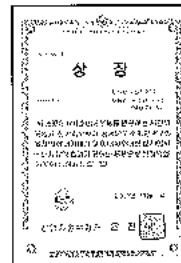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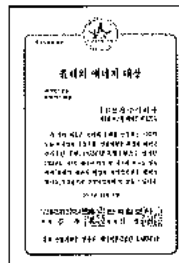


- 실외기 용량 : 최소 5Hp에서 최대 46Hp까지
- 120m 최장배관, 50m 수직배관
- 고급 중앙제어, PC/인터넷 중앙제어, 적산전력 분배 등 다양하고 편리한 첨단 Network Solution 시스템
- 국내 최초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
 ; LRP-N4600BH, LRP-N5800B, LRP-N5800BH



KTL(산업기술시험원) 공식 인증서

★ 소비자와 정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았습니다



LG전자 MULTI V -

제7회 2004 올해의 에너지 대상 수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 건설사 영업팀 02(2005-3052 · 강남 02(2005-3596 · 경북 02(727-4183 · 경기 03(1267-0873 · 인천 03(322-0162 · 호남 06(2510-5842
 · 충청 04(2)388-0633 · 부산 05(1807-3242 · 경남 05(5)264-7494(세우프함) · 경북 05(3)257-0808 * 인터넷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7층 빌딩가 실외기 대비 설치면적 44%, 슬리브 관경 50% 축소)

난방비 걱정 끝!



세계에서 인정받은 바닥난방 초절전 온수 방열관!

일반용전력으로 심야 전력기기 보다 저렴한 난방!
기존 온돌히터 전력량의 1/3로 난방이 가능!
기름보일러 대비 70% GAS 대비 50% 절감 가능!

1.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고효율 전기 난방

밀폐한 XL관 내에서 저온의 복수발열선을 응용, 온수와 증기 2상 매체를 방열로 활용한 초절전 난방기술

2. 소음, 공해, 화재, 폭발, 전자파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청정에너지 바닥 복사 난방
3. 보일러가 불필요하고 기계적 장치가 없어 건물수명과 같은 영구적 난방
4. 관리비용이 불필요한 난방 : 대형건물은 물론 기숙사, 연수원, 호텔 등 숙박업소, 군·경내무반, 병원, 콘도 등 어떤 건물이라도 각방 온도제어를 안내인 혼자 관리하는 난방 System

※ 발열선의 고열 때문에 금속관만을 사용하던 온돌히터를 XL관에 적용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기존배관에 복수의 전열선을 삽입, 교체, 보충, 밀폐하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발명 특허 획득!

※ 참조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255조(전기온돌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5항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특허청
- 『신기술 개발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인증업체
- 『ISO 9001:2000 인증』 업체
- 『품질보증인증(Q마크)』 업체
- 『전자파 환경인증서』 산자부산하 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인증 업체

※ 당사 초절전 온수 방열관은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A/S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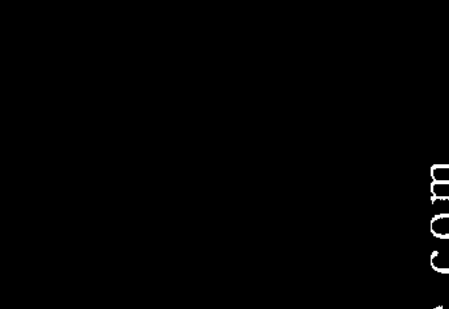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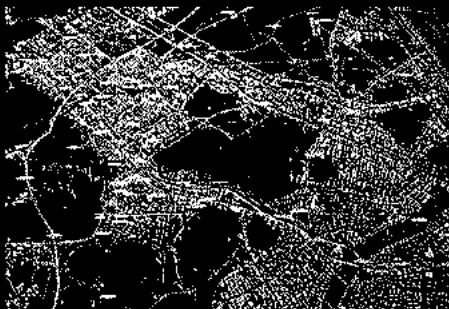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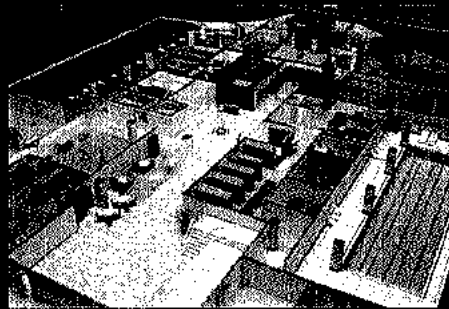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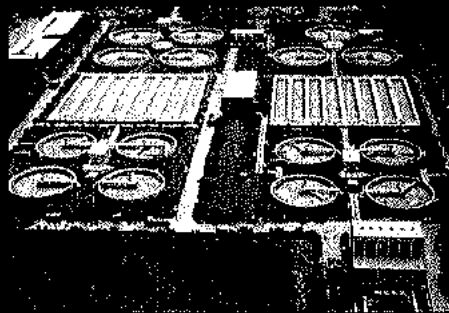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 Ltd.

대표전화 02)928-1090
팩스번호 02)463-1041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23-4 청진빌딩 305호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 1010cy@korea.com

'느낌,이 살아 있는 건축모형

모형
그리고
사람



건축모형
현상모형
고건축모형

단위세대모형
지역안내모형
인테리어모형

아파트모형
플랜트모형
기계작동모형

**Model &
P**
MODEL

130-030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6-71 303호

TEL 02)2217-5942~3 FAX 02)2217-5944

www.modelnpeople.com

MODELNPEOPLE

세 · 계 · 최 · 초 · 의 · 독 · 자 · 모 · 델 · 로 · 대 · 한 · 민 · 국 · 을 · 대 · 표 · 하 · 는 · 주 · 차 · 기 · 가 · 되 · 겠 · 습 · 니 · 다 .

스카이파크

SKY PARK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3억
PLI영업배상형인포
대해상화제

전문건설업등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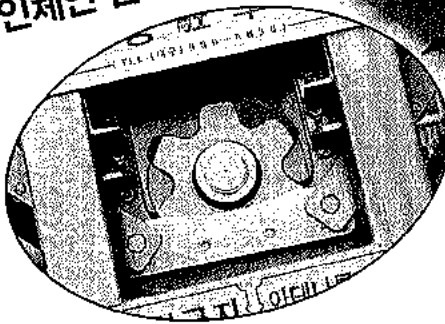
인정번호 대구 제 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 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10년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이렇게 다릅니다

- 원상다케 간단한 구조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 **자매품** P1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 델 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 칭 차량회전터(상장)
수용 차종 중소형 승용차(주최 2000kg 이하)
구동방식 마찰 구동식
구동모터 0.15KW x 4H = 3개
장착속도 약 1.1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인입 전압 AC100V/200V-3φ-60Hz
차기 총형 약 1000×φ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 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삼성생명
Seed Bank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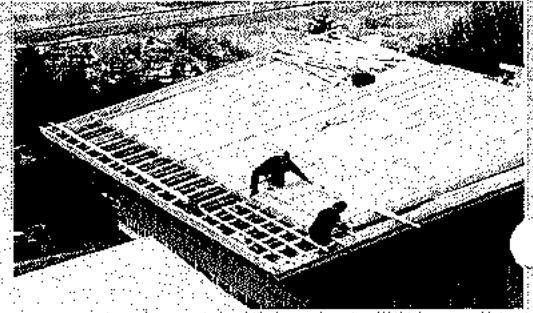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CE ISO 9001



탁월한 단열효과

명일폼테크 기계로 개발한

스타폼(STAR FOAM)

스타폼(STAR FOAM)은 상압식 압출발포 폴리스티렌 보온 단열재입니다.

상압에서 발포해서 제조하므로 타공법에 비해 같은 체적내에서 독립기포의 수가 적고 치밀하여 단열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내습, 내수성과 탁월한 압축강도를 나타내는 최고급 품질의 난연성 방수단열재입니다.

1. 우수한 단열성

상압발포 공법으로 생산되는 스타폼은 미세한 독립기포내에서 기체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불화탄소를 충전하였기 때문에 단열재중 가장 뛰어난 단열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기포의 미세한 기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로 인한 열전도율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2. 압축강도

독립기포구조를 가진 스타폼은 압축보드 중 최고인 최대하중 60Ton/m²까지 견디는 다양한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어 각종 건축물의 시공부위에 따라 알맞은 압축강도를 지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빌딩, 주택, 주차장, 활주로, 옥상층, 고속도로, 냉동창고 바닥, 아이스링크바닥 등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곳에 사용됩니다.

3. 탁월한 방수성

다른 단열재와는 달리 미세한 연속독립기포로 형성된 스타폼은 흡수율이 거의 없어 기존의 단열재에서 쉽게 관찰되는 흡수나 흡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냅니다.

4. 자기소화성

난연재를 투입하여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연재는 아니지만 불연재로 마감을 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 편리한 시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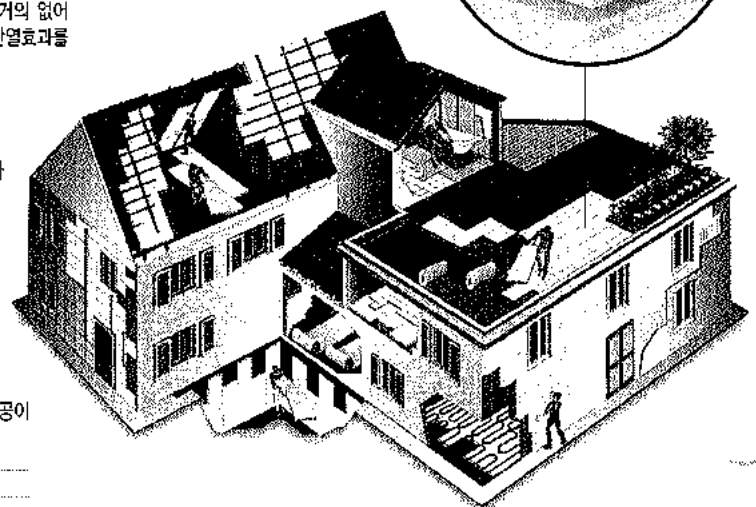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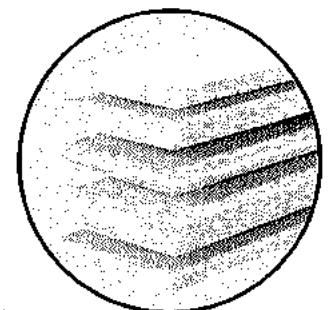
시공시 인체 유해물질이 없으며, 칼, 톱, 열선 등으로 쉽게 규격대로 절단되며 가볍고 강도가 높아 작업이 편리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6. 다양한 규격

두께 20~120mm 까지 생산 가능하며, 다양한 모서리 처리가 가능하여 시공이 훨씬 편리합니다.

① ② ③

스타폼(STAR FOAM)



2004~2005 전국 건축사회원명부 광고모집

본 협회에서는 2년마다 전국건축사회원명부를 발간, 전국의 건축관계회원을 물론 관련기관 및 업계에 보급하여 원활한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7월 발간에정인 2004~2005 회원명부의 일부 지면을 할애하여 건축자재 및 관련상품의 판촉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광고를 희망하시는 업체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 협회 홍보편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면관계상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간행물명 : 2004~2005 전국 건축사회원명부
2. 발행처 : 대한건축사협회
3. 규격 : 국배판(210mm×297mm)
4. 발행부수 : 10,500부 내외
5. 발행일 : 2004년도 7월중
6. 광고인쇄 : 원색인쇄 (인쇄필름 광고주 제공)
7. 광고단가

구분	광고단가
표지 2면	2,500,000원
표지2 대면	2,500,000원
표지 3면	2,000,000원
표지3 대면	2,000,000원
표지 4면	5,000,000원
기타 내지면	1,200,000원
명함광고	300,000원
(본 협회 회원에 한함)	200,000원

※문의 및 신청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
(TEL. 02-581-5711~4)

대학로 디자인 1번지

1-1, DONGSOONG-DONG, JONGRO-GU, SEOUL
서울 종로구 동숭동 1-1번지 · 대학로 · 디자인 · 1번지

2004학년도, 후기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건축설계 디자인 전공
신입생, 모집요강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이
대학로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동숭동 캠퍼스에서
건축가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석사학위 과정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학과 및 전공 : 디자인 학과 15개 전공

디지털 건축, 실내설계, 제품 디자인, 운송·레저 디자인, 세라믹 디자인,
주얼리 디자인, 의상 디자인, 유리조형 디자인, 시각 디자인, 사진영상,
환경시설물 디자인, 그린 디자인, 패턴·모델리즘 디자인, 가구 디자인
애니메이션

3 수업 형태 : 야간 5학기 / 감의 수업 4학기 및 학위 논문(학위작품) 1학기

4 지원 자격 : 국내외의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004년 8월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

1 일반전형 : 포트폴리오 평가, 전공 구술 포함
(시험 당일시 포트폴리오 개별지참)
당일 14:00 부터 각 전공별로 실시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원 소정양식) 1부, 대학 성적 증명서(전학년) 1부,
대학 졸업 (예정)증명서 1부, 사진 (4 x 5cm) 4매

전형일정

- 1 원서 교부 : 2004. 06. 03(목) - 06.11 (금) (국민대학교 정문 수위실)
- 2 원서 접수 : 2004. 06. 07(월) - 06.11 (금) (디자인대학원 교학팀/국민대 조형관 1층 102호)
- 3 전형 일시 : 2004. 06. 26(토) 14:00부터 (입실완료 시간 엄수 - 13:40까지)
- 4 전형 장소 : 교사 당일 디자인대학원 교학팀 게시판에 안내 (조형관)
- 5 합격자 발표 : 2004. 07. 02(금) 이전 (홈페이지 <http://design.kookmin.ac.kr>에 공고)
- 6 합격자 등록 기간 : 2004. 07. 05(월) - 2004. 07. 09(금)
- 7 전형료 : 60,000원 (원서대 무료)

전형요소별 배점 : 심층 면접 고사 (50%) + 포트폴리오 심사(50%)

design.kookmin.ac.kr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61-1 우_136-702 TEL_02.910.4327 (4413, 4583) FAX_02.910.4589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건축설계 전공, ARCHITECTURE

실내설계 전공, INTERIOR DESIGN

제품 디자인 전공, PRODUCT DESIGN

세라믹 디자인 전공, CERAMIC DESIGN

유리조형 디자인 전공, GLASS DESIGN

주얼리 디자인 전공, JEWELRY DESIGN

의상 디자인 전공, FASHION DESIGN

그린 디자인 전공, GREEN DESIGN

사진영상 전공, PHOTOGRAPHY AND FILM

가구 디자인 전공, FURNITURE DESIGN

시각 디자인 전공, VISUAL COMMUNICATIO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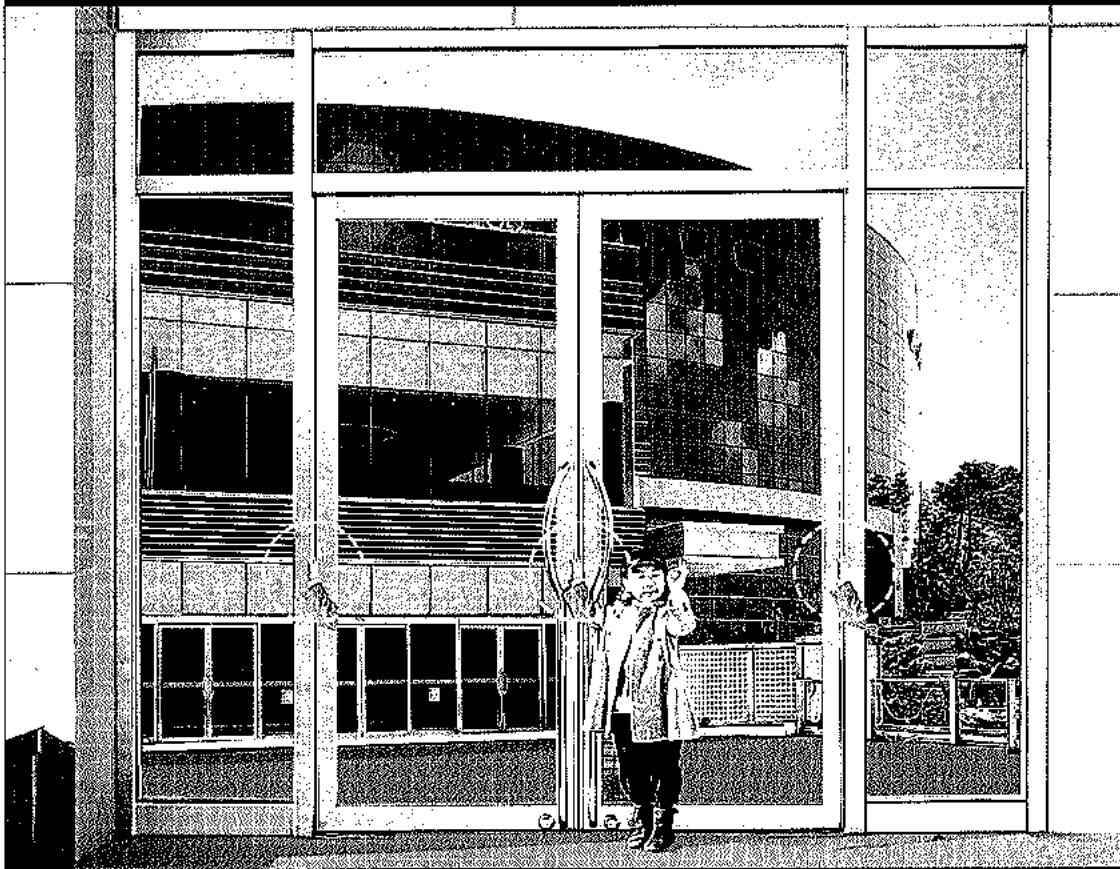
패턴·모델리즘 전공, PATTERN MODELISM DESIGN

환경시설물 디자인 전공, ENVIRONMENTAL EQUIPMENT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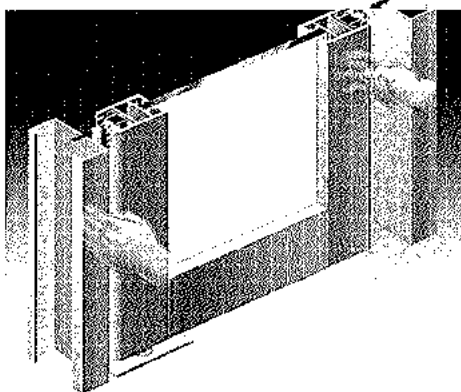
운송·레저 디자인 전공, TRANSPORT PRODUCT - LEISURE PRODUCT DESIGN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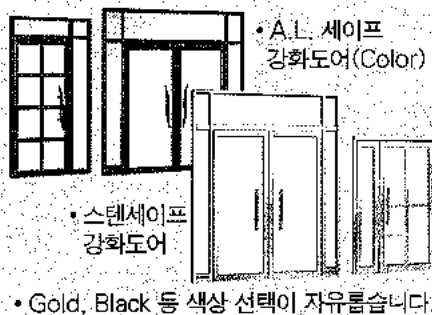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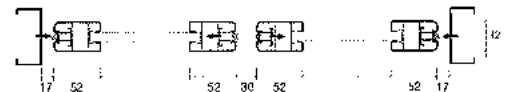
- 오피스텔 • 공공건물 • 은행
- 아파트 • 학교 • 스포츠시설 건물
- 백화점(마트) • 병원 • 호텔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실제 다운로드 참조)

사용 상태도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수요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32p 참조

유통물가 자료집 387p 참조

☞ 공장출고가격: 900×2100mm 기본, 투명유리
₩ 218,000(전국배달)

신자재 공모등록업체 인증 (현대건설 2003. 4)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3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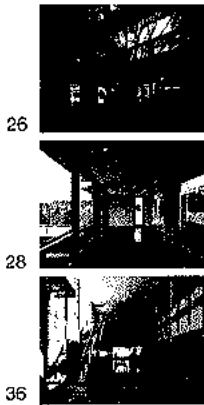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 jungwooc9800@hanmail.net

벤 치 기 업 등 록 업 체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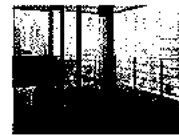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5 421호

칼럼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강인호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청년건축사들에게 미래를 건다	장양순	18
회원작품	연하당(蓮花堂)	방철권	20
	등서면 문화레포츠텐터	이상림·박유진·서영달	30
	직2동 사무소	정철수	38
	고속철도 광명역사	안길원·서학조	46
	주동 전원주택 - 4세대 등거형	이영성	54
계획작품	유니베르시떼	윤세한	60
작품노트	한 건축주, 두 프로젝트	조만석·조중현	66
건축기행	중국기행	김석환	74
기고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교환	이관영	86
	브라질 고층 사무소 건축에 사용한 고성능 유색 콘크리트	김용부	9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성과 및 발전방향	장기형	94
연재	공간 콧밖 - 12	이재훈	98
건축마당	협회소식		104
	건축계소식		105
	현상설계		110
	보고서		126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김선영, 장양순, 김충익, 박명순, 손기찬, 오성훈,
문사덕, 이기직, 이재집, 이승호, 주수인
취사·편집 송보라(편집)·조원국(팀장)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67
전화번호 대표 02-59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a.or.kr>
E-mail korea@kia.or.kr
연락처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리차님



44



52



59

korean architect

Vol. 421
May 2004

Column

Dreaming of a Housing Renaissance Kang In-Ho 14

Cartoon

Yoo Won-Jae 17

Focus

Our Future Rests on Young Architects Chang Yang-Soon 18

Works

Yeon Ha Dang Bang Chul-Lin 21

Dong-Seo Byeon Culture, Leisure & Sports Center Lee Sang-Lin, Park Yoo-Jin & Seo Young-Dae 23

Jwa 2-dong Office Jeong Cheol-Soo 25

High Speed Rail Gwangmyeong Station An Ki-Won, Suh Hak-Jo 27

Sirfong House Lee Young-Sung 29

Process works

Universite Yoon Se-Han 60

Design note

One Client, Two Architects Cho Min-Seok & Cho Jung-Hyeon 66

Architecture Travel

A Trip to China Kim Suk-Hwan 74

Feature

A Reflection on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Issues

Lee Kwan-Young 86

HPCC in Brazilian Office Tower Kim Yong-Boo 91

Accomplishments and Future Directions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Program

Jang Ki-Chang 94

Serial

Space and Rooms Lee Jae-Hoon 98

Architects Plaza

Kira news 104

Archi-Net 105

Competition 110

Report 126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o-Il'a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5-8623

Printer Kim Jung-Sik (J-art)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Dreaming of a Housing Renaissance

뉴욕 하우징의 역사를 기술한 컬럼비아 대학의 리처드 프렌즈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의 아파트 계획 초기에 상당수의 건축가들은 당시 소위 보자르 유형의 건축들이 주도하면서 소위 작품건축에 매진하였고, 일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우징 분야에 진력하였는데, 하우징에 관심을 돌린 건축가들은 대부분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얻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생만 잔뜩 하고 명에는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프렌즈 교수는 고생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명성은 얻지 못한 대표적인 건축가로서 포터(Edward T. Potter)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미학적 측면이 중심을 이루던 당시 건축의 주된 흐름에서 비껴 나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일반 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기 위한 기능적 관심에 매진하였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에서 건축이 할 일을 찾아보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프렌즈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가들이었던 것이다. 1905년 포터가 죽었을 때 브루어(Alfred J. Bloor)라는 사람은 그를 다음과 같이 추도했다.

순수건축의 창조에 대한 능력과 재능을 투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고, 권위를 누리고 다루기 쉬우며 보수가 좋은 화려한 일들에 매진할 수도 있었으나 비용, 법규, 부지조건, 환경 등 피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 하에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그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도시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관계없이 채광, 양호한 배수로, 통풍 등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 사회 다수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일생의 대부분을 바친 건축가.

이와 상반되게 1900년대 초반 도시미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중요 인물 중의 한 사람인 로빈슨(Charles Mulford Robinson)은 주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가 우선 깨달아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영역이 사회학이 아니라 대중예술이라는 점이다. 대중예술은 그 자체가 주택의 외관에

대한 관심만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빛이 들지 않는 침실, 컴컴한 홀과 계단, 불결한 지하방, 위험한 설치물, 욕실이 없는 집 등과 같은 그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사회학적으로 압박 받는 일들이고, 솔직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중 예술은 책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굳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만일 건축사가 지닐 수 있는 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매일 매일의 생활공간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들어간다면 그래서 누구나 매일 거주하는 주거건축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축사는 포터와 같이 고생만 하고 명예는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건축사로서 일생을 보낼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양적으로 보면 가히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설계가 발주되고 있다. 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일대의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서울시의 강북 뉴타운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공사는 작년에 6만 호를 공급하였던데 비해 올해 공급목표가 10만 호에 달한다. 따라서 올해는 많은 공동주택 현상이 계획되고 있어서 주변에서는 공동주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설계 사무소에서 올해 한두 개 이상의 현상에 당선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의 르네상스보다는 질의 르네상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많은 건물 유형 중에서 공동주택만큼이나 많은 욕을 먹은 건물 유형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공동주택이 욕을 먹을 정도의 수준에서 지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계획의 질을 높이는 일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좋은 건축사가 많아야 하고, 일반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나 관심의 정도도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질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발주자가 지나치게 가혹한 밀도 조건을 내거는 것도 물론 좋은 클라이언트라 할 수는 없다. 명예를 중시하는 건축사는, 또는 로빈슨처럼 나는 사회학자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건축사는 가혹한 밀도 조건을 내미는 클라이언트와 상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건축사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질의 르네상스를 이루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적 의미의 관심이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의 설계에 손을 담그고 싶어하지 않거나 가혹한 설계조건을 심하게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어놓은 수많은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나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았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국내의 공동주택들을 얼마나 다녀 보았는지, 도면을 보면서 차근차근 분석해 보았는지, 괜찮다 싶은 사례들은 얼마나 소개를 하고 자료화하였으며,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주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라 여겨진다.

건축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관심과 정당한 평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배우고,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 공동주택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요소의 발전적 평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공동주택을 주된 공부감으로 삼고 이런 저런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흔히들 비판하듯이 우리의 선배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려댄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누가 무어라 해도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 고민하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접하게 된다. 가혹한 설계조건 속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해보려 고민한 흔적들도 보게 된다. 이름 없는 건축사가 되더라도, 고생만 하고 명예는 얻지 못한 채 일생을 보낸 한국의 포터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된다.

한국의 공동주택은 계획조건이나 여건이 척박하고 계획의 질적인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건축사 각자가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동주택이 질의 르네상스를 맞이하려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 우리의 선배가 했던 일들을 되새김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고, 답사해 보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일이다.

미래는 항상 과거의 일에 대한 반성과 계승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

청년건축사들에게 미래를 건다

Our Future Rests on Young Architects

지난 5월 7일 오후 본 협회 5층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역대 회장 몇 분과 현 회장단 그리고 감사와 각 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장소 사정(정보통신 회의실 무상임대)으로 인한 시간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 끝을 마쳤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 책자를 받아본 참석자들은 표지를 보고 놀랐으리라 본다. 주관은 협회기구도 아니며 생소한 이름의 토론준비위원회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있어야 할 주최자는 없었고 다만 다소 큰 글씨로 대한건축사협회 토론준비위원회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그로부터 8일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건축사 한 분으로부터 강의 중 전화를 받았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회를 활성화해야하는 바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주제발표를 해 달라는 청탁이었다.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 때 그분은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 자신이 속한 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으며 각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이 모두 모여 자신들이 속한 위원회를 소개도 하고 활동에 대하여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자극과 반성, 경쟁과 활력을 불어넣어 협회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참 좋은 생각이니 순서를 밟아 진행해 보라”고 격려한 바 있었기에 쾌히 수락하였다. 종일 강의가 있었기에 다음날 전화하여 원고 수량과 시간 등 구체적인 것을 상의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다.

청년건축사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젊은 건축사들(대부분 40대로서 중견건축사라는 말이 맞을 것이나 우리의 현실로 봐서 칭한 것이다. 청년의 규정은 대개 40세까지 또는 45세까지로 규정한다)은 그간 자비를 보태어 위원회를 지방에서 개최하기도 하면서 또래 건축사들과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하여 밤새워 토론하고 지역의 고민도 함께 나누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하였다.

이들의 결론은 긍정적이고 건전하여 기존의 협회에 적극 참여하여 제도권 안에서 잘못되거나 비능률적인 제도나 관행을 바꿔보자는 것이었고 이 중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이었다.

위원회 활성화의 당위성은 이들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회원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다. 디지털시대는 전문화 세분화를 더욱 더 요구하는 바 우리가 튼튼해야 가치가 무성하고 세파 하나 하나가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원론적 요소 외에도 정관계정 작업에 수개월의 노고를 바쳤으나 이사회에서 단 한 조항도 살아남지 않고 폐기된 것이나 새건설의 A-Z까지의 실천공약보다 더 많은 사항을 더욱 세세하게 일찌감치 만들어 놓은 건축개혁백서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한 다시 개정작업을 하였는데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기성 집행부에 대한 불만족이 근간인 듯 하다.

참고 작품께나 한다 싶으면 새건설을 기웃거리느 틈에서 이들의 “협회를 사랑하기에 협회 안에서 개혁하자”는 논리는 참으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고, 협회의 내일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일야 혹은 협회의 성토장이나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등으로 소극적 협조만 함으로써 주최도 없고 주관만 있는 토론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내용에 비해 격이 떨어졌고 원고료도 없고 제비용도 준비위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했던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진행상으로 볼 때 그리 잘된 것은 아니다. 즉

첫째, 발표자 중 한 분은 제한시간을 너무 넘겨 청중을 지루하게 하였으며, 주제에서 벗어난 발표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다.

둘째, 토론자도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고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다.

셋째, 협회 사정상 어쩔 수 없었으나 장소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준비위원들이 발표자를 반으로 줄이고 미리 원고를 검토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다면 시간도 충분하고 지루하지도 안 했으며 더욱 알찬 토론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는 대성공이라고 필자는 평하고 싶다. 이는

첫째, 이들의 충정을 집행부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대안 없는 성토와 불평이 아닌 건전한 모임이라는 것을 인식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특히 전·현임 감사들까지 참석하였기에 지원에 특별한 문 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

둘째, 많은 청중이 모였다는 사실이다. 협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그리 많은 회원이 참석하지 않는 편인데 8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은 고 무적인 일이다. 이는 이들이 노력한 대가이며, 특히 역대회장의 참석과 충고 등은 본 토론회를 밝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리더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 리더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미디어의 발달, 특히 디지털시대에는 여론을 주도하여 형성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싶다. 이 여론은 건전하게 형성될 수도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득권자는 그들에게 어느 한쪽만 보거나 치우치지 않는 사고와 판단을 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미래를 짊어질 청년건축사들이 협회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하고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위원회 회의나 토론회는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나 바로 이러한 장래를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건축개혁백서를 보면 각 부문별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데이터와 더불어 원론적인 해결책까지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만들고 이를 수렴하여 통합된 하나의 의견으로 집합시키는 역할이 그간 어느 곳에도 없었다. 일례로 협회의 운영제도에 있어서 “이사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사는 회원을 위해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못하고 회장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 있어, 별도로 정한 이사 자격규정에 적합한 상순위로 필요한 이사를 선임해야한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관 위원회에서 이를 연구하고 토론회나 공청회에 붙여 합의점을 도출해야하며, 이 사항들은 즉시 또는 최소한 1년 이내에 이를 정관 또는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사회에서 폐기되지도 않을 것이요, 총회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다시 가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이 다소 서투르다하여도 성공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토론회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위원회가 계속하여 이러한 모임을 주최해주기를 바라며, 회장의 투표권과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고 볼 수 없기에 협회에 무관심해 질 수밖에 없는 일반회원들의 사기를 살리는 회장 직선제 문제와 협회의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임원의 선출기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론회에 붙여 줄 것을 바란다. 또한 집행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최소한 위원장 회의라도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각 위원회별로 토론회 소관 사항을 정하고 협조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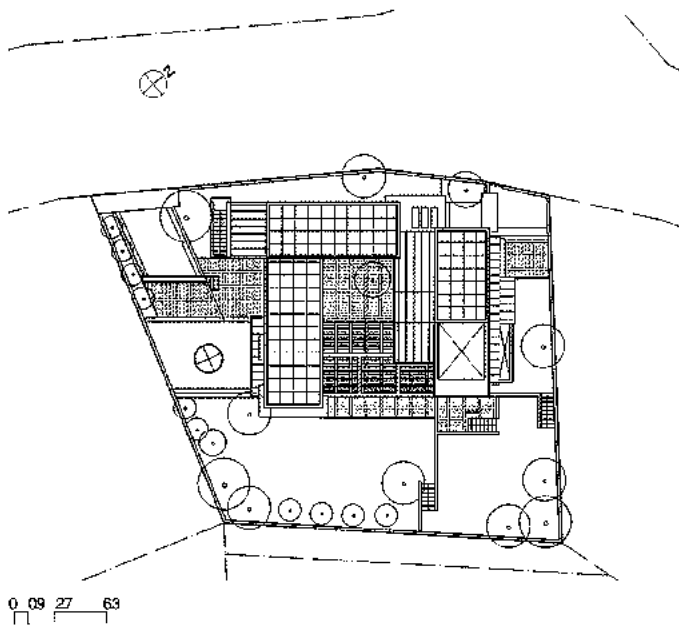
개혁이란 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작은 물꼬가 큰 강줄기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 미래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내일이라고 하였다.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이들의 노고를 거듭 치하하며 보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한다. ■

연하당(煙霞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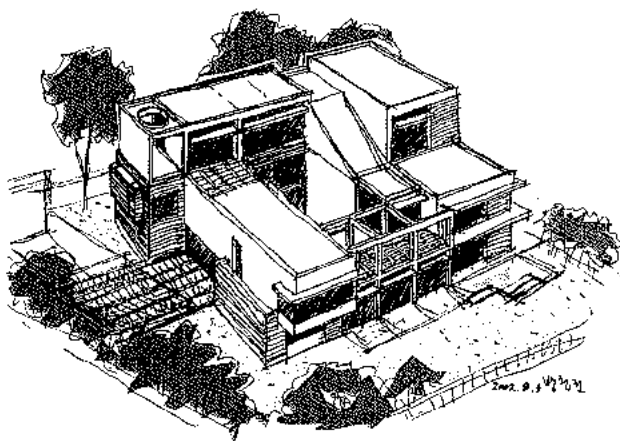
Yeon Ha Dang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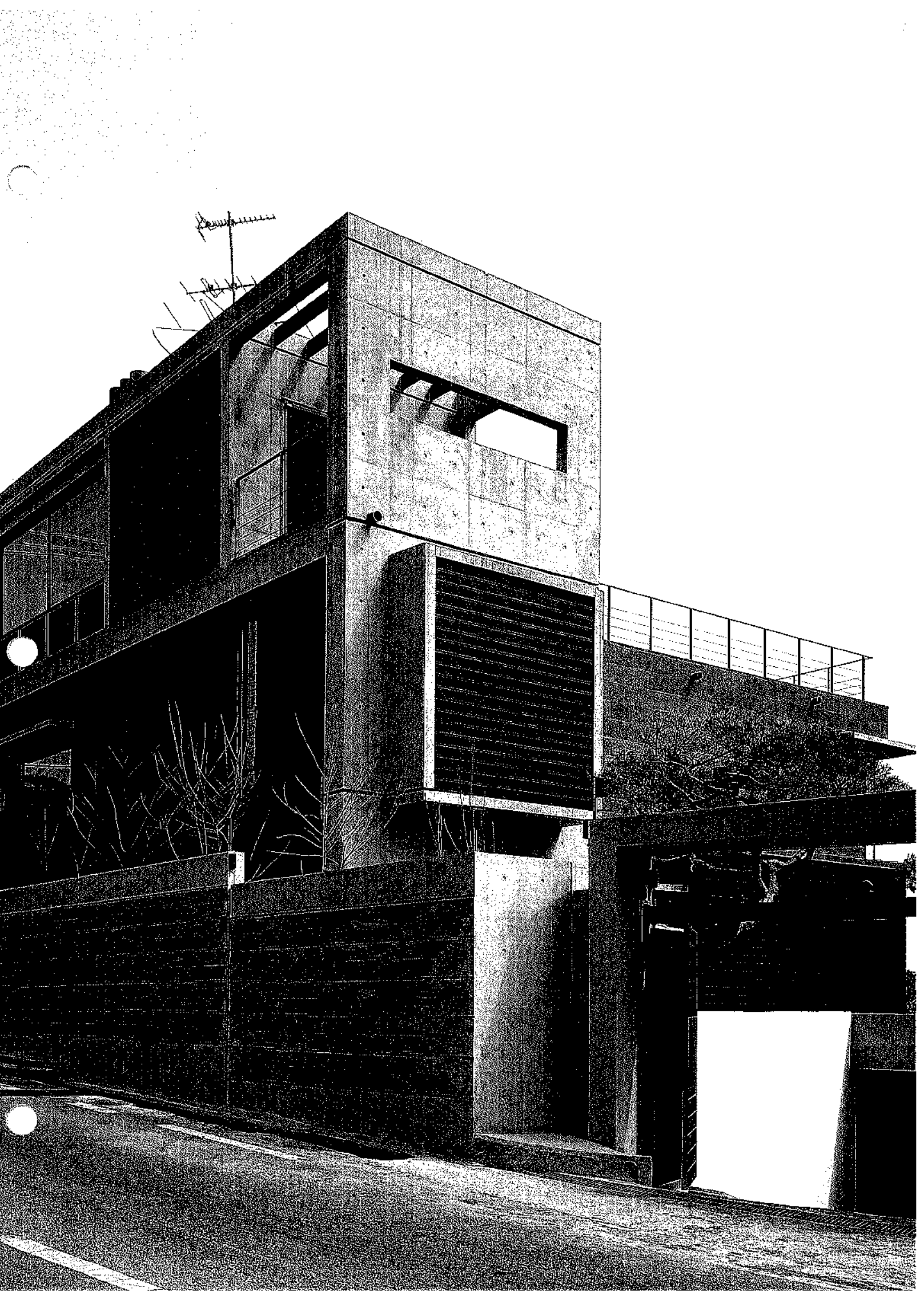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 자연보존지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75㎡
연면적	651.06㎡
건축면적	190.11㎡
건폐율	28.16%
용적률	58.77%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화강석 + 단열재 위 목재패널
내부마감	석고보드2겹위 VP + 목재 패널
설계담당	주선영, 이명주
구조	ALT구조
설비	기한 엔지니어링
전기	등호기술단
건축주	정순화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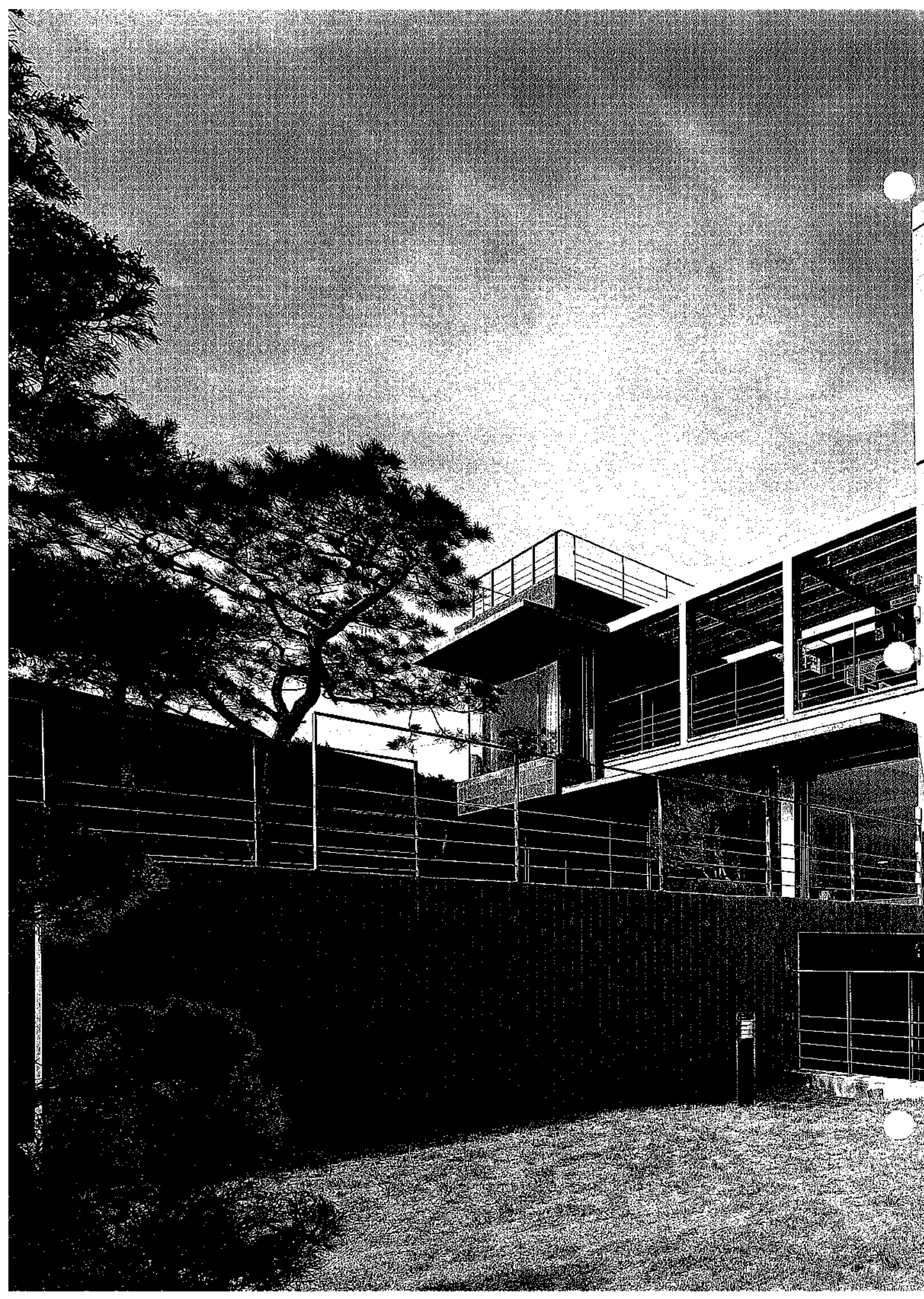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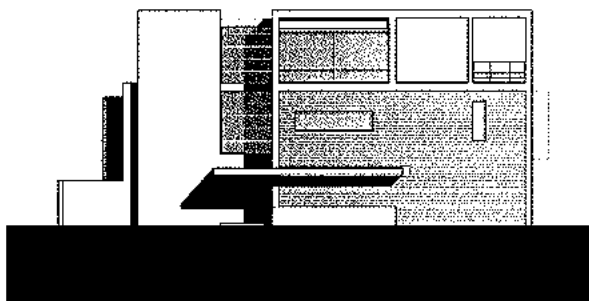
폭발적하는 증가하는 세계인구의 축소 방안으로 덜 낳는 것을 국가적으로 권장되던 때도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서서 정보 산업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자녀 두기를 꺼리는 부부가 늘어나는가 하면 가족도 귀찮다며 결혼도 마다하는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독신으로 인생을 값어치 있게 즐기며 살겠다는 부류가 자연스레 늘어나고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심성이 급변하고 있는 현대정보산업사회 속에 오늘날의 주거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주거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을 결집시키고 서로 느끼고 아끼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생활패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활동 사이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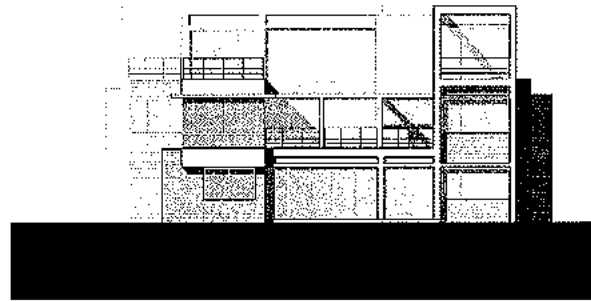








북서측입면도



남동측입면도

다른 시대적 괴리 속에 무슨 사고를 근간으로 이러한 역할을 만족시키는 주거건축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연하당(煙霞堂)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요소로서 이 집의 중앙부분의 마당과 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등장시켰다. 마당은 실내 어느 곳에서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쓰임새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가족들은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투명한 유리창을 통하여 반대편에 있는 가족을 서로 인식할 수 있다. 계단의 시작점을 거실의 입구이면서 부모실의 출입구 바로 전면에 위치시킴으로서 부모와 자녀간의 만남을 자주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실들의 독립적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의 외각 부에는 적절한 크기의 외부공

간을 두었고, 다양한 행위가 다양한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가족 각자의 활동성도 높여주었으며, 2층 전면 부분은 퍼골라를 설치하여 이집의 전망을 만끽할 수 있는 루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3층에는 긴 스튜디오를 두어 집안에서 요구될 수 있는 다양한 쓰임새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집의 뒤쪽 길에서 볼 때 이집으로 인한 시각적 차단 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부분의 전 후면을 투명하게 처리하였다.

이 집의 당호(堂號)는 조선중기 석학 퇴계(退溪)선생의 시 구절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연하(煙霞)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안개가 끼서 뿌연 풍경', '안개와 이내' 뜻으로 한국의 회화적인 분위기를 물신 풍기는 은근한 의미를 갖고 있어, 이 주택에 갖고 있는 장소적 이미지와 경관 그리고 공간적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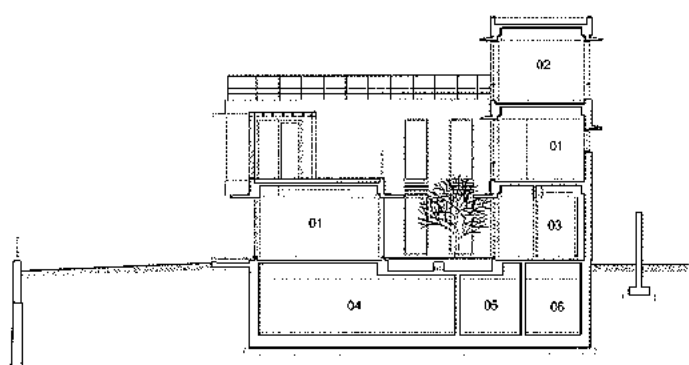
고 보았다.

여기에 퇴계선생이 자신이 태어난 경북 안동군 예안면 낙동강상류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시 한수를 소개한다.(글 / 방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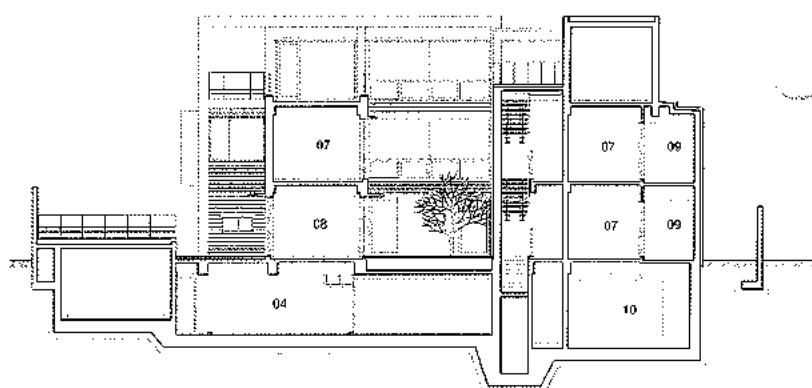
我家清洛上	아가청낙상
熙熙樂開村	희희낙한촌
隣里事東作	인리사동작
鷄犬藏籬垣	계견호리원
圖書靜几席	도서정계석
煙霞映川原	연하영천원

우리 집은 맑은 낙동강 위에 있어
한가한 마을에 태평을 즐기나니
이웃들은 봄 농사에 나가고
닭과 개는 울타리를 지켜주네
책을 쌓아둔 고요한 책상머리
봄 안개는 강과 들을 감도누나. 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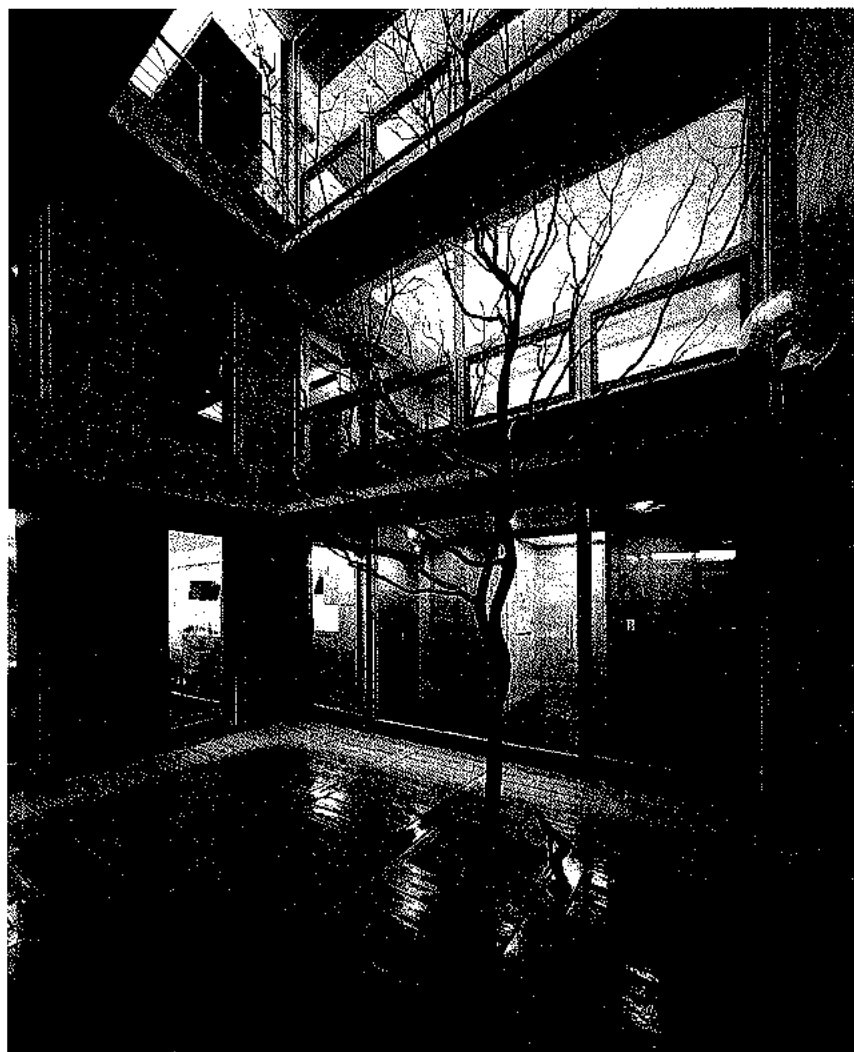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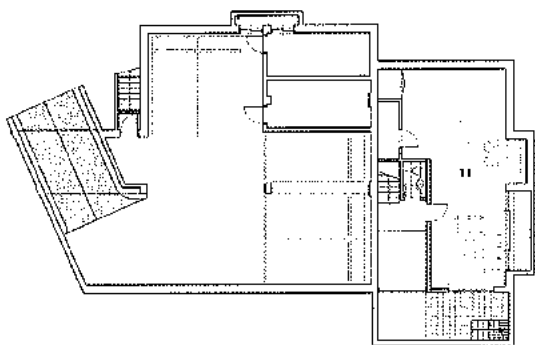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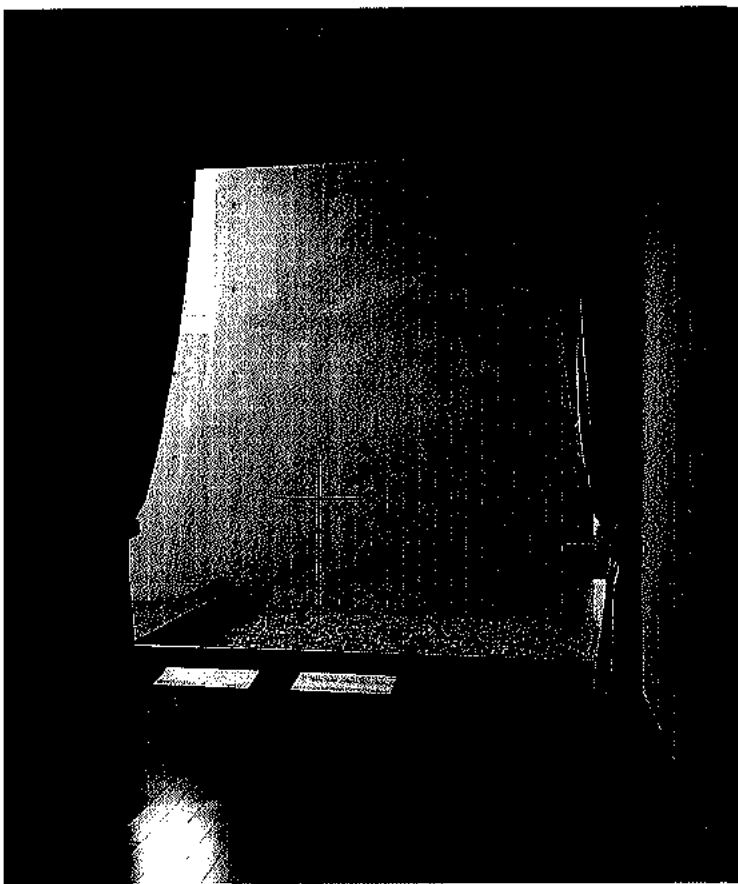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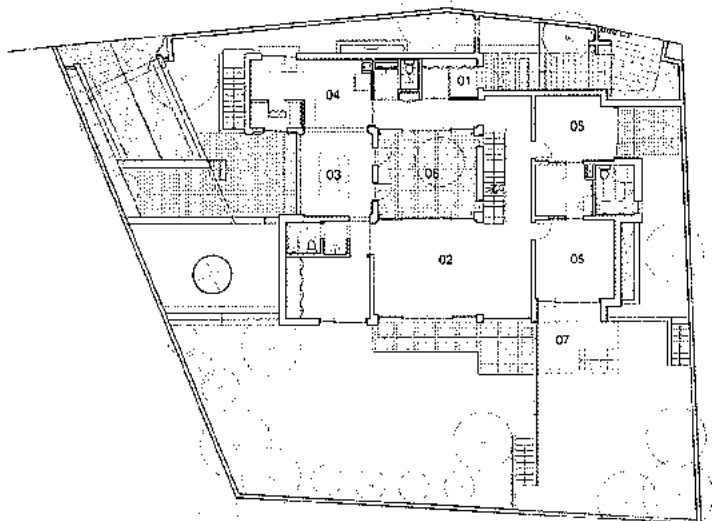


- 01_ 거실
- 02_ 다기능실
- 03_ 화장실
- 04_ 주차장
- 05_ 창고
- 06_ 부인리안
- 07_ 드레스룸
- 08_ 식당
- 09_ 욕실
- 10_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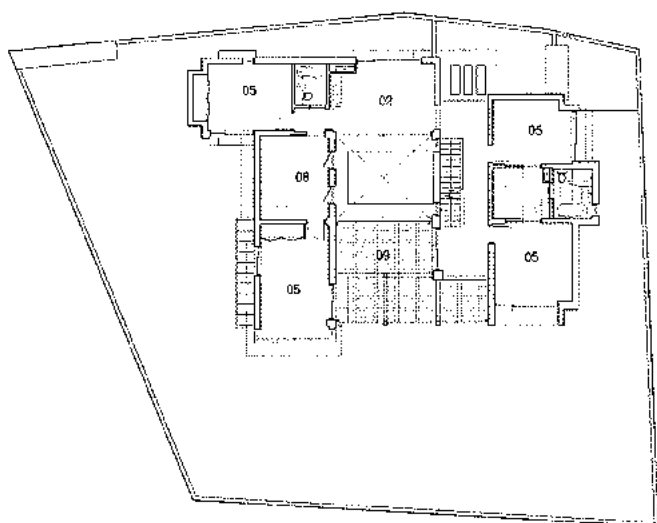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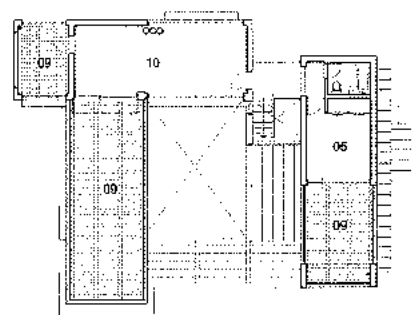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 원전
- 02 거실
- 03 식당
- 04 주방
- 05 침실
- 06 중화실
- 07 선실
- 08 드레스룸
- 09 테라스
- 10 다기능실
- 11 음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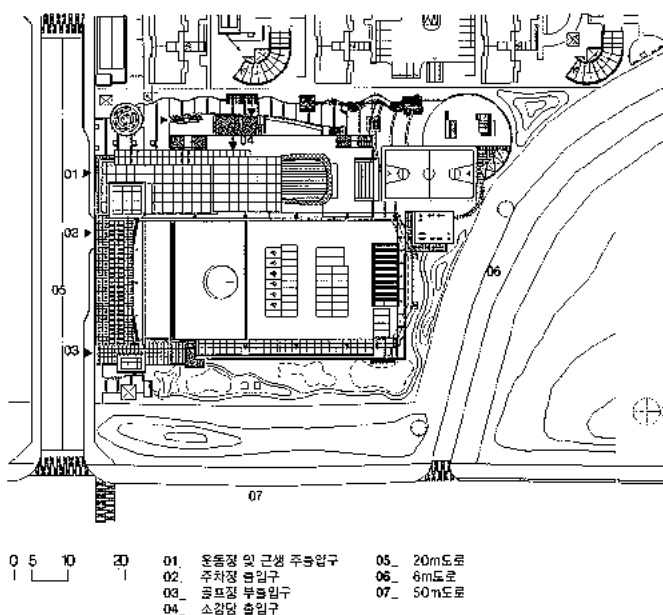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동서변 문화레포츠센터

Dong/Seo Byeon Culture, Leisure & Sports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1724-1번지(동서변 택지 개발지구내)
지역 지구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용지
대지면적	12,294.8㎡
연 면 적	15,861.01㎡(지상 8,613㎡, 지하 7,247.34㎡)
건축면적	6,442.12㎡
건 폐 율	52.4%
용 적 륜	70.06%
규 모	지하 2층, 지상 5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96대(지하 114대, 지상 82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상공모하여 선정된 이 건물은 동서변 택지개발지구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2003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참가자들의 트레이닝 장소로 계획되었다.

동측은 50M 대로변에 위치하여 도로변에서의 소음문제가, 서측은 APT단지가 있어 골프연습장과 적정한 거리유지가 필요했고, 북측으로는 아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지와 인접하여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 설계당시부터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50M도로변의 소음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주요시설들을 배치하여, 인접한 APT단지에서

의 도로소음과 골프장 소음으로부터 최대한 이격시키고자 하였으며, 골프장은 대로변에 평행하게 배치하여 기능성과 주도로변에서 Landmark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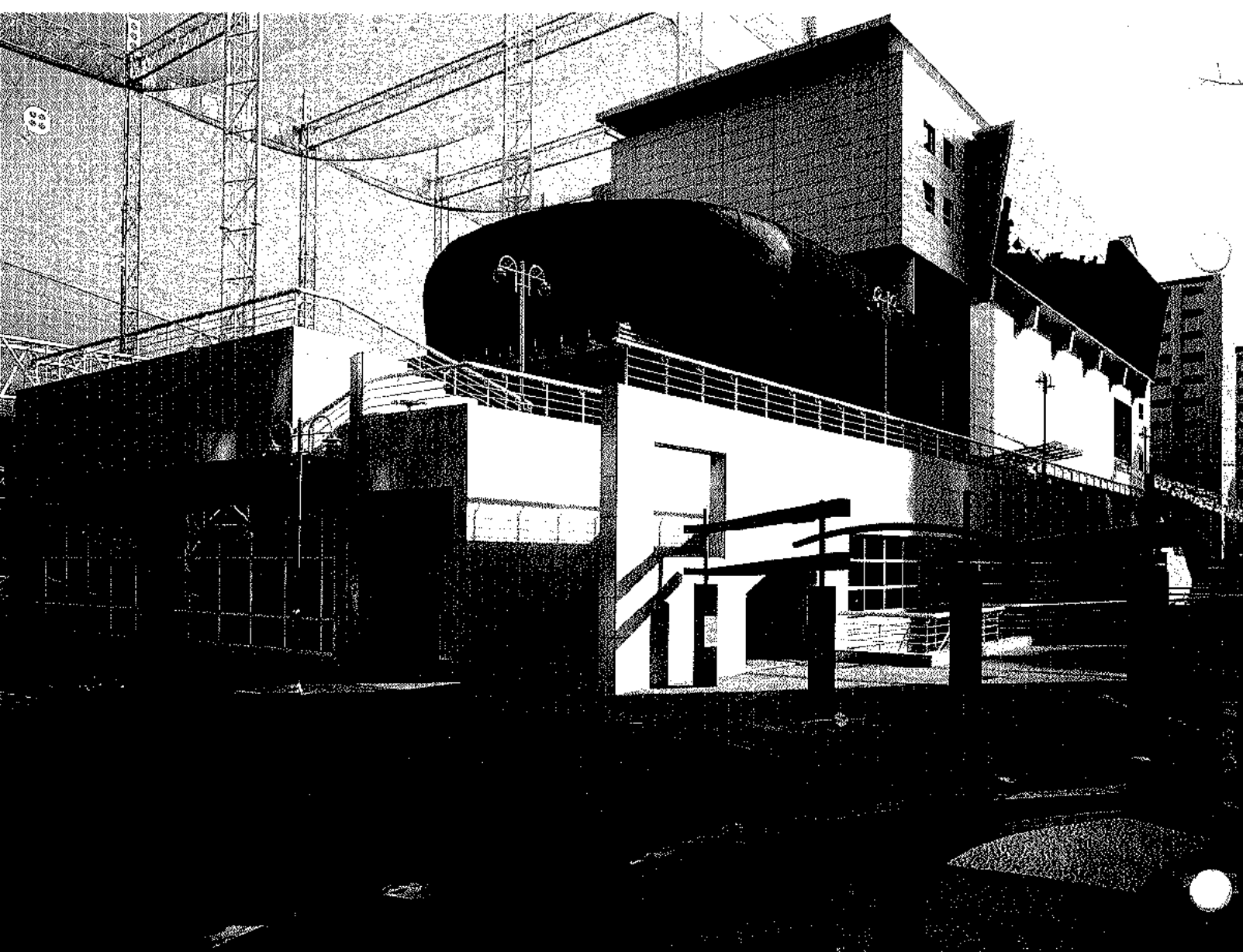
각층마다 상이한 기능들을 담고 있는 건물의 이용동선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직접 각시설로 연결가능한 수직동선을 두어 다양한 공간변화를 유도하였고, 섀든 및 축창을 두어 밝은 지하공간을 계획하였다.

진입부는 1층에 피로티를 두어 20m진입 도로변에서 시각적 개방감을 주었고, 메인 로비는 2개층을 OPEN하여 시원한 공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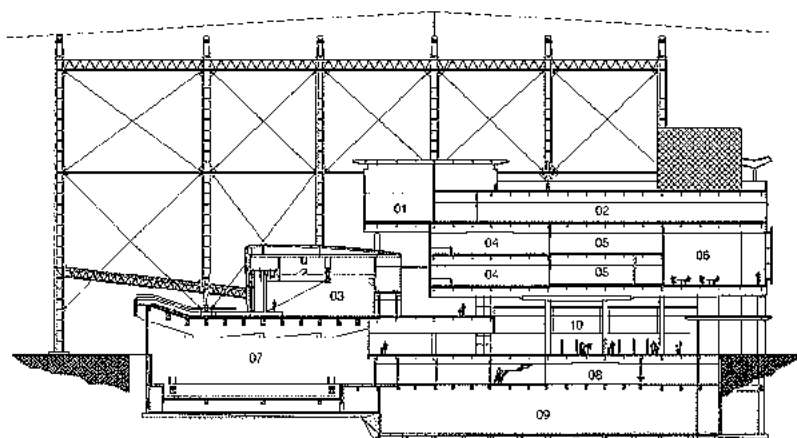
을 주고자 하였으며, 2층의 외부데크와 연결하는 넓은 계단을 건물내부로 연장시켜 자연과 동선을 내외부로 연결하고, 2층 소강당 무대벽 부분을 가변식으로 하여 야외 공연장과 무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니버시아드가 끝난뒤 택지개발지구내 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레포츠 시설로 활용, 인접한 APT와 이 건물 사이에 진입마당, 휴게공간, 놀이마당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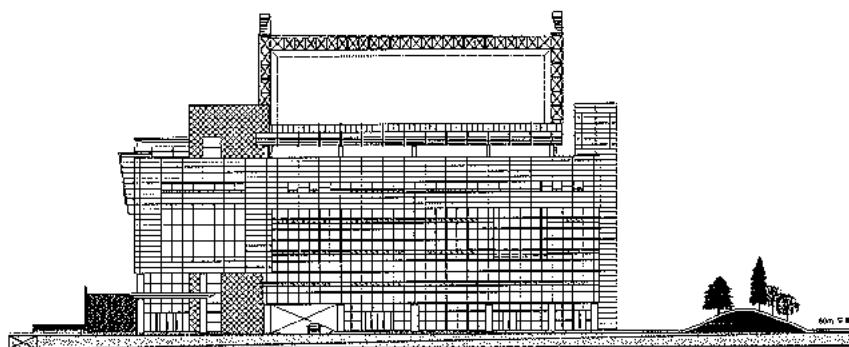


- 01_ 에어로빅
- 02_ 체력단련실
- 03_ 소강장
- 04_ 욕실
- 05_ 라카 및 휴게실
- 06_ 카운터라이
- 07_ 수영장
- 08_ 식당
- 09_ 기계실
- 10_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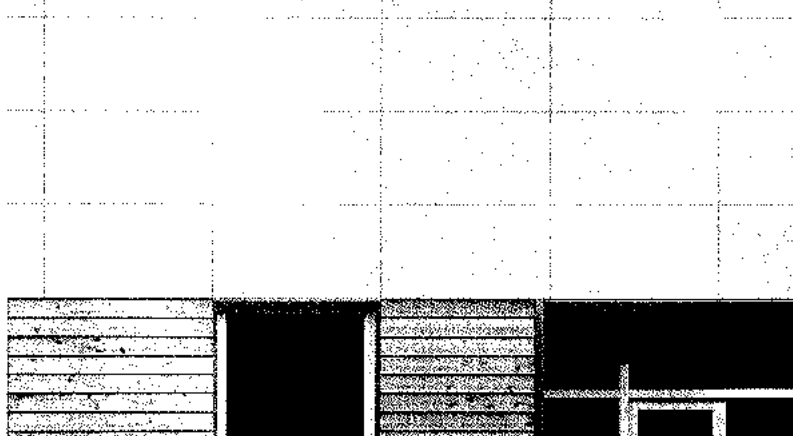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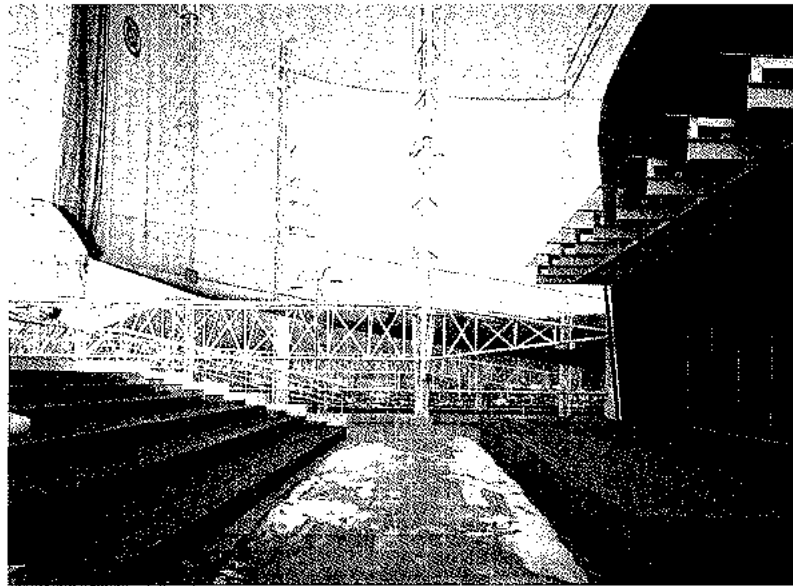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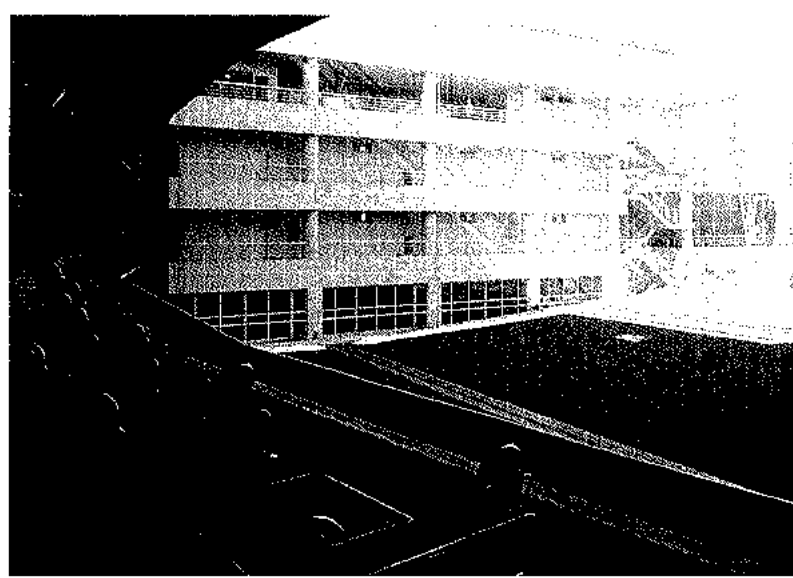
0 5 1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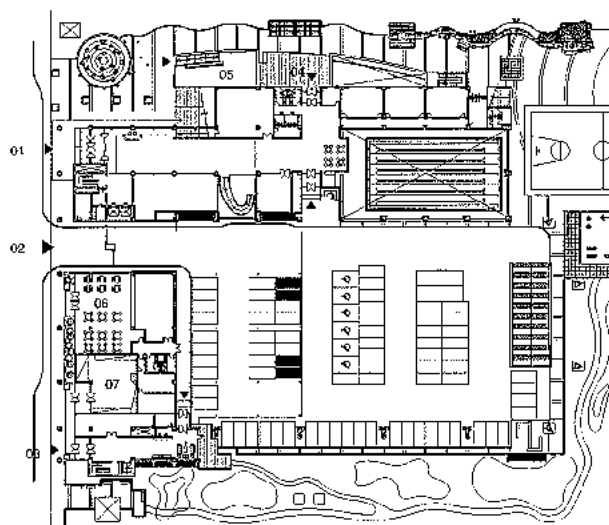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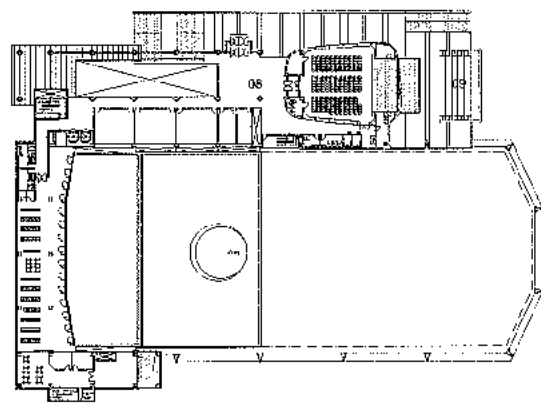
장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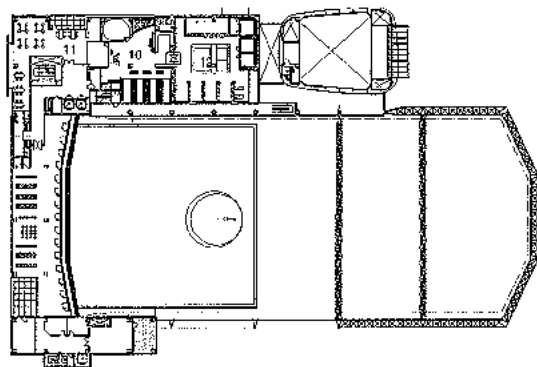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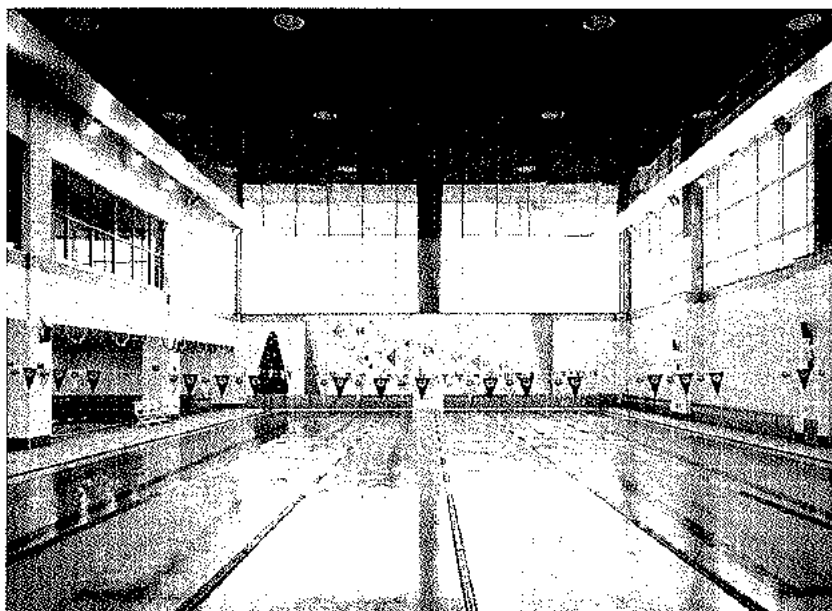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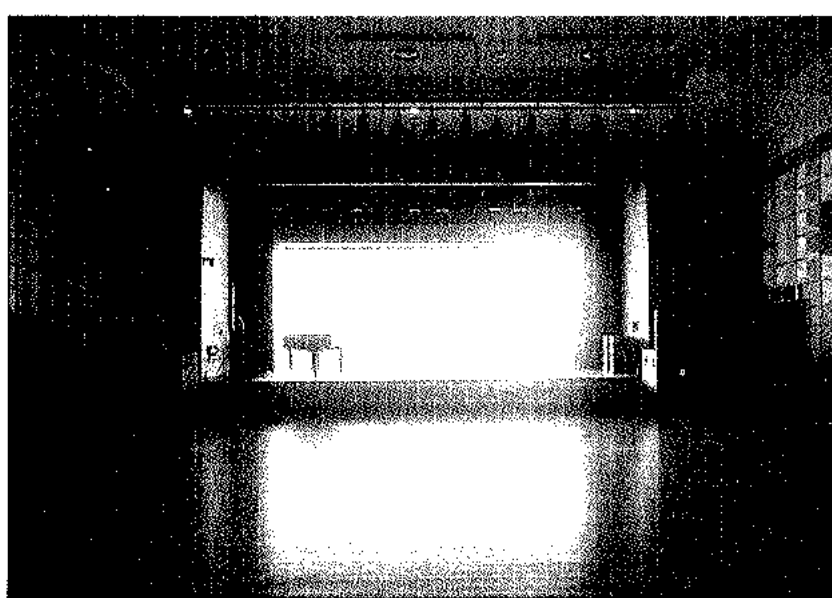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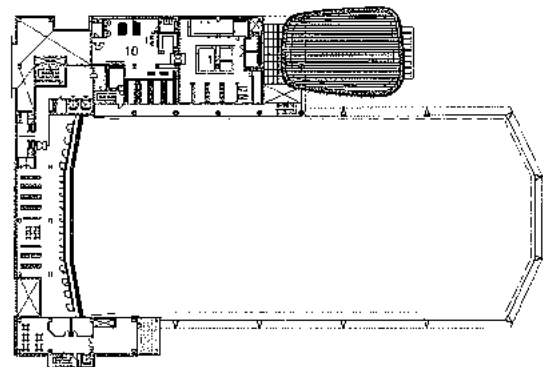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 건물 및 근생 주차입구
- 02 주차장 출입구
- 03 골프장 출입구
- 04 부속입구
- 05 선관
- 06 휴게음식점
- 07 유물전시관
- 08 소강당
- 09 야외공연장
- 10 려카 및 휴게실
- 11 휴게음식점
- 12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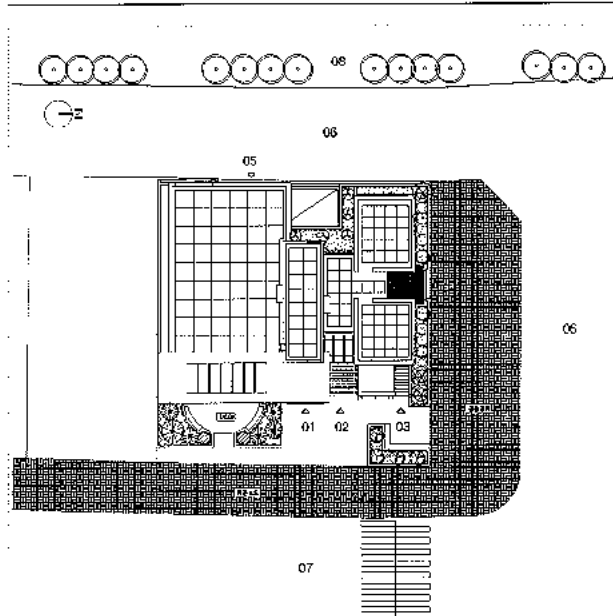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좌2동 사무소

Jwa 2-dong Office

● 배치도



- | | |
|---------------|-------------|
| 01_ 동사무소 주출입구 | 05_ 주차장 입구 |
| 02_ 주출입구 | 06_ 6.0m도로 |
| 03_ 동대문부 주출입구 | 07_ 30.0m도로 |
| 04_ 부출입구 | 08_ 그린공간 |

●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27-2번지
 지역지구 근린상업지역 / 방화지구(상세계획구역)
 용도 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대지면적 598.00㎡
 연면적 1,137.76㎡
 건축면적 322.58㎡
 건폐율 53.94%
 용적률 118.64%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주차대수 8대- 장애인주차1대+자주식7대
 외부마감 점토질벽돌 치장쌍기 / 실리콘 수저플라스터 / 18mm
 저반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동욱, 이동경, 이옥주, 이성태, 박소현
 시공 연일종합건설(주) (소장:박동익)
 구조설계 미래구조
 설비설계 다인엔지니어링
 전기설계 한국나이스기술단
 사진 건축사사무소 재공(촬영: 이인미(비온후))



타입지

해운대구 좌동은 부산 신시가지지역으로 건설된지 10년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업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주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동사무소 업무의 분할이 요구됨으로써 건축주의 힘겨운 예산확보로 인해 3개동의 동사무소 건립사업이 시행되었다.

대지는 신시가지에 도시시설계획부지(공공용지)로 상업지역내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도시적 기능이 상실된 부지였다.

내부공간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이 불분명한 상태에 건축주의 요구조건은 업무 및 관리,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필요로 했다.

1층은 도시계획지침에 의해 이미 확정된 주차 진입로로 인해 주차장 및 민원인







대기로 구성되었으며 3면에서 입체적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2층은 동사무소 및 숙박실로 구성된다. 콤팩트한 평면의 중앙부는 적절히 비움으로써 내부공간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3층은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 휴게공간, 대회의실로 구성하여 주민에게 항상 열린 공간을 제공하며 도서관측에 외부 DECK를 두어 공원로서의 조망 및 휴게를 할수있도록 비워두었다.

외부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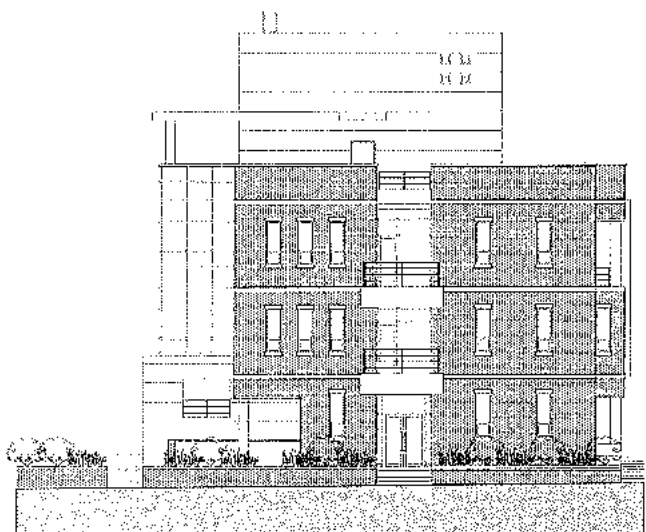
형태는 공사비 절감 및 관공서로서의 질제를 위해 장식을 배제하고 내부공간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낸다.

주출입구의 파사드 및 캐노피는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자인 했으며 좌측 기벽의 처리로 전체적 입면에 균형감을 부여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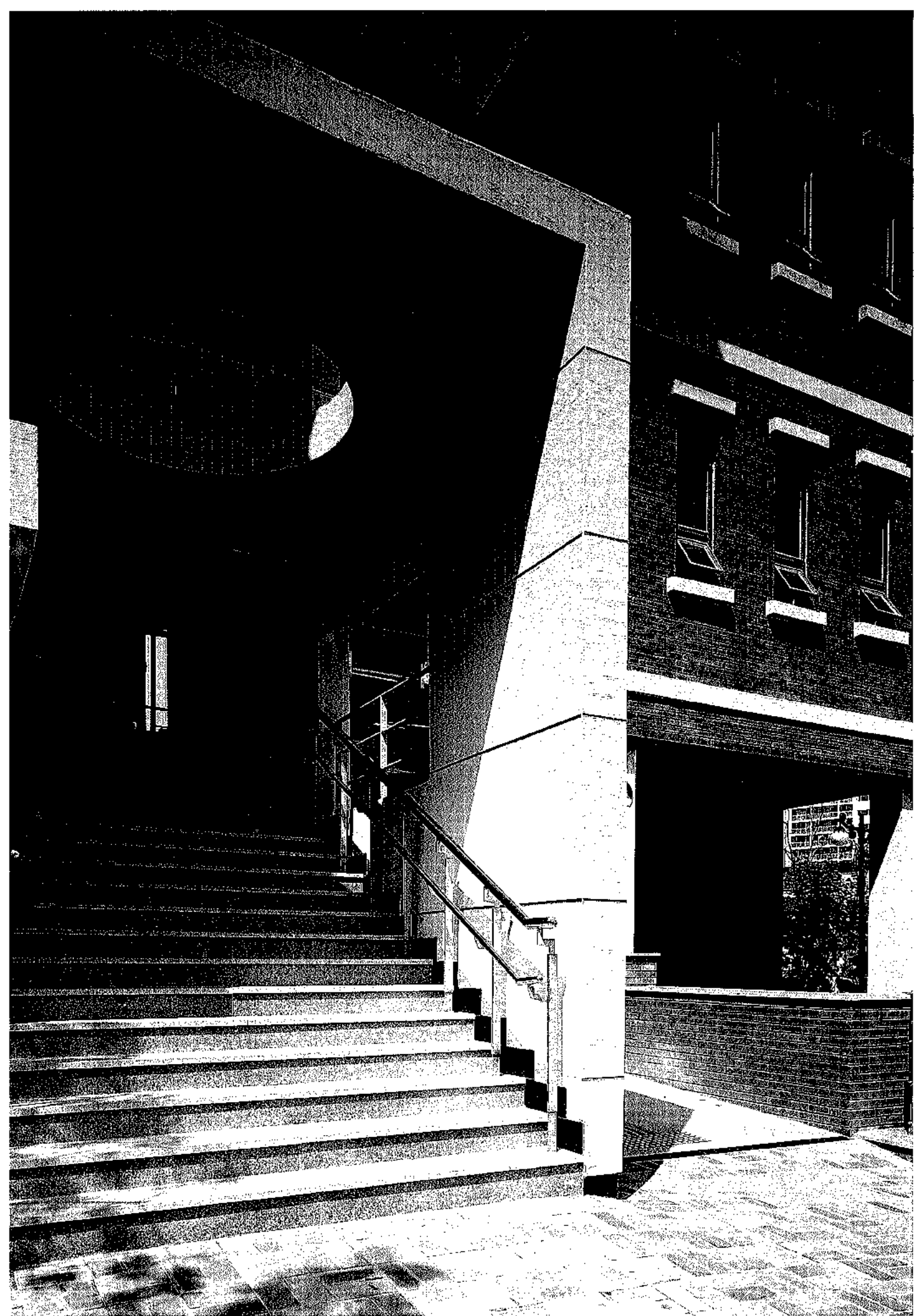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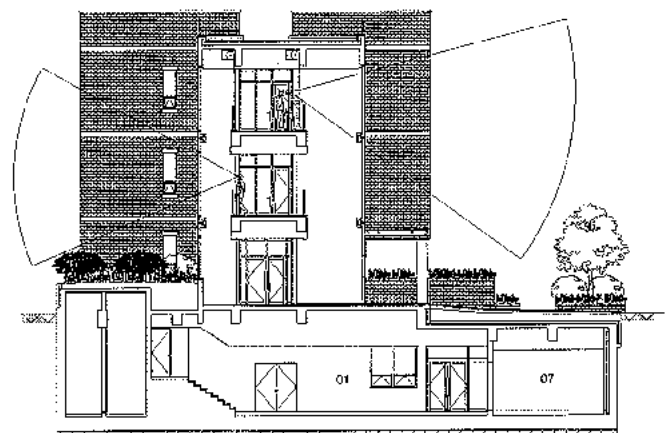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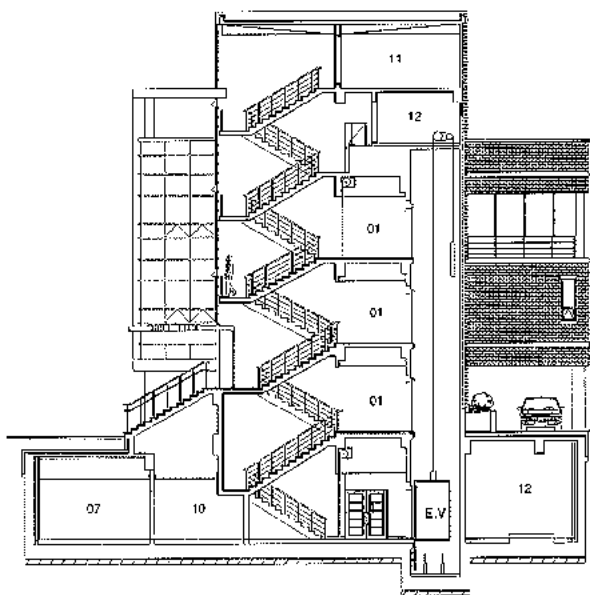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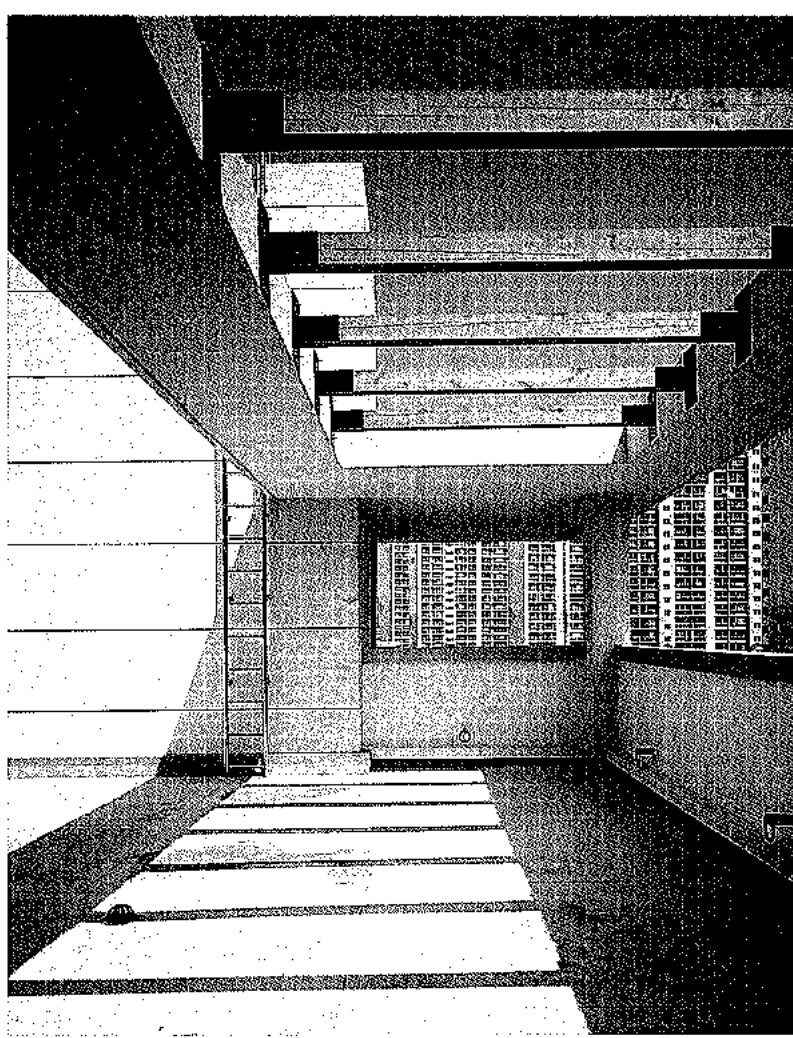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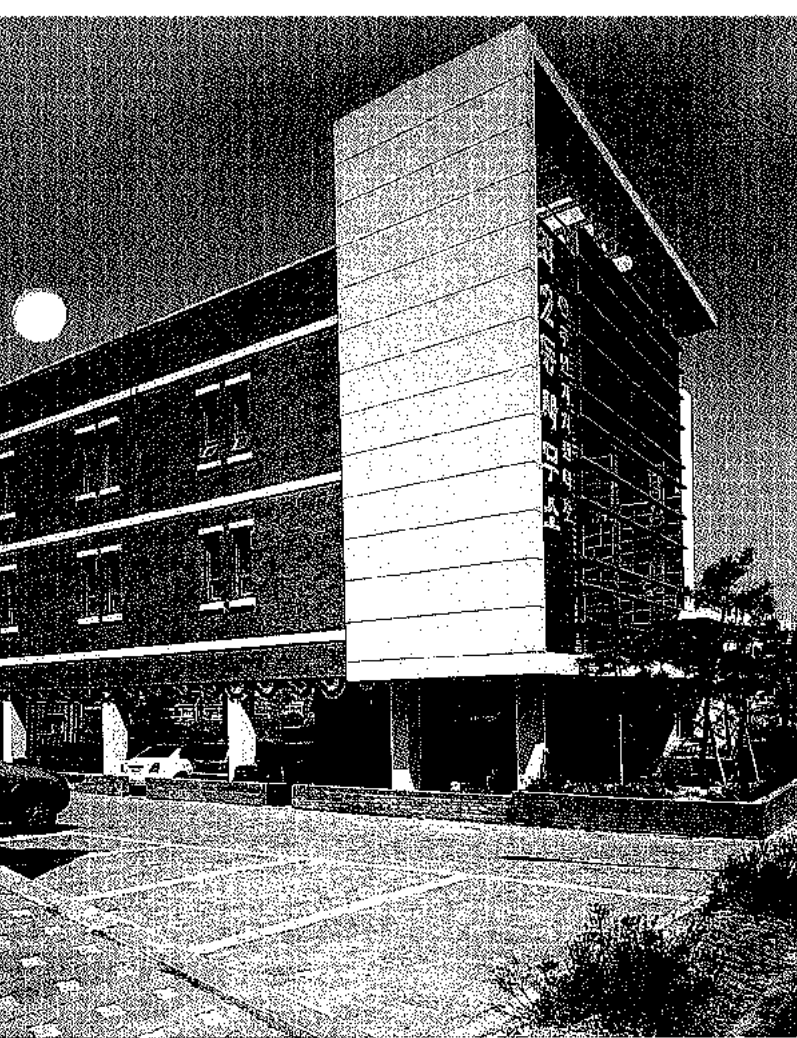
새로운 동사무소의 구성 및 열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좌동 동사무소의 건물은 이렇게 완성됐다.

건축주(해운대구청)의 뜻과 주민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여러 번 수정과 변경을 거듭하면서도 우리의 건축의지를 받아준 해운대구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적은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에도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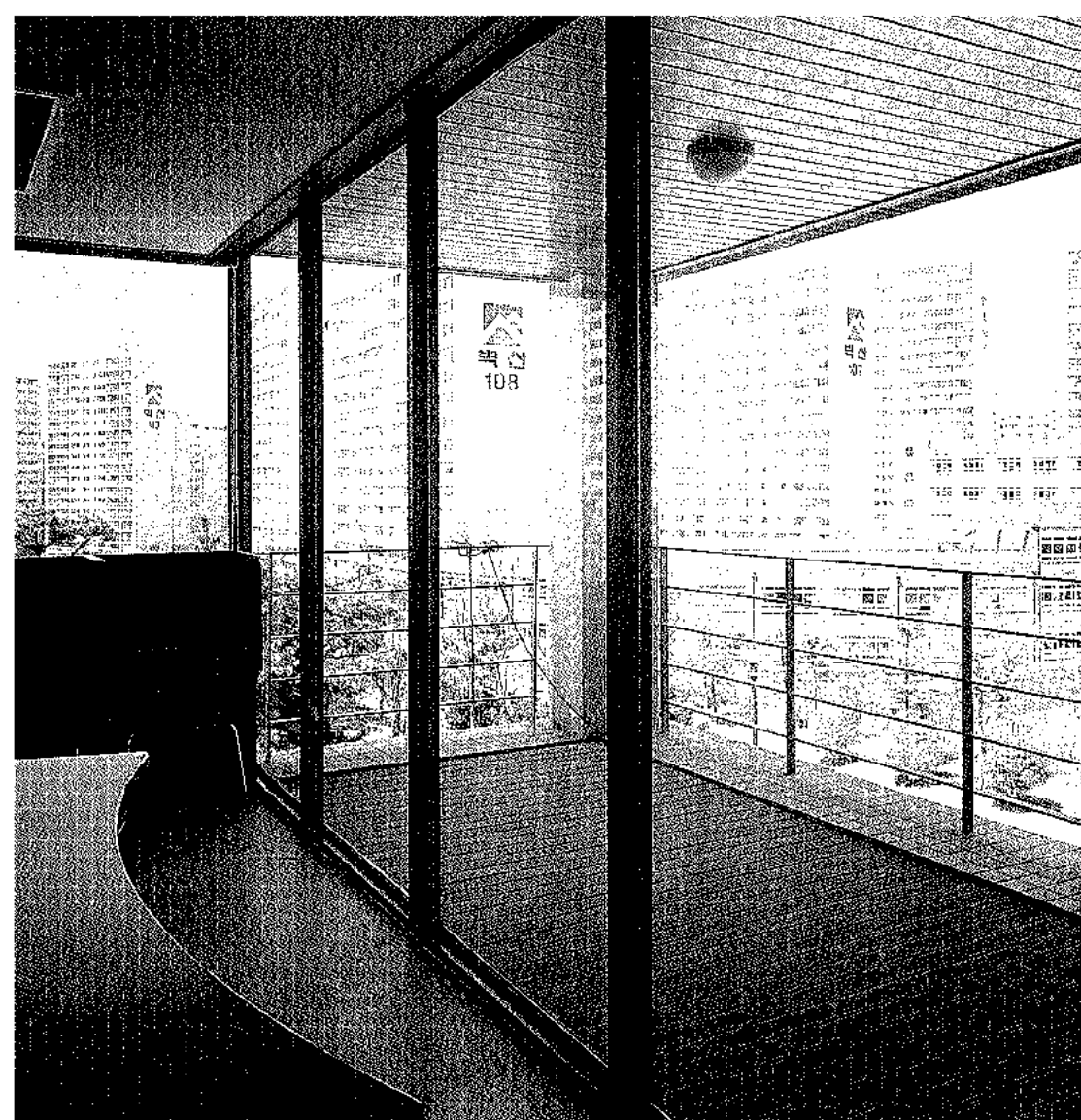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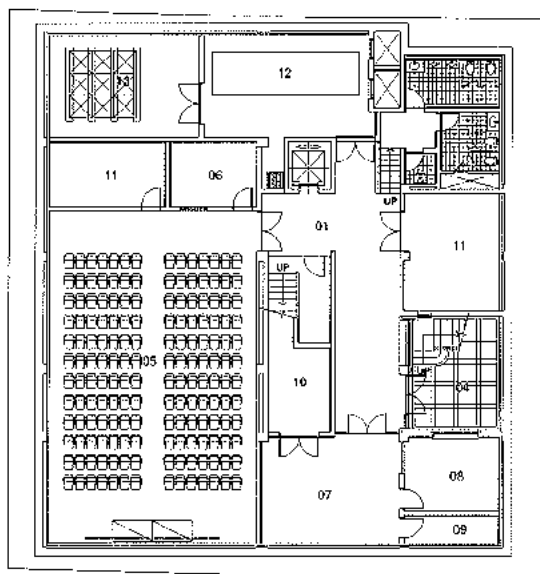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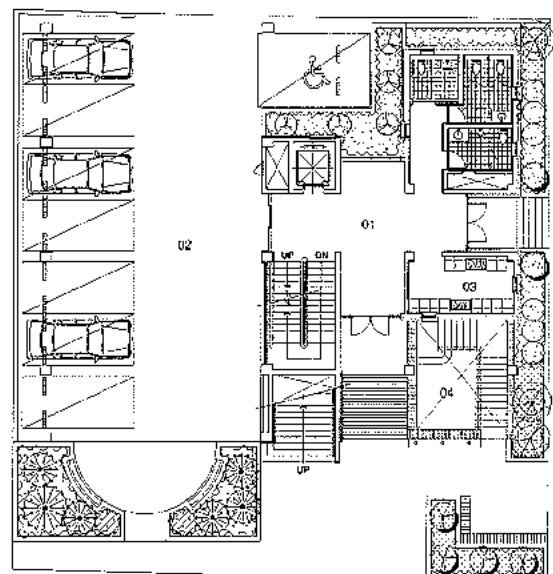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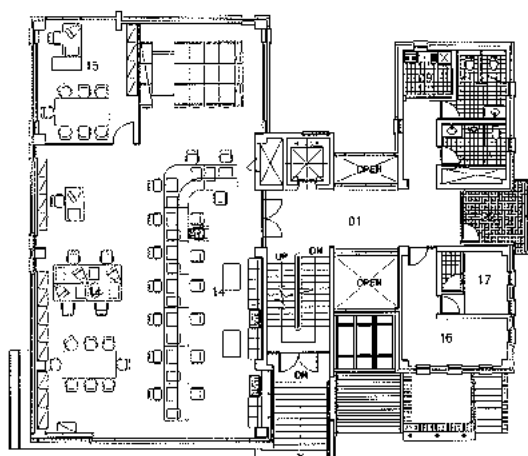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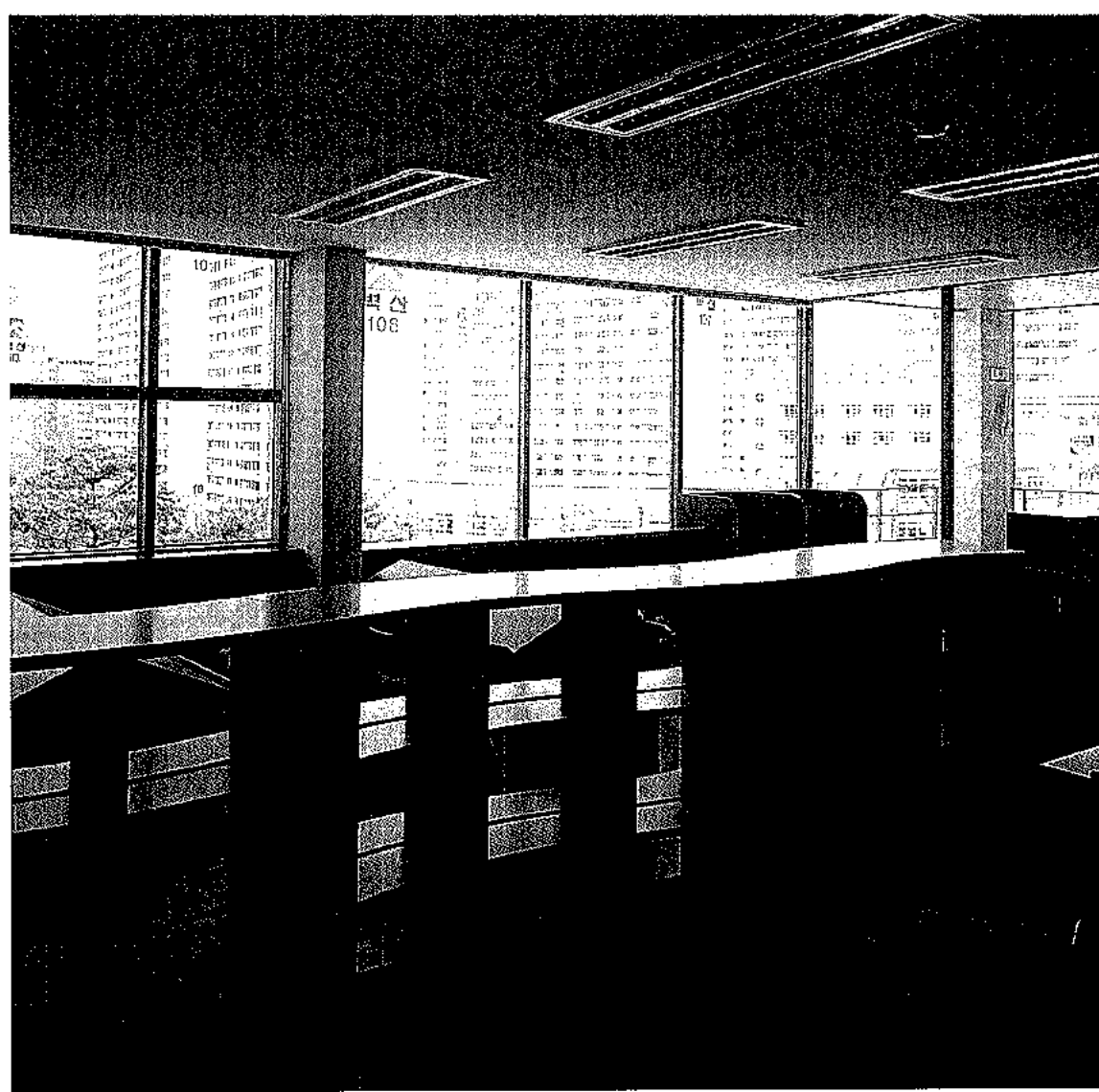
- | | | |
|----------|----------|--------------|
| 01. 휴게실 | 09. 탈의실 | 16. 직원휴게실 |
| 02. 주차장 | 10. 창고 | 17. 수납실 |
| 03. 휴게실 | 11. 창고 | 18. 소회의실 |
| 04. 선로 | 12. 기계실 | 19. 도서관 |
| 05. 다목적실 | 13. 음향크실 | 20. 어린이 놀이방 |
| 06. 조경실 | 14. 동사무소 | 21. 자원봉사자휴게실 |
| 07. 동대문부 | 15. 동강실 | 22. DEC |
| 08. 동대문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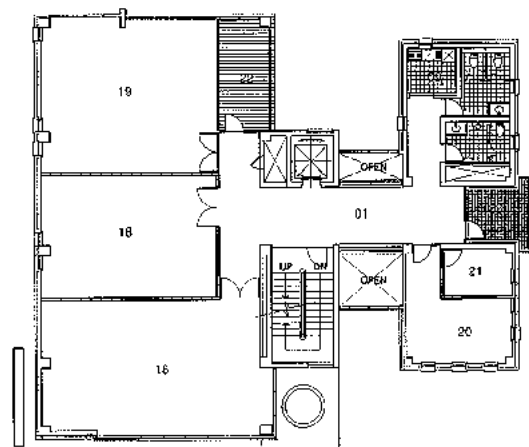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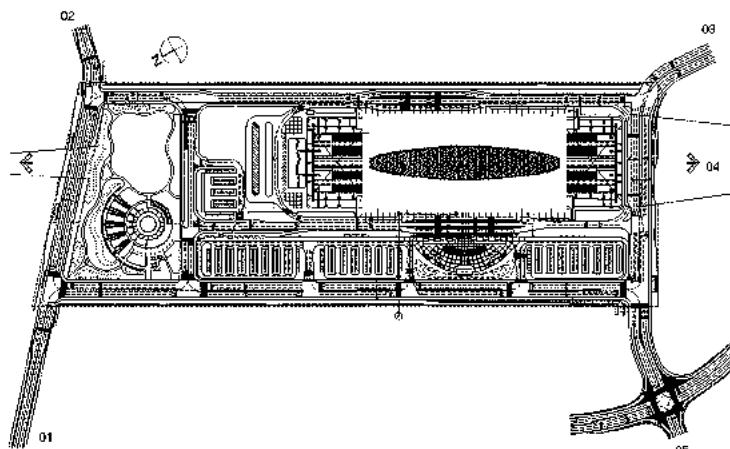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고속철도 광명역사

High Speed Rail Gwangmyeong Station

● 배치도

● 건축개요



01_ 광명 02_ 안양 03_ 남서울IC 04_ 부산 05_ 광명교

대지위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67-2번지 일원
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철도역사)
대지면적	264,131.00㎡
건축면적	48,184.00㎡
연면적	78,495.26㎡
건폐율	18.24%(법정 60%)
용적률	6.39%(법정 300%)
규모	지하 2층, 지상 2층
주차대수	843 대(버스 21대, 장애인 주차 30대 포함)
구조	철골 트러스 + 철골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강화유리, 복층유리, 스테인레스 스틸 (지붕)
설계담당	김승립, 남광호, 조재준, 최창섭, 노광현, 조현철, 조봉순, 고민석, 윤주현, 김규열, 이승재, 심상철, 이호, 조성익
기술자문	AREP(프랑스)
시공사	동부건설, 한일건설, 세방TEC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설계의 기본 방향

1. 배치의 접근성/양면성

- 최적 위치에 이용자들의 접근 유도 : 남서울 IC와 광명, 안양사이에서의 접근을 별도 분리
- 부지 안에 최단거리의 동선 확보
- 불필요한 차량동선 방지

2. 조형성

-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장성 창출
- 구릉지인 주변환경과의 조화된 형태 추구
- 고도의 집약된 첨단기술 및 첨단재료의 채택으로 미래지향적 이미지 창출

3. 기능성

- 주변여건과 장래 증축을 고려한 종합적 배치계획 수립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첨단건축물 구축
- 원활한 동선계획 및 합리적 기능계획

주요 설계개념

1. 첨단기술의 강력한 이미지

광명역사는 최첨단 여객수송수단인 고속철도를 위한 차세대 역사에 속한다. 경부고속철도는 최고 300km/h(설계최고속도 350km/h)라는 전례없는 초고속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내외로 주파한다. 광명역사는 이러한 첨단기술의 관문이며, 그 건축적 특성은 거대한 스틸과 유리의 집합체로 첨단기술의 강력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2. 역동적 유선형 형태

광명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규모에 의하여 깊은 인상을 주게된다. 개발제한구역내 구릉지대 저반부에 위치한 본 역사의 유선형의 형태는 시각적 즐거움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유리와 스테인레스 스틸제의 지붕면은 강력하면서 대조적인 의장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3. 인간적 척도와 명확한 출입흐

광명역사에 근접하면서 초대형의 역사건물은 인간적 척도로 인지된다. 역사에 도착한 이용자들은 지체없이 출입홀로 직행하며, 특유의 캐노피는 출입홀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시켜준다.

4. 방향인지를 위한 건축적 요소 도입

이용자들을 즉각적으로 목적장소로 인도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안내표지 등의 사용은 최소로 억제한다.

5. 인상적 내부공간 조망

주공간에 진입하면서 이용자들은 역사 내부공간의 인상적인 조망에 접하게 된다. 내부공간의 주요설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들의 역사내부공간과 열차에 대한 조망을 확보한다.

- 이용자들이 현 위치에서 목적지는 장소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 상대적으로 작은 척도의 출입 홀로부터, 확장된 척도의 콘코스, 약 40m 높이의 거대한 볼트구조로 이루어진 중앙부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연속적 공간체함에 의하여 공간의 위계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6. 기타 세부 설계원칙

- 마감재의 접제된 사용에 의한 내부공간의 균질성 제고
- 한색 및 난색·거친 질감 및 부드러운 질감·전통적인 마감방법 및 현대적인 마감방법 등 대조적 의장효과 활용
- 이용자들의 방향감각 및 안락성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를 통해 안내표지의 과다사용 억제

- 중색조의 배경색 및 마감을 통한 이용자들의 안내표지 인지도 제고

- 고속철도의 이미지에 조화되고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열·빛·음 기타 물리적·적외선 쾌적한 실내환경조건을 제공

설계 개념과 과정

국내외 사례조사

초기 프로그래밍 단계에서의 사례조사는 주로 프랑스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TGV역사인 르와시 역이나 릴 역과 비교하여 수송수요가 20배가 되는 대규모의 역이라는 점에서 출발과 도착여객의 동선분리와 그에 따른 시설(매표소, 콘코스, 승강장, 부대시설 등)의 분리 배치가 중요한 사항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동선의 분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통로



폭의 확보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대시설의 중복을 막을 수 있었다. 매표소와 대기행렬에 따른 통로 폭의 결정은 〈역시설기준연구〉의 산식에 의한 수치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AREP내에서 실물크기 제작 모델을 이용한 모의실험(mock-up test)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또한 국내의 사례조사로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등 주요 대도시의 기존 역사에 대한 건축 기능 분석과 이용객의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인구, 피크타임, 매표현황, 매표대기 소요시간 및 행렬, 개표대기 소요시간 및 행렬, 역내 체재시간, 대합체재시간, 편의시설 분포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역시설 프로그램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역시설 프로그램으로는 열차 승객을 위한 여객서비스시설로서 물품 보관소, 유실물센터, 편의시설, 여객화장실, 금융센터, 여행센터 등이 있으며, 접객시설로는 매표소, 개집표실, 통신영업센터 등이 있다. 또한 공공시설로서 우체국, 전신전화방송실, 파출소 등이 포함되었다. 그 외 시설로서 역무시설과 역무 지원시설들이 있는데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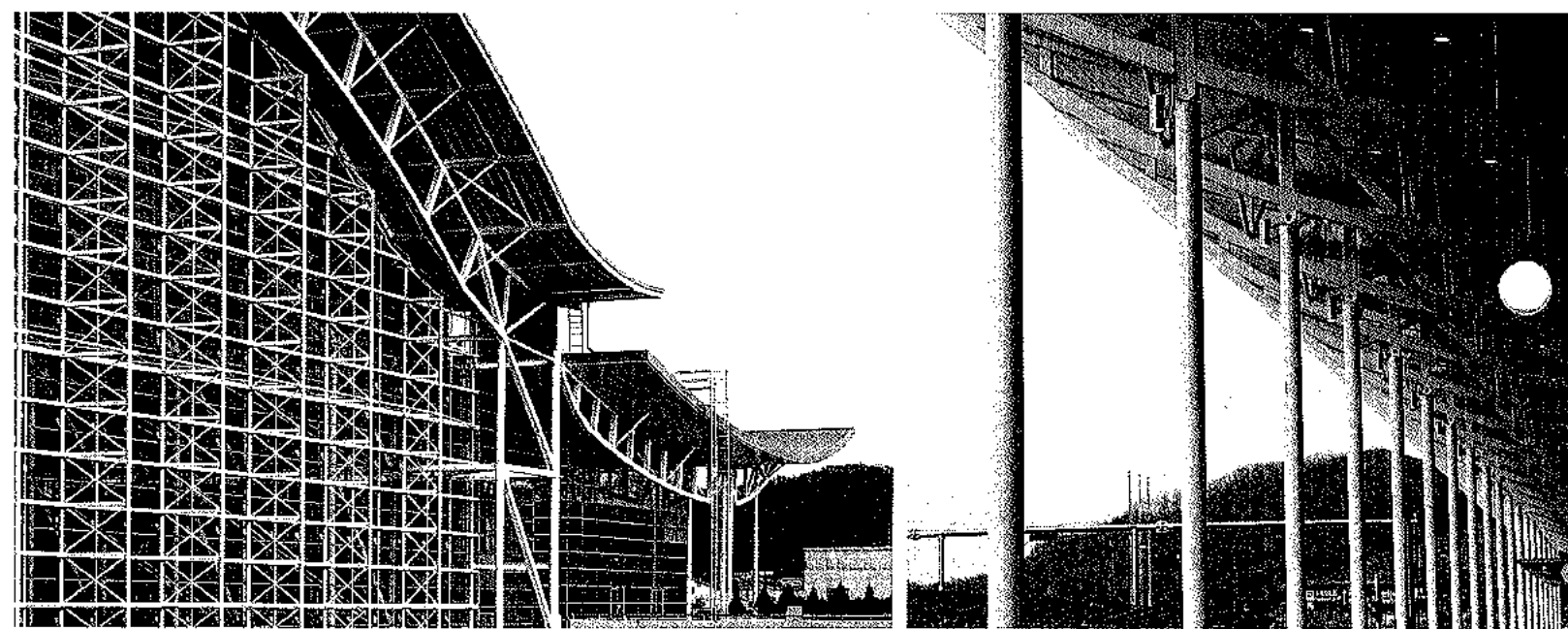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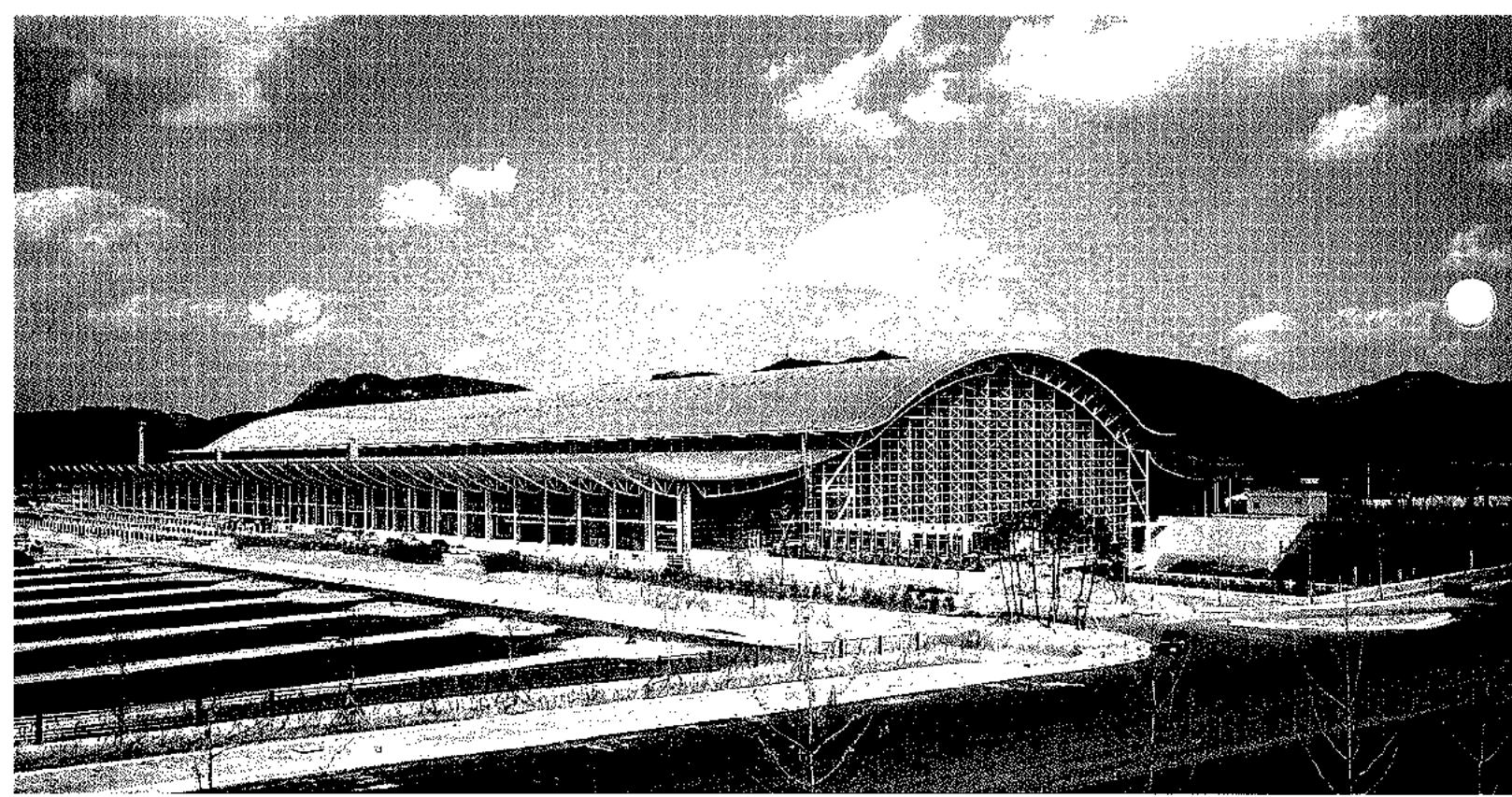
무사설로는 역우실, 역장실, 식당, 휴양실, 승차권창고, 종합통제실 등이 있으며, 지원 시설로는 현업사무소, 열차사무소, 종합사령실이 있다.

배치계획 - 명쾌성과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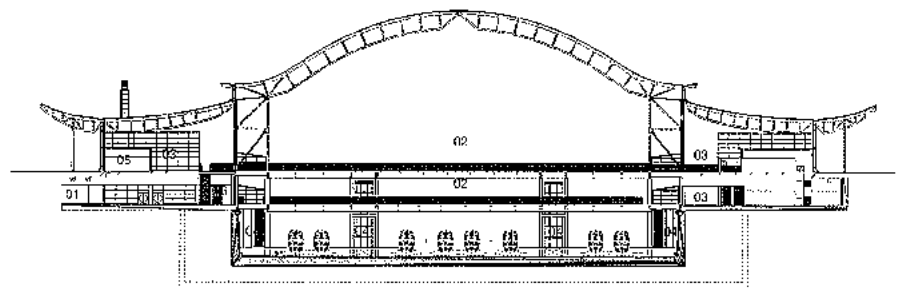
배치계획시 고려하였던 주요사항은 기능의 명쾌성과 편리성을 위해 도착과 출발을

위한 승강장 및 콘코스를 수평적으로 서로 반대편에 배치하여 동선의 교차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부대시설을 분산배치한 점이다. 설계기준년도인 2028년에는 1일 147,000명의 승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광명 역사를 이용함에도 동선의 혼란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기능실 배치는 렉 서비스를

를 원칙으로 승객이 역사에 도착하여 출입출, 콘코스를 거쳐 열차표를 구입하고 열차에 탑승할 때까지의 이용과정을 분석하여 최단 거리의 동선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매표소, 물품보관소, 편익시설, 대합실, 은행, 파출소, 우체국, 여행센터 등을 분산배치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 01. 출입구
- 02. 여객 승차
- 03. 관공스
- 04. 승강장
- 05. 역무실



횡단면도

양면성

철도의 성격상 선로를 축으로 좌우측이 자연스럽게 양분되는 점을 이용하여 양면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주 진입 도로가 광명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고속도로화할 것이기에 고속도로에서 보는 전경뿐 아니라 상징 광장이 있는 사쪽 또한 기존도시의 개발촉상으로 보아 양쪽 모두에 정면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뒤가 구분되지 않는 대칭적 형상을 갖게 되었다. 역사의 형상을 크게 결정한 유선형의 지붕형상은 구릉지인 주변의 자연지형과도 잘 어울릴 것이다. 지붕의 천장을 연결하는 선형은 한국의 전통적인 처마곡선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하였다.

지붕구조

당초 설계 경기 계획안에서는 브와시 역과 같은 타이 로드(Tie Rod)방식의 구조형식을 취하였으나 구조적인 안정성과 역사내에서의 시각적인 점을 고려하여 비렌델 트러스(Vierendeel Truss)형식으로 변경하여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상부의 철골트러스 지붕구조는 합리적이고 미려한 구조로 하이테크한 역사의 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다.

상부구조형식은 철골 트러스구조이고 철골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구조형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택하여 구조적인

안정성을 취하였다. 또한 열차의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토목구조물과 건축구조물을 분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지붕재료의 선택에 있어서는 초기 투자비만큼이나 큰 유지 관리비를 고려하여 내구성을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나 인천 국제공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구연한이 3배 이상되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널로 결정하였다.

자연채광 및 환기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시도로 지붕의 천장을 통하여 승강장까지 자연채광이 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설계경기 심사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 대규모 공간의 유지관리는 승강장 상부의 공간을 자연환기에 의한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나아가 역사 남북측 선로부분의 개방화로 열차소음 및 풍압, 진동, 공기조절 등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였고, 역사내 화재, 재난시 승객의 대피 등 안전문제도 고려하여 완벽을 기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공간의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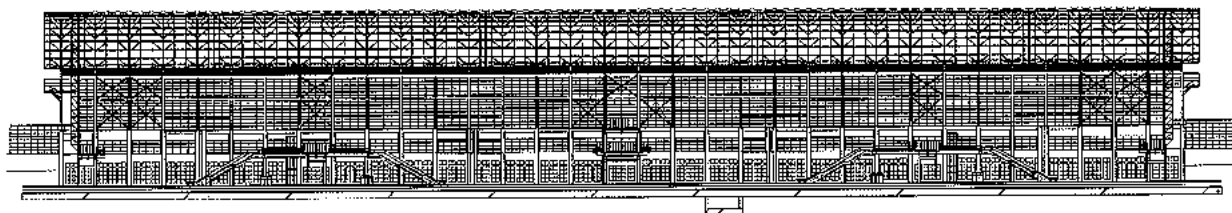
콘코스, 대합실이 승강장과 유리 커튼월

사이로 위 아래가 트여있어 열차의 진출입과 여객의 이동을 조망할 수 있으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방향성 찾기 (way-finding) 측면에서도 내부공간의 투명성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지붕 상부의 천창과 남북측 커튼월로부터 내부를 밝혀주는 자연채광과 더불어 내부공간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학술연구를 통한 설계의 기준설정과 검증
풍압연구를 통해서 외부의 바람의 영향과 열차풍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눈에 의한 적설실험, 열차소음, 통과열차의 진동에 의한 구조적 문제, 실내 기류에 의한 환경변화, 범죄예방적 측면에서의 계획적 방지대책 등이 이루어졌으며, 설계시의 기준과 검증자료로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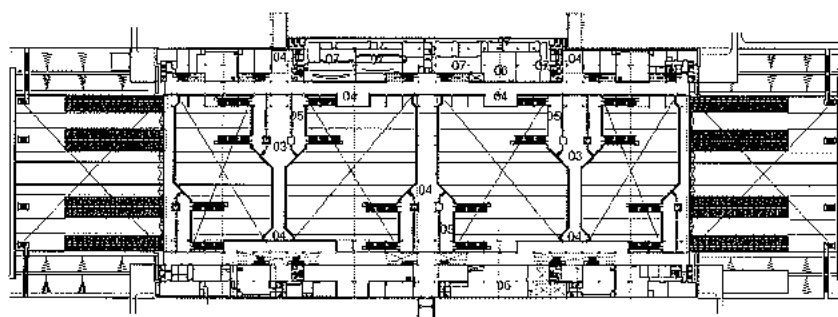
방재와 화재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대규모 공간이나 건축물의 경우 국내의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특히 중요하였다.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국내에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는 선진국의 방재기준을 적용하였는데, 국내 규정 보다 강화된 미국 NFPA Code를 준용하여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명안전과 건물보호를 위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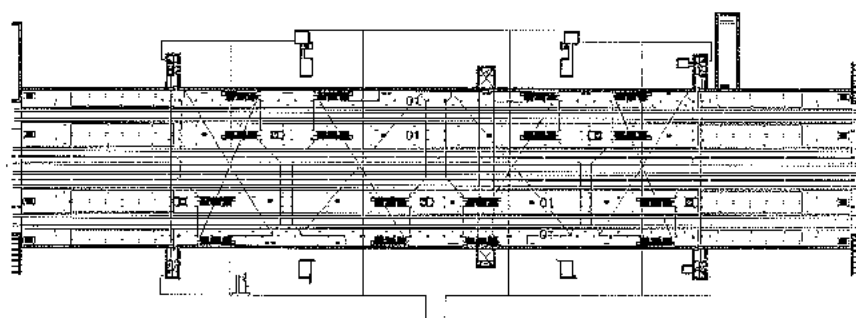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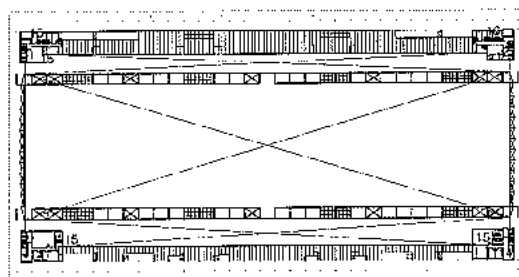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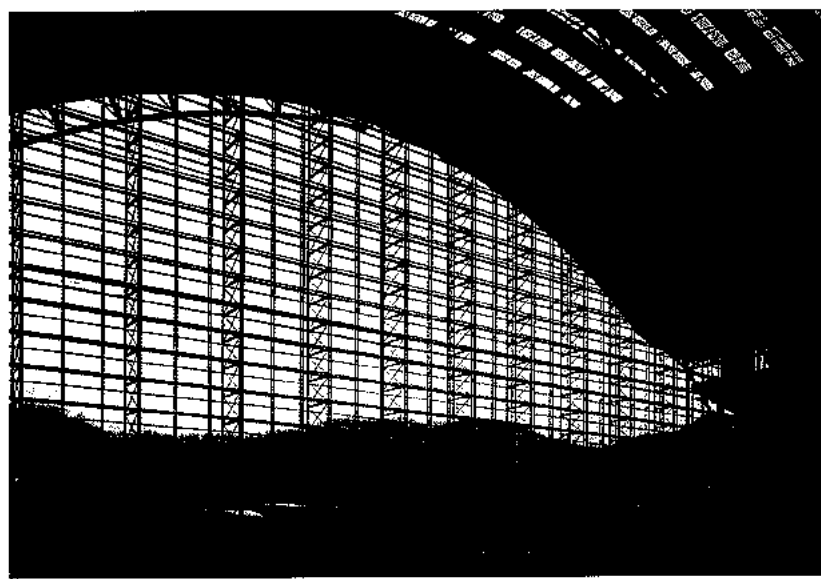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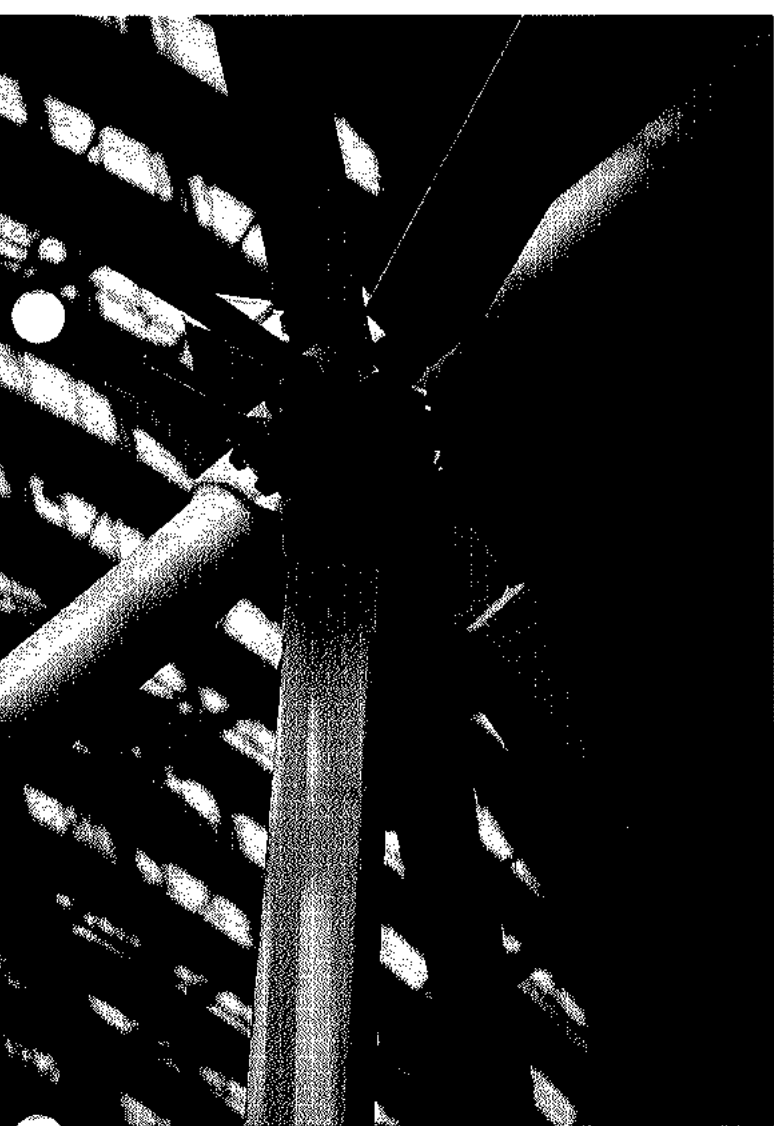
- 01. 승강장
- 02. 엘리베이터 홀
- 03. 여객동로
- 04. 대합실
- 05. 개찰로실
- 06. 콘코스
- 07. 안방
- 08. 주출입구
- 09. 대표실
- 10. 여객센터
- 11. 역주실
- 12. 주차장
- 13. 피톤치
- 14. 승객실
- 15. 경의실
- 16. 승무원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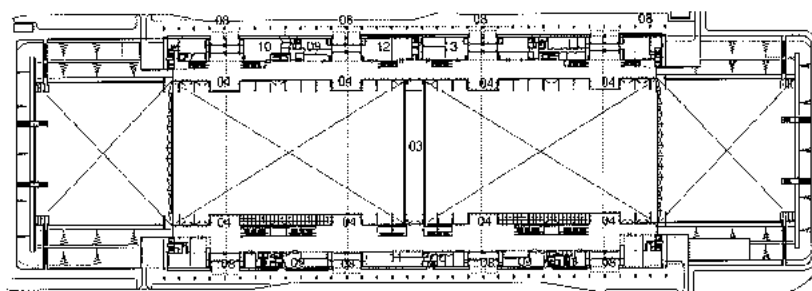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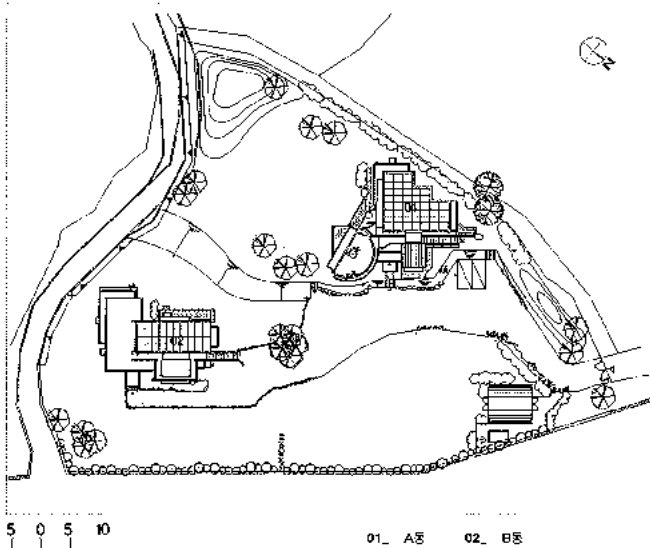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수동 전원주택 - 4세대 동거형

Sudong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지동리 226-1 외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지면적 A동 1,728㎡, B동 973㎡
연면적 A동 307.40㎡, B동 293.39㎡
건폐율 A동 11.09%, B동 20.12%
용적률 A동 16.69%, B동 26.95%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 마감 외벽: 모노쿠워 + 방무독 위 오일스테인
지붕: VM ZINC 지붕재 (곡면지붕)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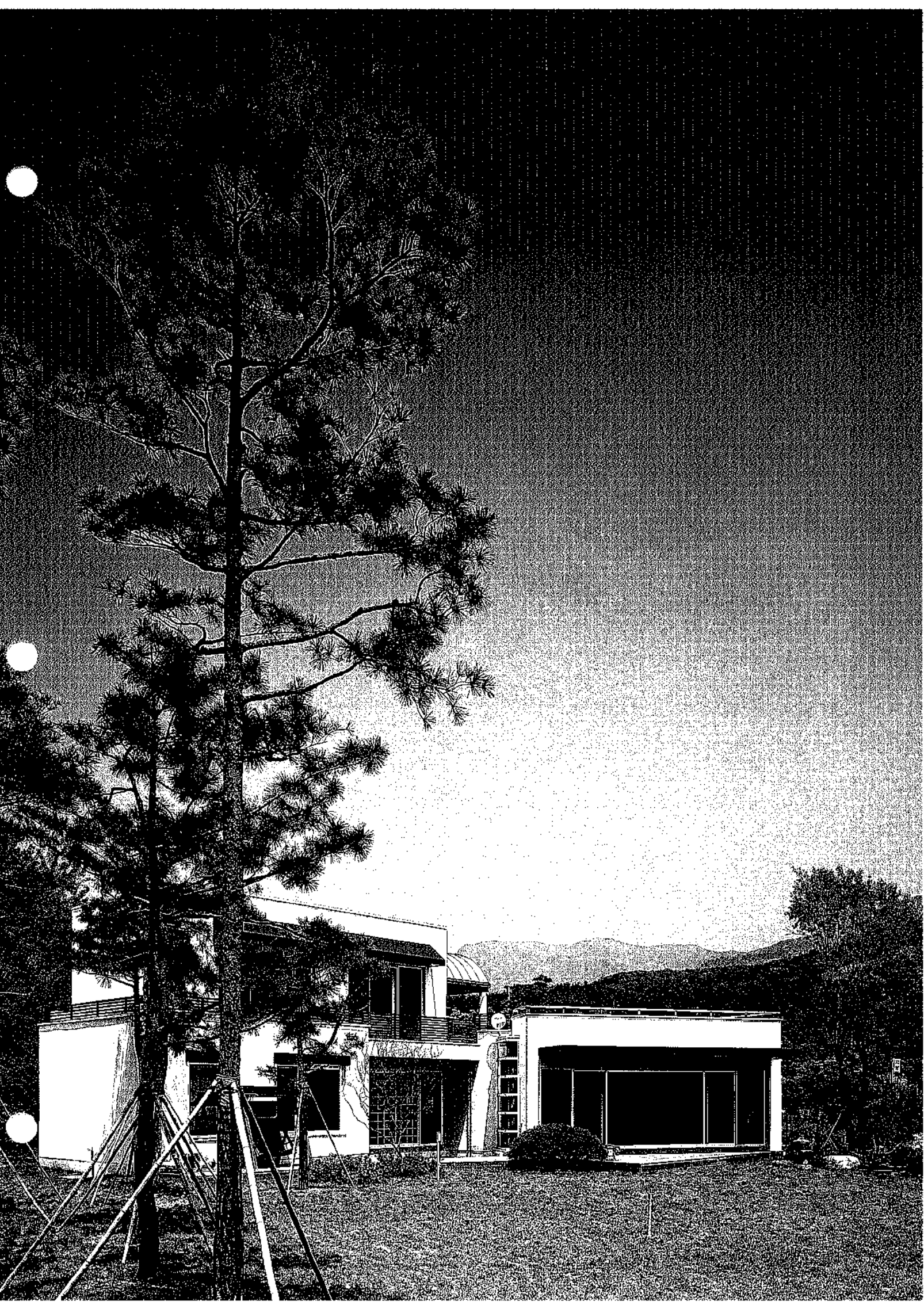


이 전원주택은 A동 2세대, B동 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대는 구성원 (형제, 처가) 특성에 맞는 위치에 배치하여 공동생활 속에서 각자의 독립된 외부공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텃밭은 대지입구쪽에 배치하여 농작물을 가꾸면서 각 동으로 쉽게 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하였고, A동 남쪽 앞마당은 A, B동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으로 조성되고 맨 남서측 코너에는 인공으로 성토한 동산을 조성하여 외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차단하면서 조경 구성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평면상의 특징으로는 각실 배치를 외부공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배치한 점이다. 도심주택과는 달리 전원주택은 외부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은 관계로 건물 중심에 주방 및 아일랜드형 식탁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서비스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심플한 싱크 배치로 깨끗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주식당은 동측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용면에서는 아일랜드식 식탁이 바로 앞의 연못 분위기와 어울려 거실 못지 않은 사용빈도가 높은 좋은 공간이 되었다.

거실의 배치는 후면을 곡면처리하고 전면을 주축(Main Axis)에서 30도 우측으로 틀어 안광동산 방향으로 조



땅이 향하도록 배치하므로서 B동에서 이 거실쪽으로 시선을 차단하도록하여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하였고, 조형적으로는 거실의 곡면부와 함께 30도 엷간 요소가 평지붕의 단순함에 외관의 재미있는 변화를 주도록 설계하였다.

B동 2층은 다목적실을 배치하여 실내연결외에 외부 침묵계단에 서 직접 출입하도록하여 주차 개인업무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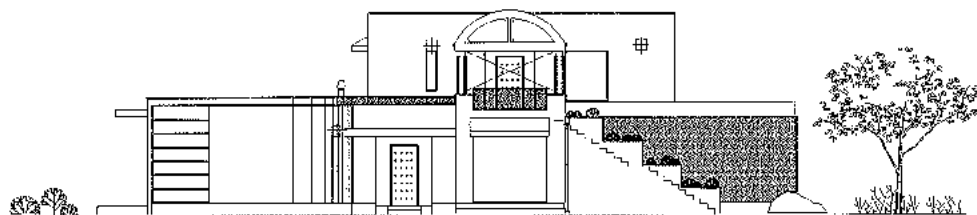
건물의 외관은 전원주택일 경우 경사지붕이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형태를 탈피하여, 조형적인 어울림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건물외관과 색상을 계획하였고, 경사지붕이 없는 평지붕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2층정자부분에 티타늄합금 아연판으로 처리된 곡면지붕을 도입하고 외부에 목재캐노피 및 목재난간을 설치하여 부드러운 요소를 가미하였다. 건물의 색상은 백색계열의 라임계 물감을 채택하고 화강석 두껍돌 및 창대석으로 먼지오염을 막으면서 전체적인 가벼움을 탈피하도록 하였다.

A동의 경우 기존의 큰밤나무 2그루가 있어 이 나무와 신축할 건물과의 조화를 위해 밤나무 옆에 큰바위를 건물옹벽에 붙여서 설계하게 되었고, 그결과 건물과 바위가 일체를 이루면서 밤나무와 어울려 좋은 스카이라인(Sky Line)이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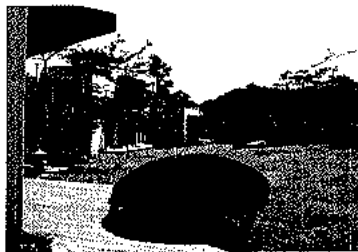
1층거실은 곡면 중앙에 세로의 좁은창을 설치하여 대문 및 현관의 출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양측코너에는 고정코너유리를 설치하여 반원 곡면당어리의 무거움을 피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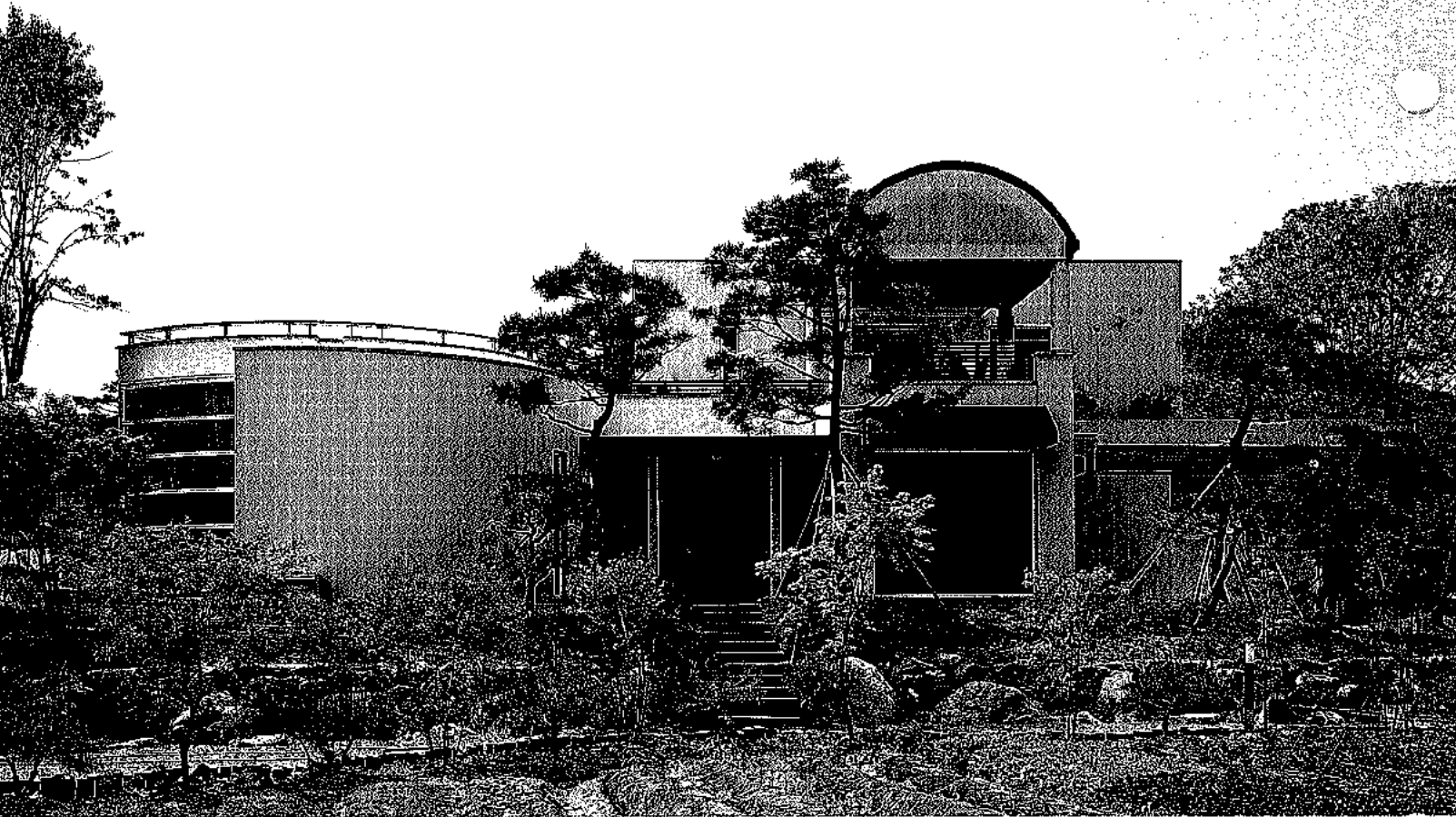
사방 시야가 트여있고 평지에 건축되는 이번 전원주택은 건물후면을 포함한 사방 어느부분의 외관 및 조망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설계시 고려되었고, 이 결과 정면뿐 아니라 다른면의 외관과 조망도 좋게 확보되었다고 생각된다.

전원주택설계에는 전체적인 땅의 조경적인 배치와 함께 건물을 설계해야함이 중요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평면구성과 외관, 그리고 전원 생활의 많은 경험요소들이 설계에 반영될 때 진정한 전원주택이 탄생되리라 생각된다.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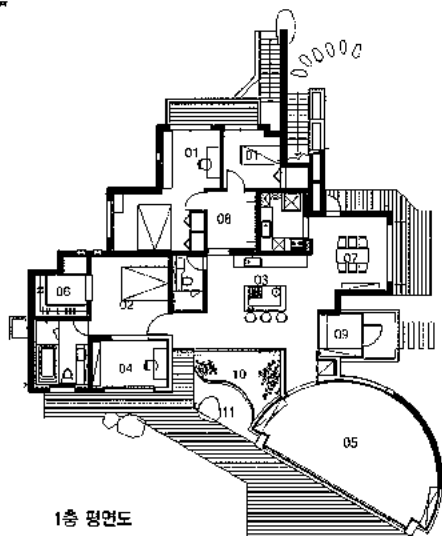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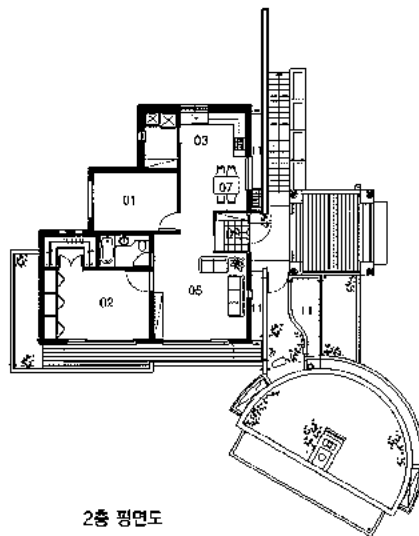




- 01. 광
- 02. 강방
- 03. 주방
- 04. 서재
- 05. 거실
- 06. 드레스룸
- 07. 식당
- 08. 전실
- 09. 천관
- 10. 연못
- 11. 화단
- 12. 대쪽저실
- 13. 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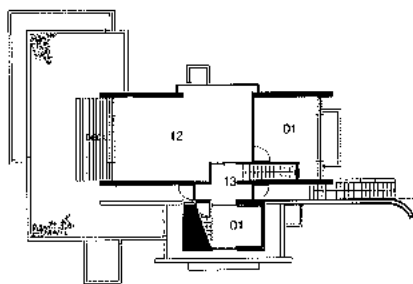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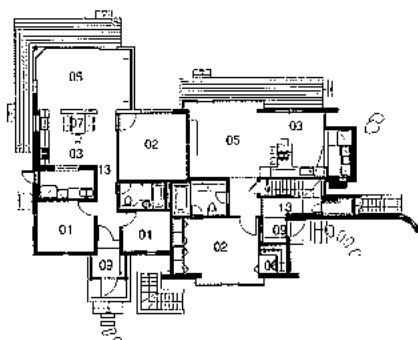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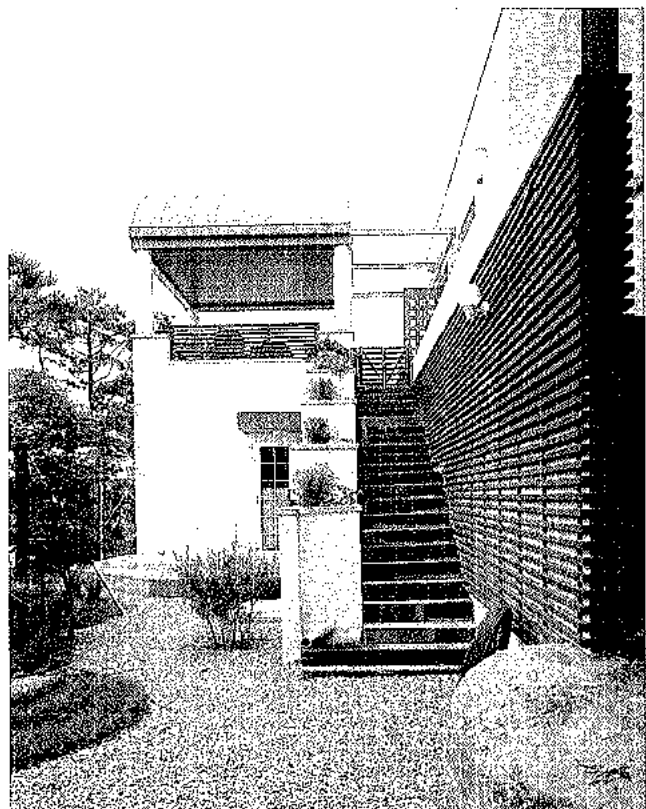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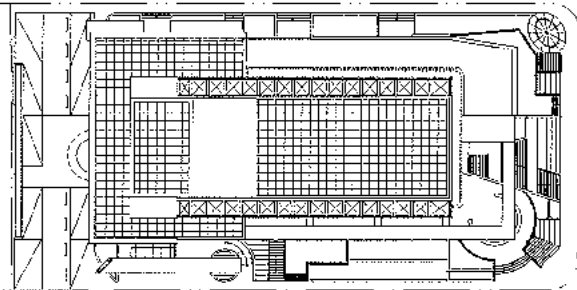
B동



유니베르시떼 Universit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중로구 동송동 1-67외 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판매, 업무시설
대지면적 2,243.00㎡
건축면적 1,258.45㎡
면적 9,068.06㎡
규모 지하 3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아연도 강판, 코르텐 강판, 인도시암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비닐/패턴타일, 우드후로잉
설계팀 김성훈, 김영택, 김원호, 김한규, 이상배
시공회사 E-TEC 이앤씨
건축주 (주)한토 하우징



배치도

대학로에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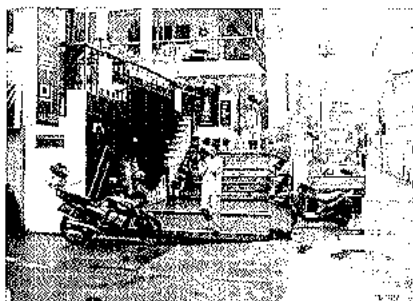
대학로는 크고 작은 규모의 화랑과 소극장이 위치한 축제의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자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만남의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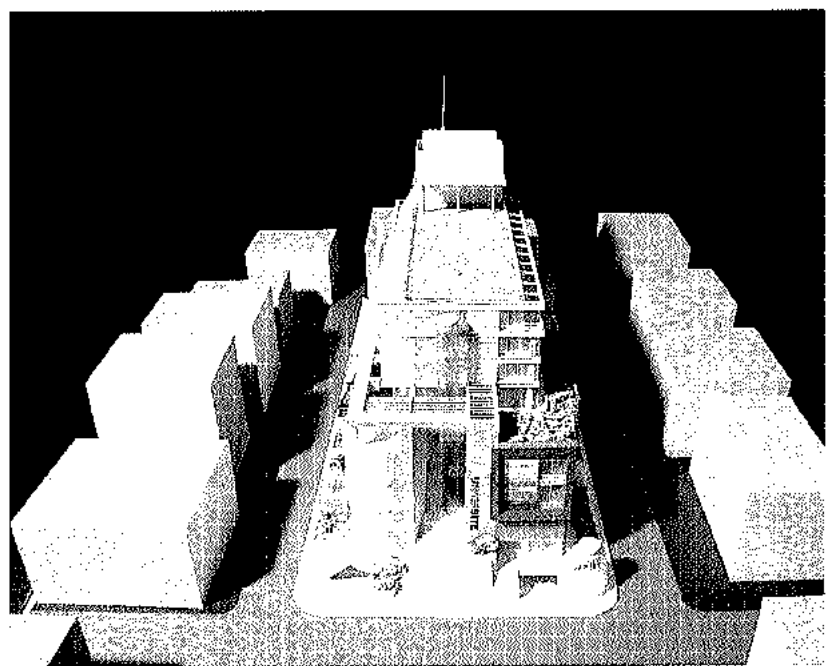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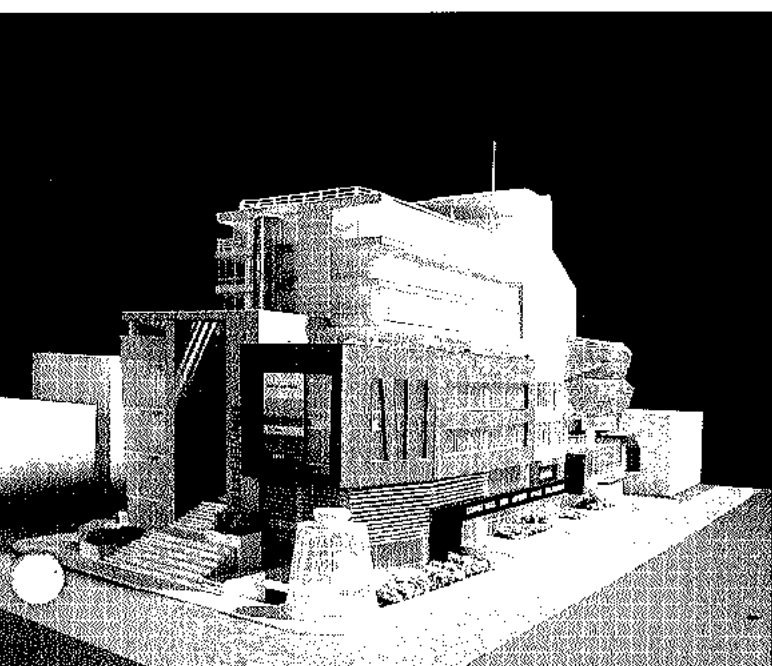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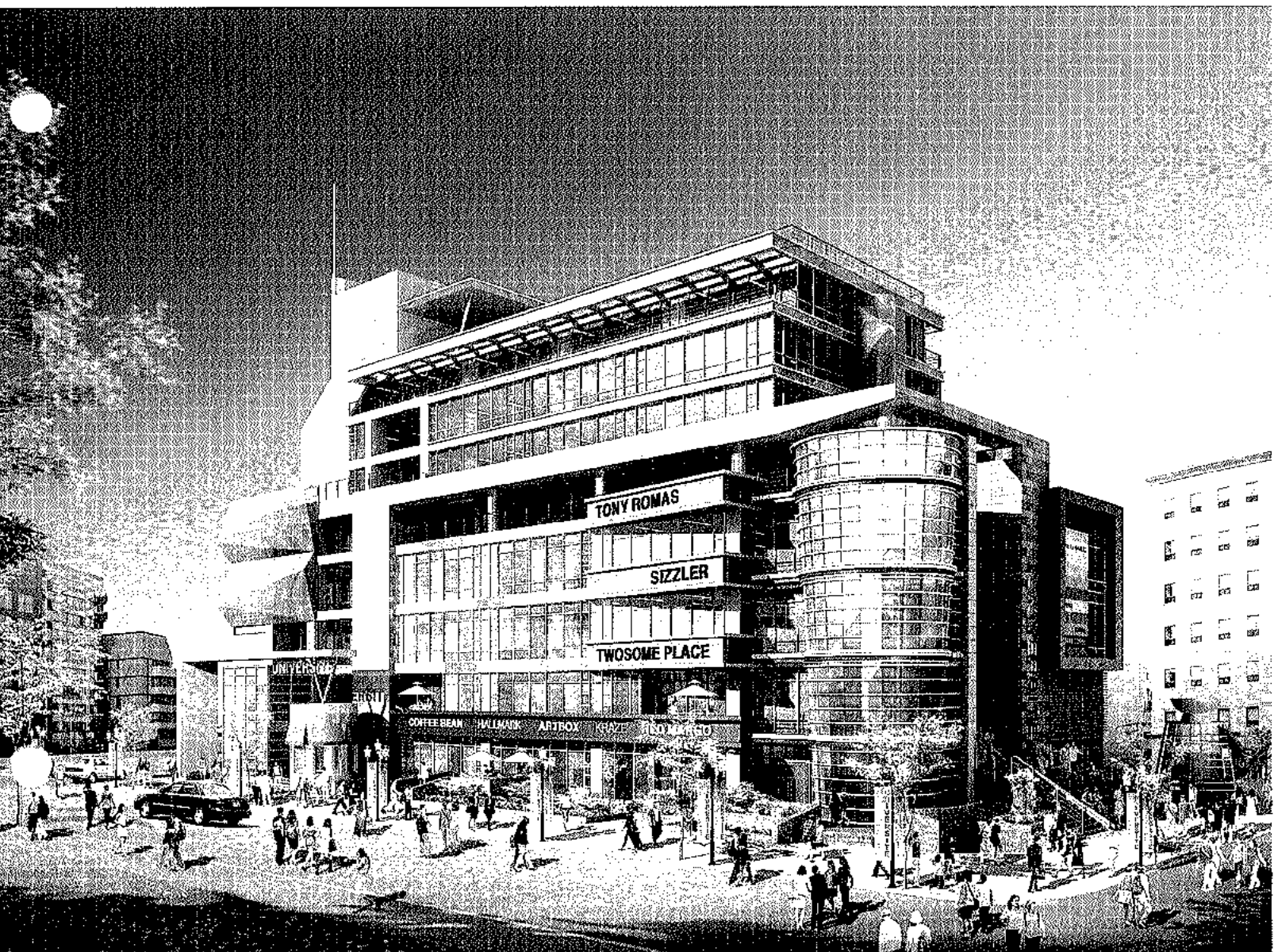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의 대상지는 바로 이 대학로에서 가장 큰 미개발 필지로 해학역 한 커 뒤의 주차장 부지이다. 인근 주차수요의 상당량을 담당하며 동시에 urban void로서 주변 가로의 풍경을 훨씬 건널 수 있게 해주는 도시의 여백과도 같은 이곳에도 드디어 개발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사이트는 2층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카페와 국적불명의 입면을 지닌 신축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비교적 작은 필지에 각기 다른 형태로 늘어서 있는 주변의 오픈카페들은 상업시설로 들어찬 삭막한 도시환경이면서도, 동시에 대학로만의 나름대로 특색있는 대중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주변 일반주거지에 비해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단일필지가 개발된다는 측면에서 비단 도입기능 뿐만 아니라 스케일상의 대응방안도 요구되어지는 프로젝트였다.





대학로에 적응하기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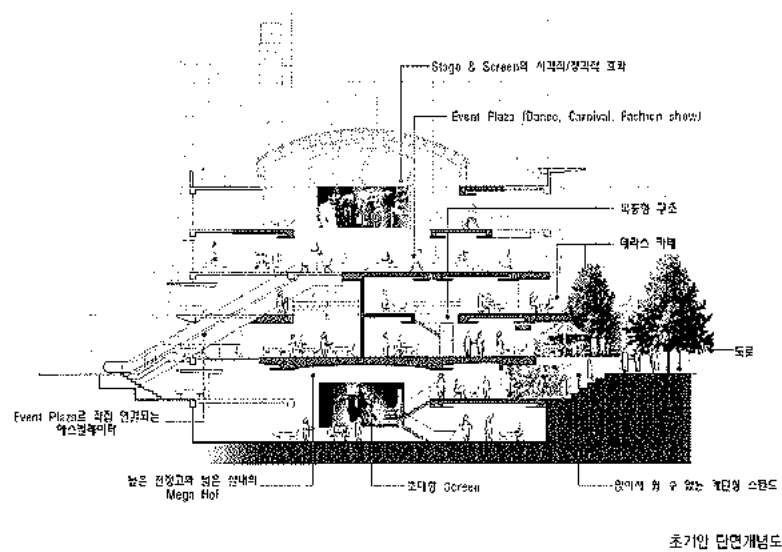
상업시설로서의 수익성과 대학로 최대규모시설로서의 공공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공연, 전시, 식음, 판매, 업무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IMAGE

비교적 큰 블록의 입면을 분절하고, 오픈 발코니를 저층부 가로변에 대응하게 하여 주변 테마카페와 동일한 맥락의 가로분위기를 최대한 유지해 주었다. 또한 비록 분양과정에서 사라졌지만 1, 2층을 단일 상가, 동일 이미지의 유닛으로 구성하는 전략들로서 주변의 스케일을 흡수하는 건물로 디자인하려 하였다. 부분부분 사용된 포인트 색상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상업시설의 활기찬 이미지를 제공한다.

EVENT

젊은이들의 역동적인 자기표현 공간을 오픈 스테이지 형식의 광장으로 지상 3층에 계획. 문화적 이벤트와 식음행위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동시에 이 보이드 공간은 복합적 프



초기안 단면개념도



그램을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용도의 공간들을 매개하여 전체 건물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핵심문화공간이다.

지상에서 곧바로 3층의 이벤트 광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대형계단은 입체적이고 활력있는 상업공간의 풍경을 만들어내며 외부 공간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확장시킨다. 또한 외부에서는 건물의 가장 인자성 높은 곳에 위치해 대학로의 상징적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게 하였다.

COMMUNICATION

초기 디자인에서는 반지하의 Sunken 가로를 제안하여 일사와 강우를 피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과 2층 높이의 Mega Hof를 제안하였고, 지난 1층 가로레벨에서는 동서축을 연결하는 골목길 같은 통행 Mall을 계획하여 대학로의 전형적인 소통방법을 차용하였다.

오픈테라스는 가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테마카페들과도 서로 보고 보여주면서 즐겁게 소통하게 될 것이며, 건물 전체는 하나의 작은 도시가 되어 이벤트와 더불어 끊임없는 활기를 띠게 된다.

거부와 순응

법정주차대수보다 많은 양의 주차계획으로 종전의 주차장 기능의 일부나마 담당하려 하였고, 지하 Mega Hof 대신 공연시설(451석)을 주가로 도입하여 주변 상인들의 반발 및 장소의 문화적 욕구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그로인한 지하 Sunken 가로의 소멸은 아쉬운 결과로 남는다. 계획상 가장 큰 초기 디자인의 변화는 상부 업무시설 도입에 관한 필연성이었다. 비록 오피스 타워의 거대한 매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쾌하고 가벼운 입면 재료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높아진 밀도로 인한 가로 환경의 부담은 상당부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워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던 땅에 인위적 장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곳이 공연, 전시기능을 기반으로한 젊은 문화의 발신기지가 되어 건축을 완성할 사람들, 즉 이 곳을 드나들고 생기를 불어넣을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활기찬 복합문화상업 공간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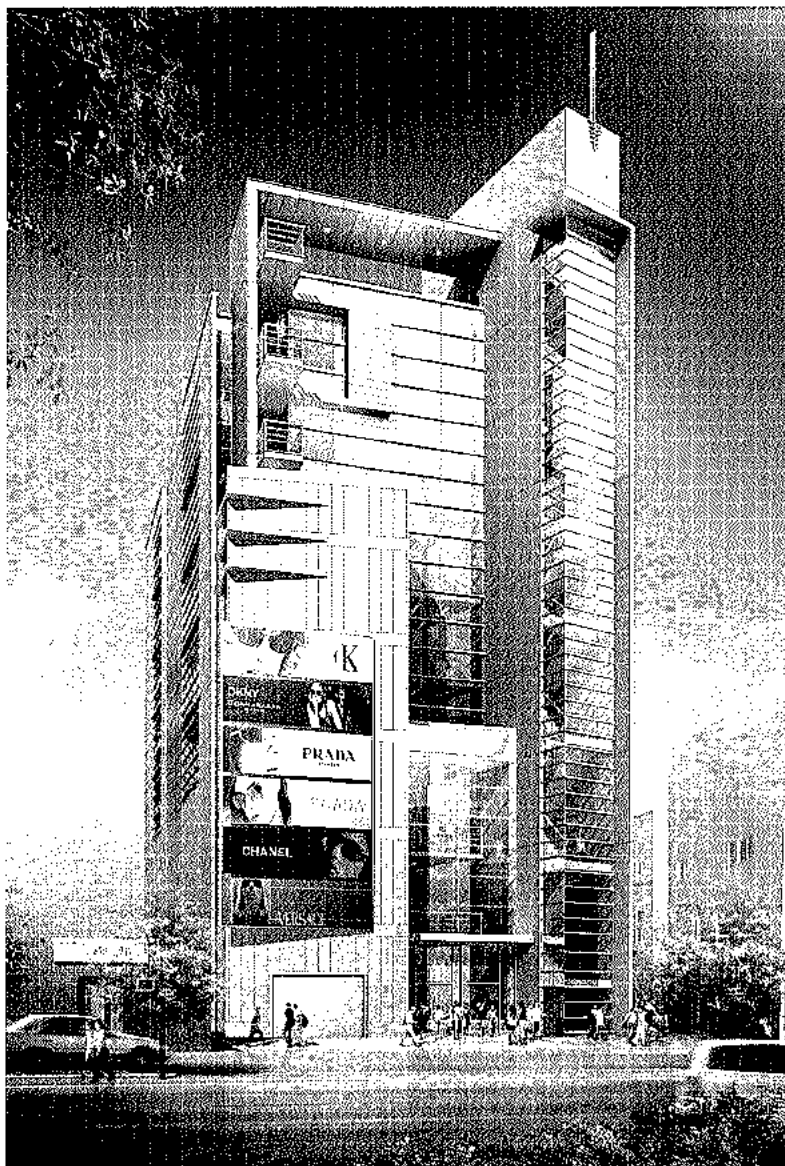
- 01_ 근원생철시설
02_ 판매시설
03_ 부대
04_ 공연장
05_ 화장실
06_ 업무시설
07_ 숲 / 목도
08_ PLANTER



한 건축주, 두 프로젝트

One Client, Two Architects

첫 번째, 남대문 삼호빌딩



건축주와의 만남

2003년 12월, 건축사협회 회관 현상설계 2차 작품제출을 하고 집에서 오전 늦게까지 쉬고 있는 어느 토요일, 친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비몽사몽간에 받은 전화기에서 후배가 하는 말 "형, 다른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주와 사이가 틀어져서 계약이 안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트라이 해 보지 않을래", "그런데 말야 설계비가 상당히 짜더라구, 계약이 안된 이유도 설계비 때문인 것 같아" 그래 대체 얼마인데... 필자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설계비를 수화기를 통해서 듣고 차라리 계속 잠이나 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나 지금 현상설계 제출하느라 밤새고 좀 자고 있으니까 긴 말할 기운도 없거든 얼마 이하론 불가할 것 같다 아무튼 고맙다" 이렇게 잠시 비몽사몽간의 통화가 있을 후 다시 잠에 빠졌다. 얼마쯤 자고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형, 건축주에게 형이 제시한 설계비를 말했더니 그 사람 성질 있다며 얼굴이나 보자고 하는데 만날 수 있겠어" "그래 그럼 만나 보지뭐" 프로젝트 계약 여부를 떠나서 건축주 한명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후배의 배려도 고맙고 해서 건축주와의 미팅약속을 정했다.

건축주는 몇 개의 건물을 지어본 경험이 있으며 50대초반의 빌딩 임대업을 하고 계

시는 분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건축주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무실을 구경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게 되었다.

건축주는 우리 사무실 작품 중에서 논현동의 옐로우사옥을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후배의 소개로 직접 봤다고 했다. 건축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에 감명 깊게 본 건물을 설계한 사무실을 우연히 만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까지 건축주는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건축주에게는 평생을 건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으리라.

건축주는 우리 사무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소에게도 아이디어 설계를 받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소위 지명경쟁으로 건축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시한은 약 일주일... 어떻게 하면 안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대지읽기

대지는 남대문 로타리에서 남산으로 올라

가는 소월길 초입에 있다.

건널목만 건너면 남대문 시장이고 안경도 매점이 뿔뿔하게 붙어 있는 거리에 고려안경 도매상가라고 1층 규모의 허름한 건물이 서있는 대지가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사이트이다.

대지내 안경상가는 일제시대의 적산가옥(건축주가 어렸을 때 살던)을 일부 개조하여 상가로 사용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자주 문제가 발생하여 버리고 별려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되었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주변대지와는 상당한 고저차를 갖는 땅으로 인접대지와는 일제시대에 축조된 석축으로 경계지어 있다. 대지의 2면에 형성된 석축 높이는 약 5미터이고 주변의 무허가 부속건물들이 이 석축에 붙어 있다. 또한 나머지 2면에는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이 위치한다.

대지를 조사하면서 필자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훌륭한 개념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공사가 되도록 하는 설계,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설계가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변의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대지경계에 석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석축에 붙어서 주변건물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반의 상태는 암석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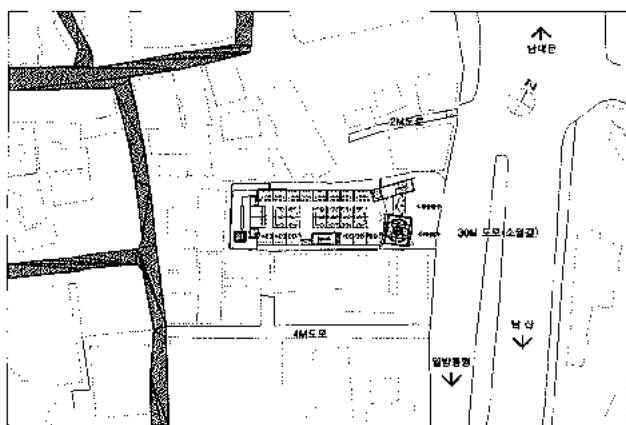
지금까지 설계하면서 좋은 공사조건의 땅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이번은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조건이 좋은 설계를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안해본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것인가. 건축주는 1층부터 3층까지는 기존처럼 안경도매상가를 만들고 그다음 8층까지는 업무시설을 설계해달라고 하면서 공사비는 평당 280만원선이 되며 주변을 압도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세워 달라고 했다.

아이디어 만들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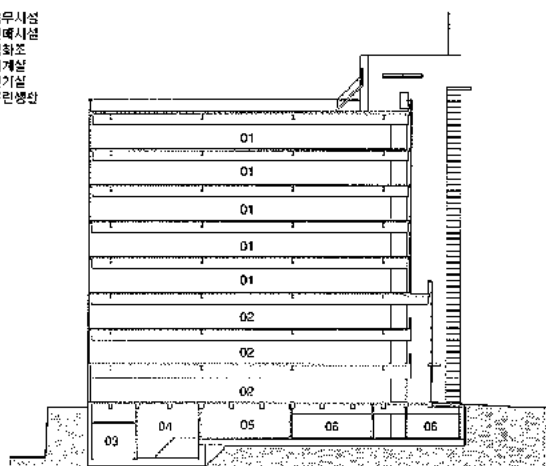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홍역을 앓듯이 시름시름 앓는 필자는 건축주에게 안을 제출하기로 한 이틀전에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다른 경쟁 회사를 이겨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축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평소에도 많이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일



대지주변현황

- 01. 업무시설
- 02. 판매시설
- 03. 주차장
- 04. 기계실
- 05. 전기실
- 06. 근린생활



종단면도

을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지가 요구하는 것을 읽고 어려운 공사여건을 잘 해결해서 건축주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자는 생각으로 새벽까지 잠을 못이루고 있던 중 설계의 단서를 잡게 되었다.

그 단서는 단순했다. 기존의 석축을 걷어 내면서는 공사를 할 수 없고(주변 건물에 석축에 붙어 있으므로) 지반이 지하 5미터 이하로는 암반이어서 지하 2층으로 만들기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공사시 주변의 노후화된 건물들에게 많은 위해가 되므로 석축을 살려두고 지하2층으로만 설계를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는 지하2층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상주차타워를 설치한다면 지하층으로 가능하며, 지하층의 폭을 줄여 석축으로부터 약 3미터 이상의 여유를 갖고 공사를 함으로 석축을 존치시키며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층에는 기계실과 전기실 일부 근생을 계획했다.

지상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 보통은 건물의 후면에 배치하고 건물의 전면에는 주차타워로 가는 주차로를 형성하게 되는데 대지의 폭이 상당히 좁고 차로 때문에 임대료가 비싼 1층 매장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생각을 바꿔 건물의 전면

에 주차타워를 두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뜩이나 좁은 전면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는 필자의 생각에 반감을 가졌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달랐다. 대지가 4대문 안 주차 상한지역인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법정주차 대수를 약 50% 줄일 수 있었고 따라서 주차타워를 설치하더라도 건물보다 높지 않게 본 건물에 관입된 형상으로 일체화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경도매상가는 창이 필요없는 백화점과 같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경하기 위한 쇼윈도우도 다른 소규모의 안경점처럼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백화점처럼 큰 광고판을 설치하여 유명제품을 광고하고 안경도매상가로서의 인지성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전면에 주차타워를 배치하면 이 주차타워를 안경도매상가에 필요한 광고판(외국의 유명상품 광고에 임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발전되었다.

또한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대지 경계선에서 6미터 정도 후퇴해야 하지만 주변건물들이 높이가 낮아 건물의 인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며 주차타워 앞의 전면공지를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한다면 보행자들을 적극

적으로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필자는 판매시설에서의 광고판은 초기 디자인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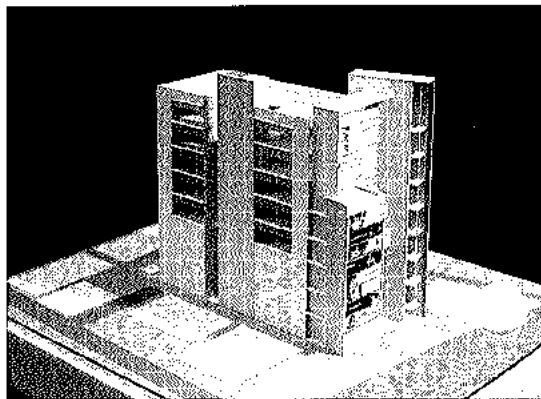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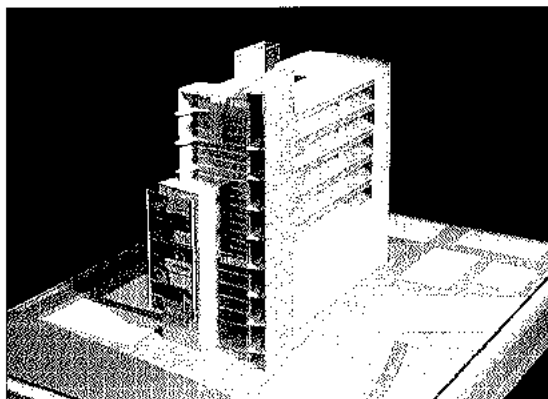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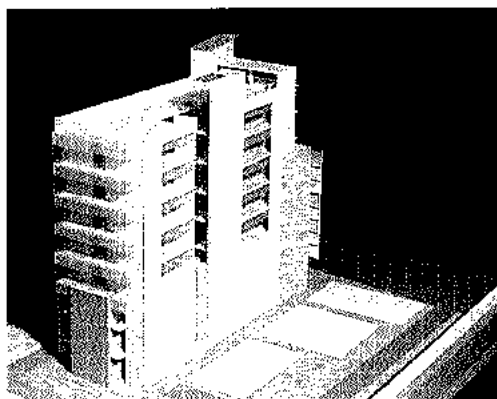
누구나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설계시는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다.

본 계획에서는 주차타워를 적극적으로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건물의 나머지부분은 유리커튼월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이드와 솔리드의 대비가 강한 파사드를 형성했다. 또한 계단을 전면에 배치하여 건물의 수직상승감을 높이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모여줌으로써 활력넘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주출입구 부근에 배치하여 4층이상의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동선을 판매시설 동선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했다.

물론 주차타워와 계단이 전면에 배치되다 보니 주출입구가 협소해지는 단점이 발생되나 주차타워와 계단을 약간씩 틀면서 배치시켜 입구폭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출입구 상부의 2층과 3층 슬라브를 잘라내어 보이드 시킴으로 입구로서의 개방감을 최대한 시키려고 노력했다.

건축주의 결단

건축주는 우리 안을 받아보고 상당히 당



혹스러워 했다.

가뜩이나 좁은 대지에 주차타워를 전면 배치한 것이나 건물을 도로경계선에서 후퇴한 것이나 주변의 건물들과는 다른 모험적인 시도 때문이었다. 사업을 시행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모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설계였다. 설계를 쉽게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해도 받았다. 그렇지만 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해답은 이것밖에는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자신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공사비절감, 민원최소화, 공기절감, 공사시 안전성, 주차타워의 광고판 활용, 조소적인 매스구성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업무시설에서의 작은 광정(LIGHT WELL)은 업무시설의 건조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1층 후면의 정원은 아늑한 휴게공간이 되어 공간연출의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여 건물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점을 건축주에게 설명하면서 건축주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건축주는 주변의 평범한 건물을 싫어하는 분이다. 미국에서의 오랜 생활 속에서 건축을 바라보는 눈도 높았으며, 건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분이어서 우리의 시도를 높이 사며 다른 사무소의 평범한 해법과 비교했다.

결국 건축주는 우리 안을 택하게 되고 모험을 걸게 되었다. 보통 결단이 아니었다.

이제는 좋은 건물을 드리는 것으로 건축주의 후원에 보답할 차례이다.

첫 삽을 뜨고 잘 지어지길 기원하며

지난 4월20일 착공식이 현장에서 있었다. 시공사가 착공식 준비를 성대하게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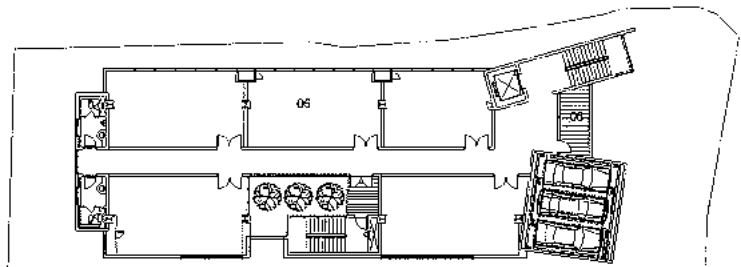
기존 건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건축주 주위의 친지들을 모시고 마을 축제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사물놀이패도 불러서 연주도 하고 살풀이도 하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도 지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아무 사고 없이 잘 공사가 되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건물,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졌으면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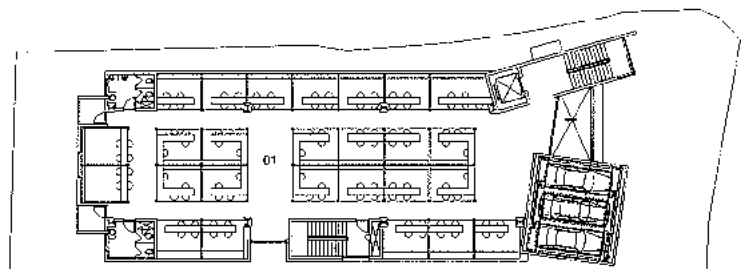
내년 1월말에는 건물이 완공된다. 약 10개월 동안 공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건

축주에게 만족스런 건물,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물,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한 우리 사무실의 스태프들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건물이 지어지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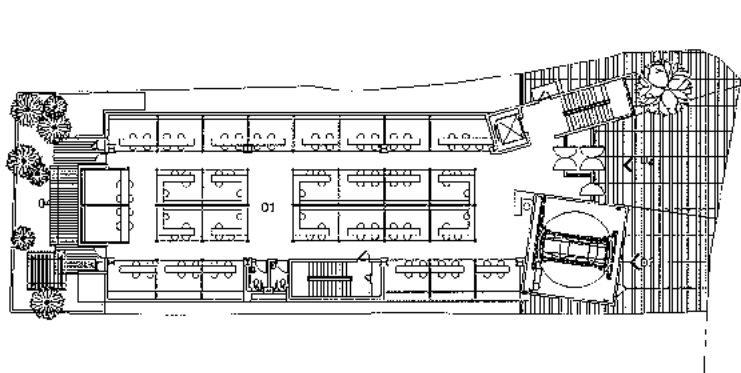
- 01. 판매사실
- 02. 주차입구
- 03. 주차출입
- 04. 휴게
- 05. 업무시설
- 06. 타워스



4층 평면도



2,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두 번째, 도곡동 삼호빌딩

건축주의 두 번째 사업

건축주는 남대문 삼호빌딩을 착공하며 우리에게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도곡동의 매봉산 자락에 기존의 3층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부수고 새 건물을 짓기로 결심하여 작년 중세분화전에 다른 건축사사무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기다리고 있던 프로젝트였다. 남대문 삼호빌딩을 잘 설계해 주면 도곡동 삼호빌딩설계도 의뢰하

고 싶었던 건축주의 평소의 말이 현실화 되었다. 건축주는 이미 기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비를 지불하였으나 우리가 설계를 잘해준다면 이미 지불한 설계비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약 1개월간의 설계를 하면서 느낀 점은 건축설계의 아이디어는 대지로부터 나오며, 그 아이디어를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이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든다는 점이다.

대지위기와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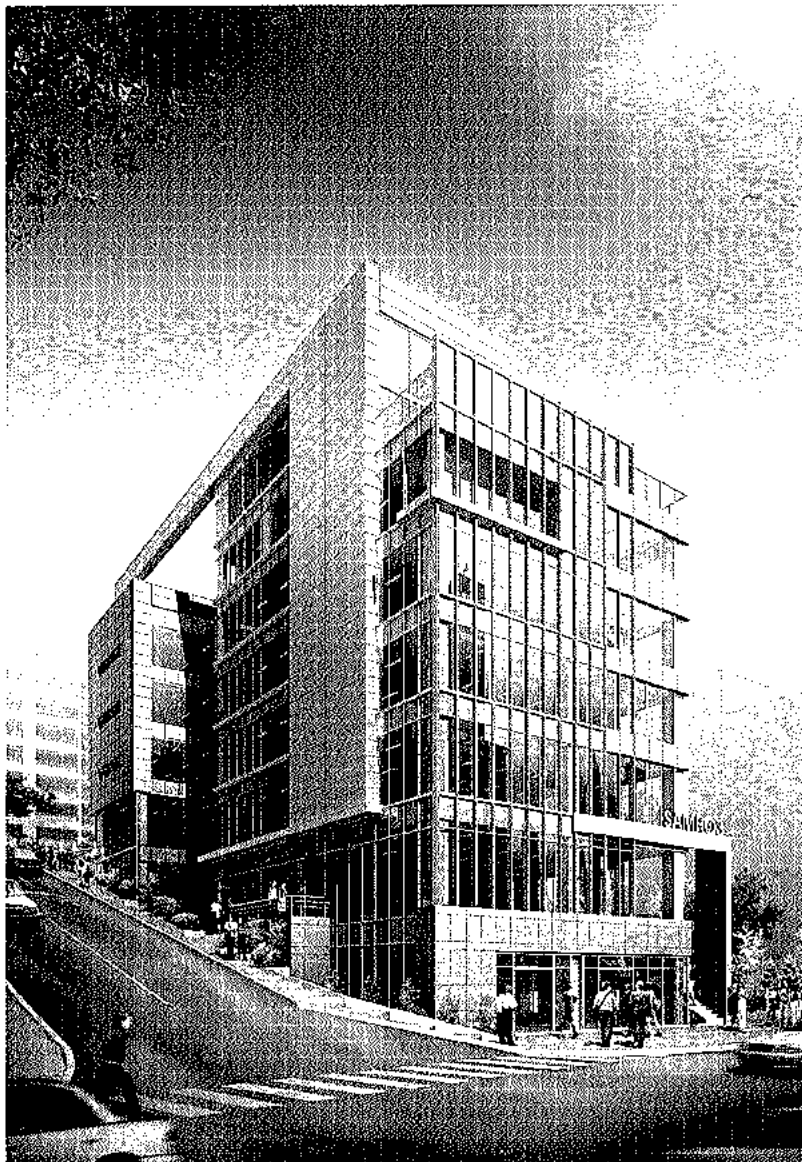
대지의 위치는 뽕뽕거리에서 영동세브

란스 병원을 연결하는 25미터 폭의 도곡동 길이 북쪽으로 면하고 대지 후면의 서린아파트로 진입하는 10미터 도로와 남쪽에 막다른 골목길(폭 4미터)을 이면도로 접하는 약 250평 규모의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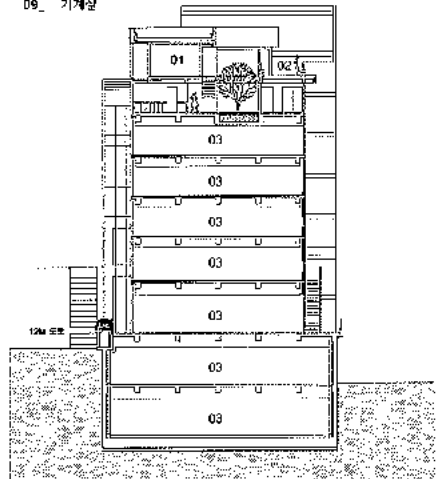
남쪽으로 현재 재건축으로 한창 철거중인 매봉산 자락에 위치한 서린아파트가 있다. 대지는 전면도로와 후면 이면도로간의 약 10미터 정도의 고저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서린 아파트로 진입하는 길인 대지의 동측은 상당히 가파른 경사도를 갖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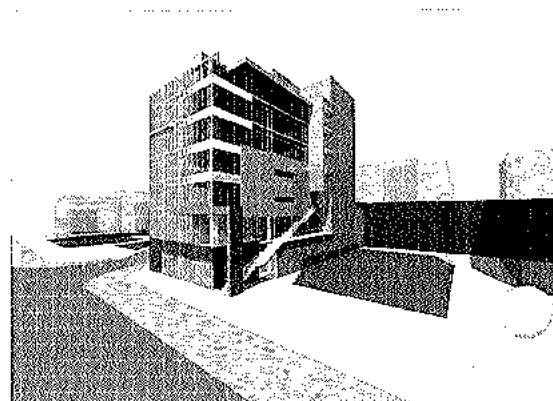
기존의 건물은 3층 규모인데 서린아파트



- 01_방
- 02_거실
- 03_근린생활
- 04_화장실
- 05_계단실
- 06_전기실
- 07_정화조관리층
- 08_정화조
- 09_기계실



창단면도



의 초입에 위치한 관계로 뽕집, 세탁소, 부동산개업소 등 근린생활시설이다. 규모가 작아서 수익이 별로 좋지 않았고 도곡동길이 예전에는 법적규제(고도제한)로 강남의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어 신축을 보류해 왔다.

이제 건축주는 신축의 필요성을 서린아파트 재건축과 주변여건의 변화를 통해 감지하고 신축을 결심하게 된다. 지상 7층 규모로 건물 최상부는 건축주가 살 집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층은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여 임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의 길을 내부로 연장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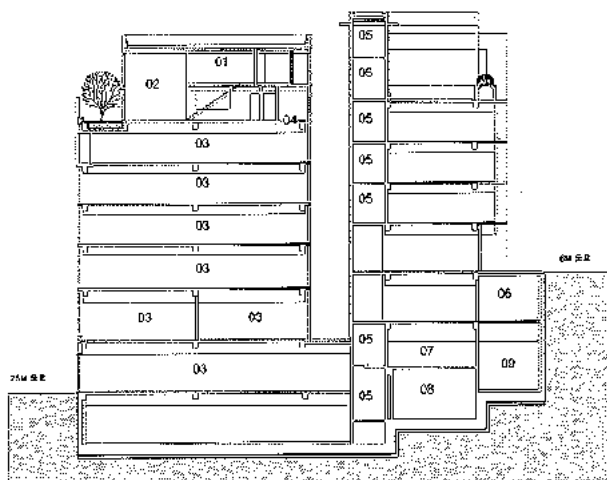
대지의 삼면에 접하는 도로는 성격이 확연하게 달랐다.

전면의 25미터 도로는 차량이 급하게 질주하는 대로였고, 대지의 동측에 면한 10미터 도로는 경사도가 아주 급한 서린아파트의 진입로였으며, 후면의 4미터의 막다른 도로는 다른 주변의 대지로 진입하는 막혀있는 골목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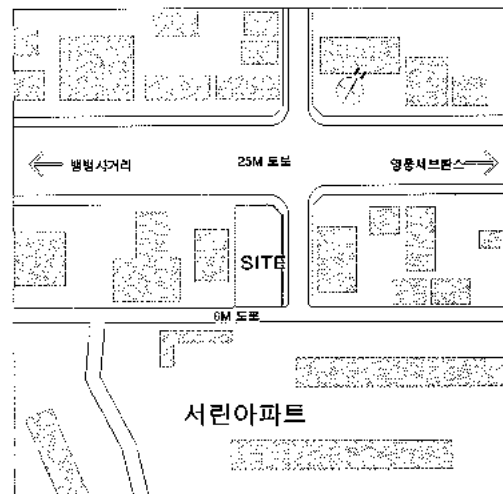
이렇게 성격이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건물의 공간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

에 따라 얼굴을 바꿔가며 대응하는 인간의 모습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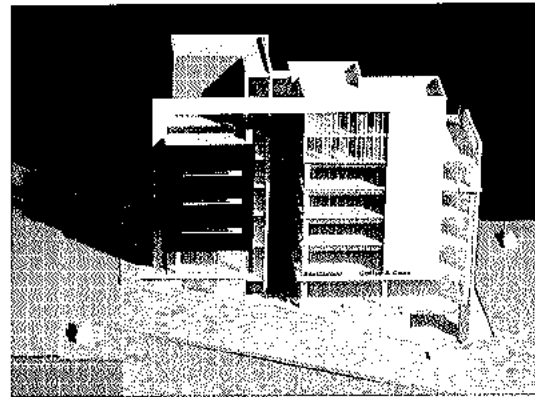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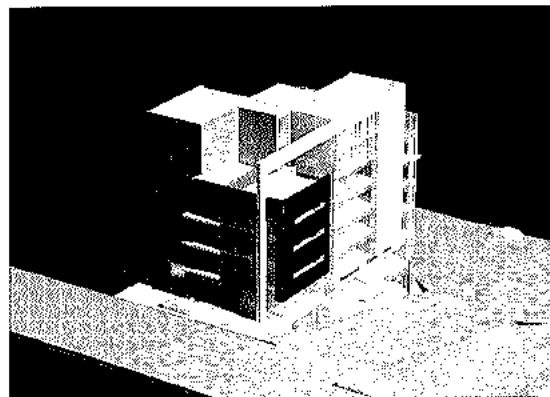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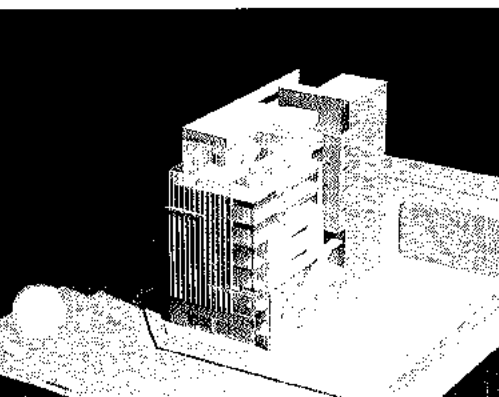
25미터 도로변에는 공공성이 강한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10미터 도로는 아파트 진입 도로이므로 세탁소, 뽕집 등 아파트 주민들을 겨냥한 근린생활시설을, 후면의 4미터 도로는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이므로 주차타워를 계획하였고, 이러한 각각의 시설들은 각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즉 외부의 길을 적극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이므로 자연스러운 진입, 모든 방향에서 쉬운 진입이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종단면도



대지주변현황



고저차를 이용한 3개층에 걸친 진입으로 상가는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출입구가 많아 관리가 다소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호기심 가득한 공간, 재미있는 건축적 산책을 만들고자하는 의지를 꺾지 못한다.

한 층에서 25미터 도로에 면한 판매시설과 10미터 도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은 스킵플로어식으로 구성되며, 계단이 이러한 단차를 흡수하며 각 시설을 분리시킨다. 또한 연결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하 1층 레벨인 25미터 도로변에서 지하 2층까지 깊숙이 연결하는 직선형 계단, 중정마당, 중정마당과 연결된 테라스 공간은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이며, 건물에서의 즐거운 산책을 가능케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도시주택의 제안

건물 꼭대기의 주택은 2개층으로 구성되며 90평 규모의 건축주가 평생을 살 집이다.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ㄷ자 모양의 평면으로 아래층은 두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한 쪽은 자녀들의 방과 거실, 주방이며 다른 한 쪽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분가한 자녀 내외가 잠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위층은 건축주 내외의 공간으로 프

라이빗한 정원인 옥상 테라스를 갖는다. 이 주택에서도 건축 산책의 개념은 적용된다. 중정 주위로 유리 복도를 만들어 현관에서 거실로 이동시 자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중정에 면하여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중정과 2개층이 오픈된 거실공간을 동시에 만끽하도록 배려했다.

또한 좁고 깊숙한 중정에는 계류를 만들어서 발을 담그고 조그마한 정원을 보며 명상에 잠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깊은 중정은 도시와는 격리된 나만의 자연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며, 내부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건축주의 두 프로젝트

도곡동 삼호빌딩은 남대문 삼호빌딩이 완공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이다. 아마도 내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 사무실에서 작업할 때 모형을 만들고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디자인도 하지만 하루속히 지어진 건물을 바라보며 내부공간을 거닐고 싶다. 아마 건축주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두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믿고 맡겨준 건축주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어느때보다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 잘 해야 한다는.. (글 / 조민석) 圖

설계협력

건축설계 : 조민석, 조중현, 한대희, 서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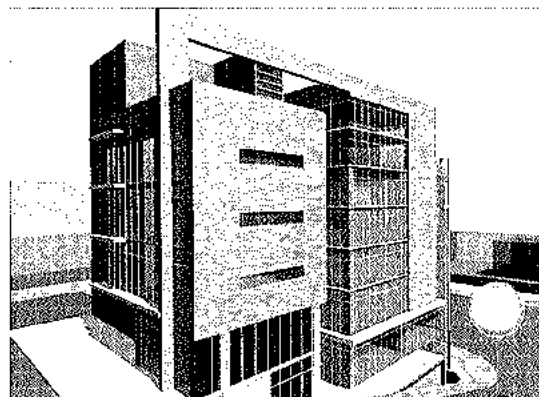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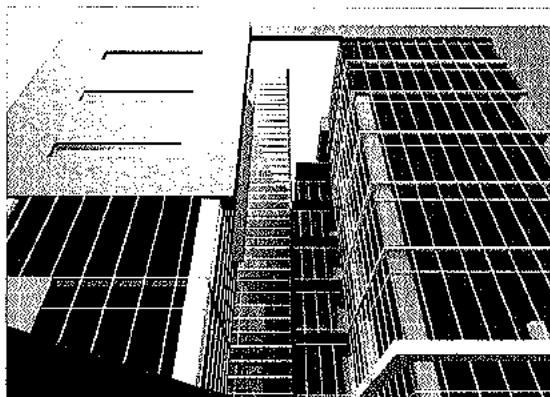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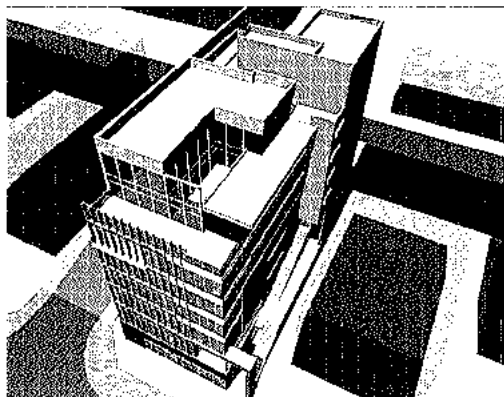
기계설비 : 서울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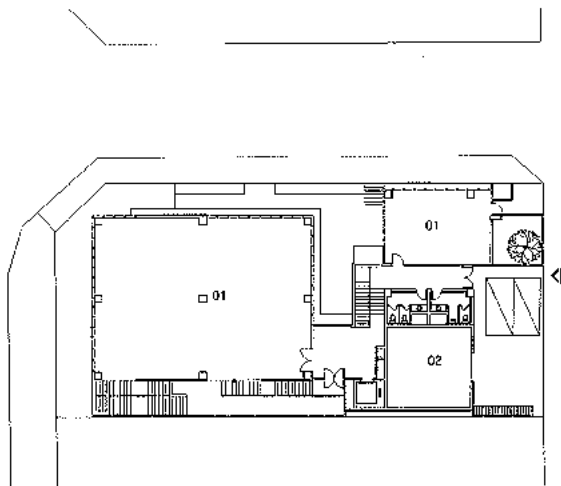
전기설비 : 창조

구조설계 : 산아구조

모형 : 서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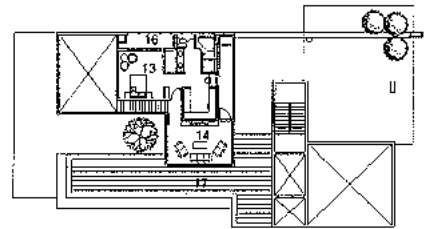
CG : 서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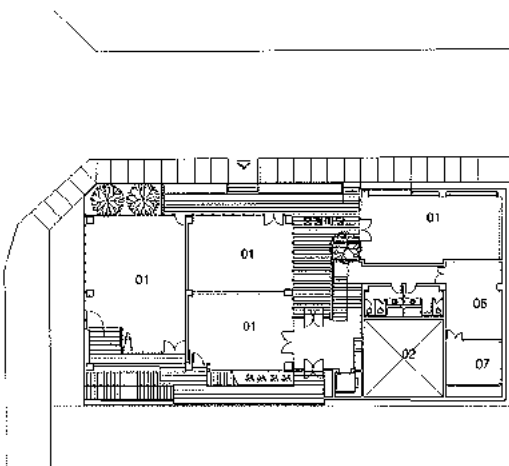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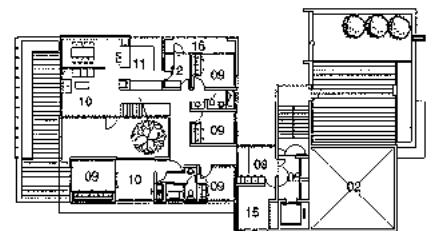
- 01_ 근린생활시설
- 02_ Tower Parking
- 03_ 기계실
- 04_ 선로
- 05_ 엘리베이터
- 06_ 전차실
- 07_ 관리기실
- 08_ 화물
- 09_ 창
- 10_ 거실
- 11_ 부엌
- 12_ 다용도실
- 13_ 주민방식
- 14_ 가족실
- 15_ 창고
- 16_ 발코니
- 17_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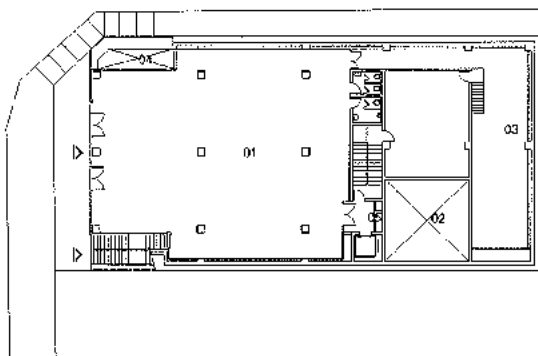
7층 평면도(주거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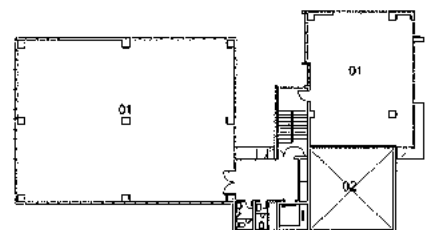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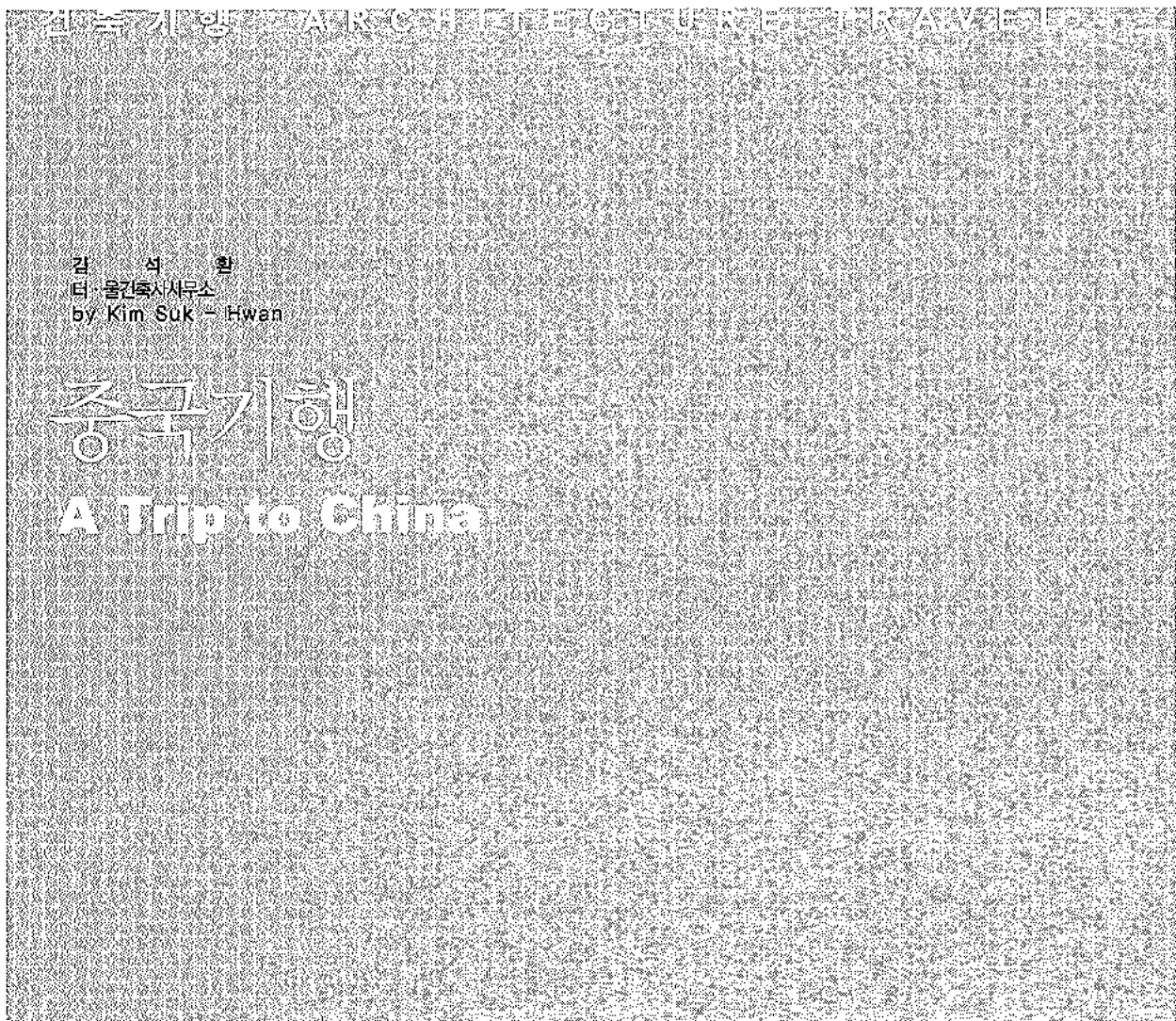
6층 평면도(주거1층)



지하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가깝고도 멀었던 곳

꽃기듯 분주한 도회인의 생활은 흐르는 세월을 덧없이 빠르게 느껴지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 속에 맞았던 새해의 선명한 기억이 채 회미해지기도 전에 저물어 가는 연말이면 망년회나 송년회나 하는 모임이 분주해지고, 실업지만 더러는 그런 모임에 스스로 나가서 한해를 보내는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갖는다. 작년말 그런 모임에 나갔을 때 옆에 앉은 분이 중국엘 간다고 했다. 관심이 있어 들어보니 기간도 길지 않고 비용도 예상보다 적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꽤 돌아보았었다. 그런데 연재를 하면서, 혹 나도 모르게 국수적인 정서가 내 안에 작용하여 우리 것을 더 높이 평가하고픈 감정이 반영되지 않았나 혼자 생각해보기도 했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는 주변 나라들도 돌아보려고 생각했었다. 우리 전통 문화유산 가운데는 우리 자체에서 생성된 것보다도 이웃나라들과 교류를 통해 형성돼온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래 생성된 모습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른 문화를 아는데는 직접 찾아가 땅을 직접 밟아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로부터 내적 필연성이 저절로 느껴질 수 있다. 또 문화현상은 현장체험과 함께 그에 작용한 사상을 알고 볼 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유익할 줄 알면서도 그동안 다녀온 이웃나라는 오래 전 일본을 한번 다녀온 것이 고작이었다.

필자가 이 여행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침 내가 속한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우리와 연관된 문화현상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생

각을 갖고 있던 차였다.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녀본 유럽 등에 비할 바 없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평소 정서적으로는 더 멀리 느껴져 왔다. 우리가 냉전시대를 살아오는 동안 의식 안에서는 옛날 사람들보다 더 멀어지고 말았다. 우리와 체제가 다른 나라로서 전에는 그런 국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가 이념을 초월하는 오늘날에도 그 곳을 밟는 첫 걸음은 어딘지 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중국이 개방화되고 경제에 전격하면서 그 냉전 이데올로기의 인식적 장벽이 많이 제거되어 왔다.

뱃길

내가 이 여행에 불현듯 참가한 것은 특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간다는 것에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뱃길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영토인 제주도보다도 가깝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에는 그 경계를 넘는 특별한 느낌이 생긴다. 그런데 중국은 항해술이 덜 발달했던 천 여 년 전 선조들도 바다를 건너 왕래했었다.

이웃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는 지정학적 특성에 의한 상대적 감각이 유발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바다로 갈

라 붙어 있음으로서 지리적 독립성이 확보되고,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는 한 요인이 되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 만 년 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시기의 일은 상상할 수 있을 뿐 오늘 우리의 인식은 현재의 지리적 조건에서 형성된다. 바다로 가로놓인 지정학적 특성이 딴 나라의 호기심을 더 크게 갖게 한다. 필자는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그 모든 느낌을 체험할 마음으로 갑판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갔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망망대해에서의 외로움과 육지의 소중함, 이국 땅으로 향해 가는 낯섦과 호기심의 복합한 감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밤에도 갑판에 서서 째깍한 밤바다 항해의 느낌을 느꼈었다. 밤에는 낮에 기록으로 찍던 사진도 찍을 수 없었다. 대신 더욱 더 무거워진 침묵 속에 일렁이는 바다 물살의 느낌에 귀 기울이고, 문명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더욱 뚜렷이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새롭게 느끼며 갔다. 하지만 저녁 무렵부터 풍량이 크게 일어 멀미를 한 탓에 항해는 더 길게만 느껴졌다.

한밤이 지나 8인용 선실 작은 이중침대에 누워 잠을 설치다 새벽녘에 일어나 다시 갑판에 나가 둘러보았을 때, 진행방향으로 멀리 띠 모양의 불빛이 보였다. 그러나 한동안 다가가도 그 불빛은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았다. 잠시 배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나오니 희미하게 새벽이 밝아 오고 있었다. 우측 뱃전에서 전에 이 뱃길을 다녀본 사람인 듯 사람들에게 손으로 저쪽을 가리키며 산동반도라고 했다. 나도 그 쪽을 바라보며 우리나라 쪽으로 뽕뽕이 튀어나온 지도 모습을 떠올렸다. 그 때 저 안쪽으로부터 중국의 해양 경찰이 작은 배로 다가와 도선을 했다. 배는 희뿌옇게 보이는 산동반도 옆을 미끄러지듯 지나가 청도항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막상 배가 도착하고 보니, 바다건너 다가갈 때의 호기심은 깨지고 눈앞의 콘테이너를 하역하는 광장 같은 부두가 회색 도시공간을 느끼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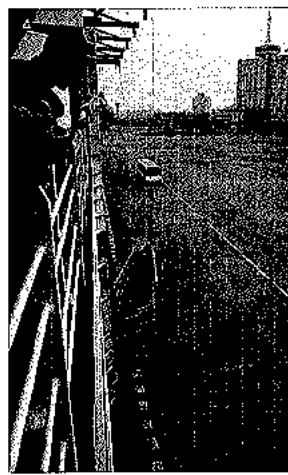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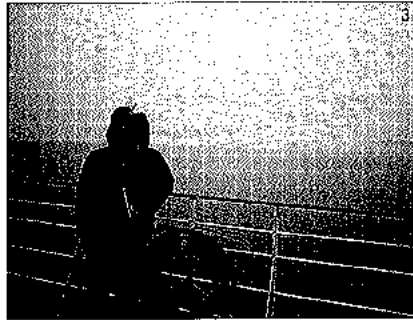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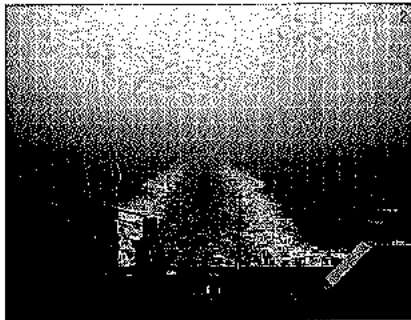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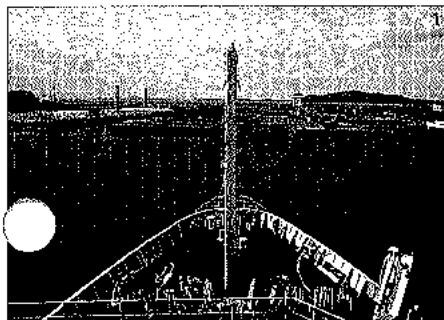
밤바다 항해

깊은 어둠에 잠긴
푸른 바다 위
침묵의 심연으로 빠져든 배

그 시각
느낌만으로
내 안에 열려드는 세계

홍홍한 잔별과
먼바다 먼저리
고깃배에 매달린

1. 배가 통과해야 할 인천항 DOCK 2. 새벽 바다를 지나온 항해의 흔적취 3. 희뿌옇게 보이는 산동반도 옆을 지나가는 배 4. 청도항 부두에 닿음



희미한 등불이
함께 밤하늘이 된

천지분간 할 수 없는
광활한 물살의 평원 위를 흘러
바다 건너 딴 나라로
항해하는 배

중국 근대화의 교두보 청도

청도항에서 입국 수속을 거쳐 나오니 현지 여행사의 소형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일행이 다 타자 현지 안내를 담당할 왕씨가 차 안에서 인사를 했다. 앞좌석 오른편에는 그의 부인이 함께 타고 같이 여행하며 남편의 일을 도우려는 듯 보였다. 운전기사를 포함해 그렇게 모두 16명의 인원이 여행을 마칠 때까지 이 차 안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점심 식사를 1시간 남짓 남겨 둔 시각에 광장을 출발하여 청도시에 있는 잔도로 행했다. 잔도는 독일인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처음으로 건설해 놓은 부두 시설이다. 청도는 그렇게 중국 근대화의 도화선에 불이 당겨진 곳이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금은 타의에 의한 근대화 과정의 징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청도는 서양에서 보면

개항의 장소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의 단면을 고스란히 들춰내고 있는 곳이다. 스스로 세계의 중심에서 천하를 다스린다고 자부해 왔던 중국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구한말 우리가 겪었던 동병상련의 아픔이기도 하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근래 중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할 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대국으로서의 자부심도 되찾아가고 아픔도 삭여진 마당인지 청도에 남은 외세의 유적들을 부끄러워하는 눈치는 없다. 오히려 외국 관광객을 더 많이 불러들여 수입을 올리려는 요새의 중국 분위기로는 더 말 할 나위 없이 좋은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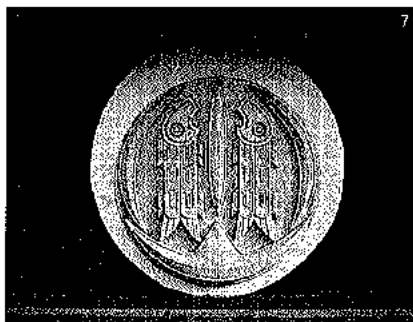
잔도 끝에는 원형으로 섬처럼 돌을 쌓고 전통양식의 건물을 한 채 지어 놓았다. 그 건물은 육각형 평면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긴 부두의 쪽은 단지 그 곳까지 이르는 길이 될 뿐인 반면 배경 건물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한 그 건물은 바다를 배경으로 거대한 스케일로 형성되는 경관의 초점 역할을 하며, 시각적으로 두드러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개항의 역사성과 전통 양식으로 된 그 건물은 관광효과를 톡톡히 유발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해에 면한 해안인데, 바닷물은 펍 맑아 보였다. 거기서 병을 띄우면 저절로 인천 앞 바다로 흘러간다고 한다. 이 도시 사람들이 바닷물로 가까이 다가갈 즐기는 평화로운 풍경과

해안을 따라서 늘어선 고층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근래 변화하는 중국의 단면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일행은 그 곳 관광을 마치고 소어산(小漁山) 공원으로 향했다. 그 공원에 오르면 바다와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공원을 오르는 길 주변에는 청도를 통해 중국에 교두보를 확보한 독일사람들이 거주를 위해 지은 서양풍 전원형 고급 주택들이 즐비하게 세워진 동네가 있다.

소어산 공원은 그 주변 지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그 자연환경을 살려 섬세한 손길로 가꾸어 놓았다. 한국, 중국, 일본 건축은 구조수법이 모두 비슷하다. 그런데 건물 모양이나, 세부적인 꾸밈새에서는 성격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소어산 공원은 그 곳을 상징하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또 한쪽에는 검은 돌에 상형문자를 조각해 놓았다. 그리고 바람결 쪽에는 자연석 사이에 돌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머물 수 있게 해 놓았는데, 그곳에서는 바다를 시원스레 조망할 수 있었다. 일행은 그 곳에서 풍광을 감상하고 시내로 내려가 중국에서 첫 식사를 했다. 식당 앞에 도착하여 차를 내려 들어서니 남녀 종업원이 출입문 좌우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김이 허리 솟아 정중하게 맞이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 요리로 사천, 광둥, 산둥 요리를 꼽는데, 그 지역은 당연히 산둥요리였다. 메뉴에

5. 청도항 여객터미널 입국수속 6. 잔도 7. 소어산 공원 돌고기 조각 8. 소어산 공원 주변의 도시풍경



따라 정해진 음식을 정성스럽게 내 놓았는데, 특히 마사자마자 따라 주는 엽차 인심은 그만이었다.

평소 머릿속에 그려진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만 나라를 가보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화권이라 개념이 반영된다. 그 구분은 크게 동서양으로 나뉘며 작게는 동남아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어느 지역 인근 나라들을 한데 묶어 특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세계 각지에는 인간적 개성과 지리적 특성이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그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 사람들의 성격과 나라 이미지를 대략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 권력을 의식함이 없이 태어나고 자라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카테고리 안에서 인간의 삶의 반경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수감하면서 어떤 문화권의 인간형이 되어간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동북아시아 문화권으로 불리며, 역사적으로 중건 싫건 그 이웃 나라들과 많은 관계를 맺었다. 특히 일본보다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루어지기보다 그 쪽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훨씬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부터는 주

로 받는 입장이었다. 동북아시아 삼국은 인증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한문이라는 문자를 공유해 왔고 유교, 불교, 도교 등 같은 사상을 공유하였다.

그 공유한 사상에 힘입어 문화적 유사성이 형성돼 왔다. 지금까지 힘을 떨치는 동양의 핵심 사상들은 중국에서 형성되었거나 그 곳을 경유해 흘러 들어왔다. 하지만 그렇게 문명적 공통성을 가져 왔으면서도 근본적인 차이도 차지고 있다. 중국은 한족이고 우리는 몽골계 우랄알타이어족으로서 그 계통이 다르다. 현재 중국에서 변방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조선족이 우리와 같은 혈통이다. 같은 문화권이지만 이처럼 인종적 차이와 다른 지리적 배경 속에 다른 인식과 세계로 존재해 왔다.

우리가 떠올리는 중국인의 인상하면 대국적 기질, 밝은 장상속, 도인과 같은 사상적 무장, 속내를 잘 보이지 않음 등이 떠오른다. 그래서 중국의 이미지는 황막한 사막과 수려한 계림 풍경만큼이나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속의 이미지처럼, 광활한 평원의 구수한 흙 내음을 맡으며 농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박함이나, '영웅' 같은 영화에서 광활한 국토를 배경으로 사막벌판과 완만하고 누런 흙무더기 산기슭을 흙먼지를 날리며 질주해 가는 원초적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처럼 절대적 이념의 힘에 억눌

린 이미지도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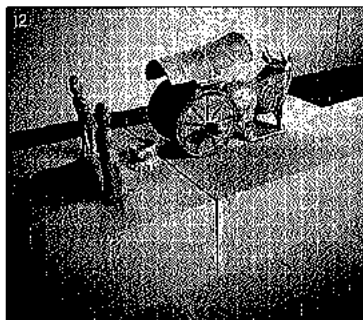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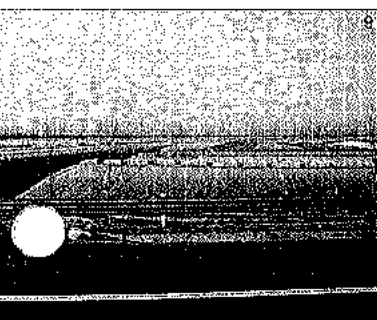
또 그들로부터는 특유의 자신감도 느껴지는데, 자신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생각이 지금도 바탕에 깔려 있는 듯 하다. 그들의 그러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광활한 토지를 배경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몸으로 느껴진 것을 의식으로 통합해 한 것은 진시황의 통일로부터 비롯된 국가개념의 작용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그러한 자긍심에는 패권주의도 잠재되어 있는 듯 오만해 보일 때도 있다. 여행 중 중국인들을 대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그들보다 훨씬 높음에도 은연중 큰 나라 국민이라는 위세를 드러내는 듯 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해 보이는 면도 갖고 있다. 유가와 도가의 본고장이고 인도로부터 전해 온 불교에 그들의 전통적 도가 사상의 영향으로 달마를 초조로 모신 선종이 확립되었다. 달마의 맥을 이은 선종의 조사인 혜능이 저술한 육조단경은 석가 같은 상인의 저술에나 부치는 경이라는 칭호까지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세계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이루고 있다.

산둥반도의 지리적 특성

산둥반도는 중국 전체로 볼 때 매우 작은

9. *방근처의 비밀하우스 별관 10. 고속도로변의 古車博物館 11. 古車博物館 내부 유물모습 12. 우미자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부분일 뿐이어서 그곳을 둘러보고 중국을 느낀다는 것이 기대 밖의 일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땅 나라에 대해 본질과 다르게 지도의 모양으로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일이 있다. 산둥반도는 바다로 불쑥 튀어나온 형태로 반도로 부른다. 황해에 면한 반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산둥반도 그리고 북쪽의 요동반도가 있다. 산둥반도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섬처럼 바다로 둘러싸인 확연한 반도의 지형은 아니지만, 반도 형태를 갖추고 있다. 어느 땅을 밟아보기 전에는 체험적 사고가 형성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가보면 땅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간의 삶 내음이 풍겨 나온다. 그것은 외면할 수 없고, 그곳에서 일어난 갖가지 사연들에 공감하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세세한 많은 감정을 갖게 되듯이 체험이 수반되고 나면, 그 후론 그 곳에 가기 전과 전혀 다른 세계가 된다.

필자도 막상 당도하고 며칠을 겪으면서 중국의 체취를 체험으로 알 수 있었다. 산둥반도는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편이다. 중경 같은 산업 도시가 번창해 가는 면모를 보여주지만, 여기는 땅에 기대어 사는 진실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산둥성에서 맨처음에 생긴 나라는 금나라인데 노나라와 제나라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산둥반도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상이 출현한 곳이다. 청도에 있는 노산은 도

가의 발상지이고, 곡부와 추송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곳으로서 유가의 본고장이다.

산둥성은 면적이 우리 남한보다 넓은 15만 6,700km²이고 인구는 남북한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은 8천6백만 정도이다. 산둥성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산둥성 수도인 제남이고, 그 다음은 농업도시인 유방시로 1,000만 명이나 된다. 또 산둥반도는 중국의 전체 밀생산량의 50%가 생산되고 그 외 옥수수, 고구마, 땅콩 등이 많이 생산된다. 한국과 중국의 교통편은 중국 중요지역과 연결된 항공 외에 정기 여객선도 운항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인천 - 단둥 3회, 대련 2회, 청도 2회 위해를 3회씩 운항한다. 옛날에 중국을 향해 할 때는 지금처럼 인천에서 청도까지 직선 항로로 갈 수 없었다. 풍력을 이용하는 배가 해류의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상이 중국에 갈 때처럼 서해 연안을 따라 요동반도까지 올라간 다음 거기서 산둥반도로 건너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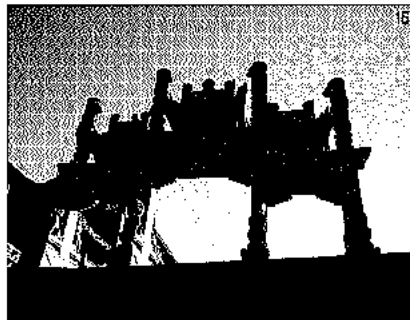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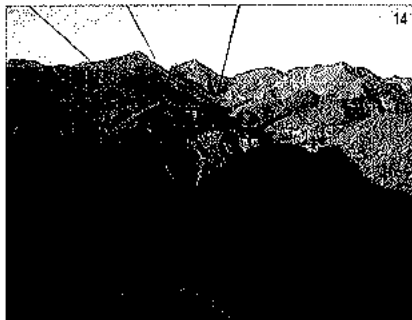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는 생각에 먼 거리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황해를 건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여서, 날이 좋은 날에는 육안으로 내다보인다고 한다. 산둥반도의 북쪽 끝 자락에 해당되는 봉래에서 6개의 섬이 바다 열도를 이루며 뻗어 나 있는데, 그 끝자락으로 나가면 요동반도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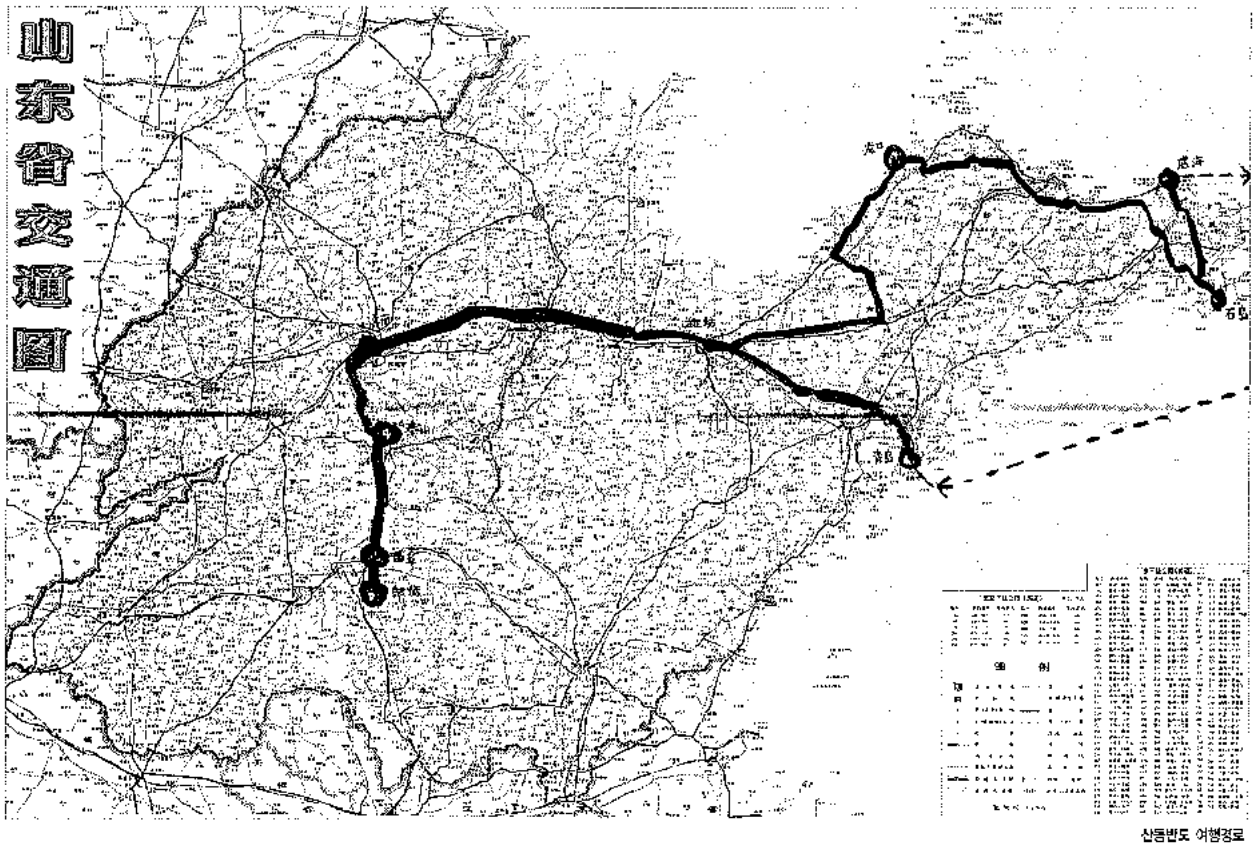
너른 들녘을 가로질러가며

중국의 너른 땅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이 지평선 너머에서 해가 뜨고 진다는 것이다. 평소 그 말을 가끔 들어보았지만 실감이 나지는 않았었는데 중국에 도착한 첫날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차창 밖으로 그 실제 상황을 체험할 수 있었다. 달리는 차 안에 있으면 지평선 너머로 또 다른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 머니면 지평선의 끝 풍경은 새롭게 나타나지만 멀리서 눈으로 식별할 수 없기에 그냥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정지된 것처럼 보여 더 드넓게 느껴진다. 평평한 너른 대지를 한없이 지나며 바라보고 있으면 땅의 힘이 더욱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런 곳에서는 한참을 달려도 산이나 고층건물 등 솟아 있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 대지 위에 세세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대지에 침잠하며 태초의 느낌마저 느껴진다. 변화감 없이 달리는 동안 드문드문 도로가에 세워놓은 표지판만이 다른 곳에 도달했음을 알게 한다.

그 너른 벌판에 지상을 흐르는 강물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강바닥에 토사가 매몰된 상태여서 조금 파고 내려가면 물이 고인다. 그리고 마치 열대 사막지대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관정을 판 것과 같이 군데군데 일정한 간격으로 그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치한 우물이 있다. 2m정

13. 미술의 발달과정을 보여주는 전시물 14. 케이틀리로 오르는 태산 15. 태산의 저위 일구문 16. 태산 정상부근을 오르는 계단





산둥반도 여행경로

도 값이의 우물을 설치한 곳마다 그것을 보호하는 작은 헛간이 서 있어서 위치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로 들어갈 때마다 고층건물의 건설이 한창인 것을 볼 수 있고 곳곳의 시장에서는 생활에 편리한 가전제품들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를 벗어난 들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국이 농업 생산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아직 중국 전체 인

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그리고 산둥반도는 농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 광활한 땅에서 계획된 생산으로 나는 풍부한 농작물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각지로 수출한다. 농산물 가격은 쌀 1Kg에 중국돈 2원 40전(중국돈 1원은 한국돈 150원)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값보다 훨씬 싸게 유통되므로 우리 농부들이 경쟁에서 승산이 없게 되어 원망스런 눈초리를 보낸다.

한참을 달려 앞에 리방(離防)이라고 쓰여 있는 도시를 알리는 팻말이 보였다. 중국 발음으로는 유방으로 불렸는데 그 곳에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길 양쪽에 연달아 지어놓은 비닐하우스 바다가 펼쳐 있었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유방에는 그 수가 90만 동이나 되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한다. 각각의 비닐하우스는 폭이 6~7m, 길이가 30m 정도로 규모가 적지 않다. 처음

17_ 태산 정상 18_ 태산 정상에 있는 옥황상제궁 19_ 태산 정상 표식 20_ 옥황상제궁 내부 지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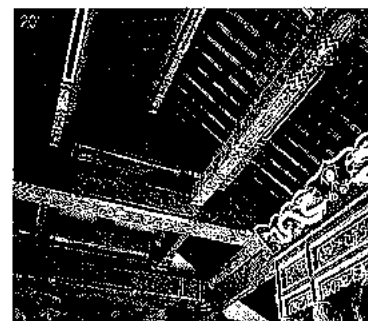
17



18



19



20

에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비닐하우스만큼 알고 지니었는데 계속 주시하다 보니 비닐하우스의 뒤쪽과 양 측면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쪽은 보통 비닐하우스와 같은데 그 쪽들은 토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지열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것은 근래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며 터득했을 것으로 보였다.

그 길로 조금 더 가서 고대 마차유적을 전열해 놓은 고차 박물관에 들렀다. 이 박물관은 1990년 청도 - 제남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발견되어 즉시 공사를 멈춰 발굴하고 박물관을 지었다고 한다. 마차는 한나라시대의 고차 유물이다. 마차는 물론 마차를 끌던 여러 마리의 말이 함께 매몰되어 있었다. 진흙에서 그대로 형체가 간직되어 발굴되어 당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전역에서 비슷한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서 획기적인 것으로 주목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에 마차가 갖는 자체 의미는 크다.

마차는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인간 문명의 발자취이다. 인간의 힘에 비해 월등히 큰 소와 말의 힘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먼 거리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며 교역할 수 있었다. 또 전쟁에서는 무서운 기동력과 파괴력으로 이전의 병기를 압도할

수 있었다. 성능이 개선된 마차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가름되기도 했다. 마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발전하였다. 거대한 포를 운반할 수도 있게 되었고, 특히 막강한 화력을 발휘한 전투 기마술로 대제국이 출현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등자의 발명 덕택이었다. 특정 기술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는 놀라움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저녁 무렵 제남에 닿았다. 숙소로 가기 전 먼저 황하를 보러 갔다. 깜깜한 밤에 그 느낌을 알 수 없었다. 돌아서며 삼국지에 묘사된 황하를 통해 떠올렸다. 삼국지의 저자는 유비를 참 아름다운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다. 흰철한 키에 수려한 이목구비 특히 귀가 크고 팔이 길었다고 되어 있다. 소설에서 그는 황하 강변의 버량에서 상념에 잠겨 있다 무역선이 나타나자 어머니를 위해 차를 사러 달려간다. 그러나 그 날 밤 황건적에게 붙잡혀 빼앗겼는데 소설을 읽으며 그것이 그가 출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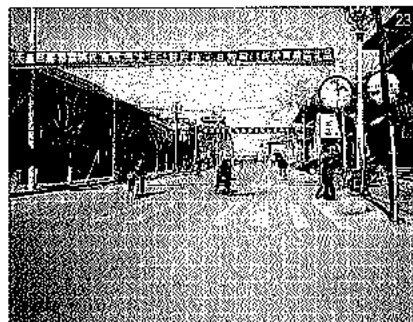
산동반도에 있는 태산은 중국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산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뵈이로다'라고 읊은 이태백의 시를 통해 그 산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시를 통해 태산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산이라는 의미로 소통되는데, 실제로는 높이가 해발 1,540m로 중국 동북쪽의 천산남북로와 서쪽 화북이라야 산맥에 면한 산들에 비해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등에 비해서도 낮다. 태산이 높게 의식되는 것은 광활한 평원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알리는 있지만 제남 쪽에서 다가갈 때면 낮고 구릉진 산을 보며 지나게 되어 그 감각도 무디게 된다. 그보다 그 산은 실제보다도 중국인들의 정신성이 함축된 상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듯 하다.

일행을 태운 버스가 태산 입산을 통제하는 입구 매표소로 다가가 표를 구하였다. 매표소 앞에 천산이라고 쓴 표지석이 서 있다. 어쨌든 어렸을 적 국어 교과서에서 알게 된 이 태백의 시에 나오는 태산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설레임을 감출 수 없었다. 천산은 산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를 사고 다시 안쪽으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명성이 자자한 산을 들어가는 감화로 창 밖으로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금세 친숙한 인상을 느꼈다. 산의 지형 비위와 나무들의 색깔과 형상이 우리나라 산과 닮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순간 천산의 영기가 아마도 중국 산에서 흔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차가 산길을 한참 올라

21_ 태산정상부근에 지어지는 건물들(도기사당, 간형궁, 공자시당) 22_ 국부로 기면서 뒤돌아본 태산 23_ 곡부 시내 거리 24_ 곡부 시내 상가



가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는 곳 앞마당의 너른 주차장에 도착했다. 천산은 관광객이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정상 밑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 놓았다. 이 곳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듯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 겨울에 큰산을 오르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이 걸어서 오를 때 산이 망가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하도록 해 놓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큰산인자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데도 한참 걸렸다. 오르면서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계곡을 흐르던 물이 공포 열이 있었다. 오르는 동안 몇 번인가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카와 교차했다. 오를수록 시야가 넓어지며 천산의 이미지를 좀 더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케이블카가 위쪽 승강장에 닿아 내렸다. 거기서 다시 정상을 향해 걸어 오르는 길을 걸어갔다. 그리로 접어들어 조금 오르니 길 좌우로 도열하듯 늘어선 집들 사이의 마을 같은 골목길이 나왔다. 다시 그곳을 지나 올라가니 천가(天街)라고 쓴 문이 나온다. 그 곳부터는 천상의 세계라는 뜻이다. 그리고 맨 정상 쪽에는 도가 사당, 공자 사당, 청황제의 사당이 있고 맨 위에 옥황상제를 모신 사당이 있다. 그 사당들이 위치에 따라 위계적으로 인식되게 놓여 있다. 그것은 중국인들의 전통적 세계

관의 반영일 것이다. 정상 가까이 하늘거리를 두고 최고의 존재를 모신 것은 그 산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적 크기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가의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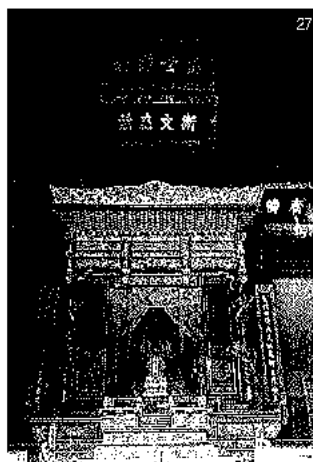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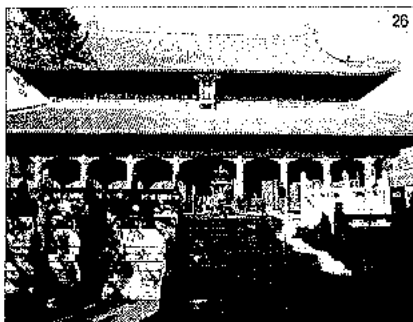
태산을 내려와 공묘(孔廟)가 있는 곡부로 향했다. 태산에서 곡부로 가는 길에는 평지가 펼쳐져서 익히 들었던 대지에 우뚝 선 태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하여 차의 뒷자리서 뒤를 돌아보며 갔다. 평지 쪽에서 보니 조금 더 우뚝 선 느낌이 들었다. 필자는 태산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멀어져 희뿌옇게 윤곽만 어렵게 보이게 되었을 때는 이미 산의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돌려 창 밖을 보니 마른 겨울 들녘이지만 햇살이 대지에 반사되어 따스한 감촉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한동안 달려가는 도중 곡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강을 건넜다. 중국에는 대륙의 넓이에 비해 강의 수가 적은 편이다. 어젯밤 제남에 도착하여 본 황하가 양자강에 이어 두 번째로 크지만 가로동 불빛 아래서 그 진면목은 볼 수 없었다. 해강은 크지 않지만 평원을 가로 질러가는 강의 자태를 엿볼 수 있었다. 그 곳을 지나 잠시 후 곡부에 도착했다.

평지에 쌓은 성곽을 끼고 시내로 들어섰다. 근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이

지만 산업화로 변모하는 도시 모습과 달리 곡부는 옛날 읍성의 풍모를 풍긴다. 가로변의 건물들이 모두 나지막하여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곳에서는 공묘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 곡부는 공자의 고향으로서 그의 체취를 간직하고 그것을 느끼고자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도시로 보였다. 이 고장 사람들은 공자가 이곳에서 태어난 것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는 듯 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 융해되어 있어 그들이 추앙하는 역사의 인물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통 옛 유적에 갈 때면 과거의 상황은 단지 흘러간 과거사일뿐이고 당시에 지어졌던 건축 유적만 덩그러니 보고 올 때가 많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의 커다란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공자의 유적은 역사적 현장감을 생생하게 해준다. 공자는 중국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동양 역사에 끼친 위대함으로 인해 중국을 자랑하는데 가장 적절한 소재일 수 있다.

공묘(孔廟)는 폭이 50m, 길이가 200m나 된다. 입구로부터 들어가 전체를 다 살펴보면 하루가 걸려도 다 보기 어려울 만큼 넓다. 축을 따라 여러 단계의 마당을 거치며 나아가면서 장엄함을 체험케 해 놓았다. 동?서무 영역 앞에 준비하게 늘어선 바라는 외형상 중층으로 되어 있을 만큼 크다. 대성

25. 공묘대성전을 향해 들어갈 26. 공묘의 대성전 27. 대성전에 모셔진 공자상 28. 공자 교학의 은행나무



전 내부로 들어가면 커다란 공자의 조소상이 있다. 그 위로는 몇 개의 편액을 달아 놓았는데 맨 위 편액에는 만세사표(萬世師表)라는 글씨가 쓰여 있다. 그 말 한마디가 공자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대성전의 기둥은 모두 대리석에 조각을 해 놓았다. 지붕은 기와에 황금색을 입혀 놓아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웬지 이곳에서만큼은 화려함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설사 그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 놓았어도 지나치다고 여겨지지 않을 듯했다. 중국 역대의 여러 제왕이 있었지만, 역사 속 그의 존재에 대한 권위와 무게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할 것 같았다.

공자 사당이 있는 공묘 옆에는 공부(孔府)가 있다. 공부는 공자의 후손에 의해 곡부를 다스리는 관청이다. 조정에서는 공자 이후 공자의 후손에게 곡부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었고,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그 곳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권력은 무상하고 명멸해 가지만 진정한 사표의 권위는 변할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곡부의 외곽에 위치한 공림(孔林)에는 그의 묘가 있는데 공묘, 공부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자 유적을 통해 본 중국건축의 감각

이번 여행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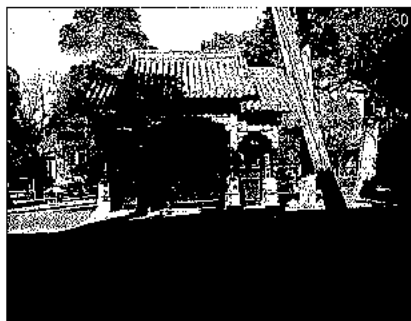
하여 답사 목적도 건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었다. 이곳 방문도 공자가 실재했던 현장을 보며 그의 체취를 느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실제 와보니 공자 유적은 중국 고유의 전통건축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중국의 전통건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다.

세계 각지에는 각기 형성돼온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고, 건축도 각기 다른 재료와 짓기 기술이 양식성을 띠고 드러난다. 가공이 용이한 대리석 생산이 많은 서양은 석조가 발달했고, 용재 확보가 쉬운 동양에서는 목조건축이 발달해 왔다.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문화적 차이는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외양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 차이를 형성하는 사상이다. 중국에서 생성되고 동양사상을 대표하는 유가, 도가, 성리학 등은 모든 사물 현상뿐 아니라 건축과 인간까지도 우주적 관점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신사상, 음양오행론, 이기론, 주역, 풍수지리설 등이 있다. 그런데 건축에서 그러한 사상의 적용은 건물 형태보다 배치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전통가옥인 사합원은 ㄷ자의 도식적 배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건물은 마치 중정을 둘러싸기 위한 구조물로 보인다.

이곳처럼 주요 건물을 중심에 위치시키

는 것은 고대에 중앙을 둘러싸며 호위하는 사신사상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한 건축 경향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가에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고구려 안악 1호분같은 분묘 건축이나 청암리사지같은 사찰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데는 중국의 통일과도 연관이 있었을 것 같다. 여러 나라가 각지에 소수 민족으로 흩어 있었던 중국은 그로 인해 크게 통합된 한 나라라는 의식이 생겼고, 그 속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큰 나라로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처럼 큰 나라를 유지하면서 황제를 중심으로 그의 통치를 받고 복종하는 힘의 질서가 형성되고, 이전의 제후보다 격이 높은 황제의 권위와 영화로움이 새롭게 표출되게 되었다. 그리고 황제의 권위는 중심적 의미로서 발현되어 황제가 임하는 곳을 전체의 중심이라는 도식적 의미가 부여 되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궁궐 조영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궁궐의 기본 구조는 중심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서 호위하는 형국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적용된 중국전통건축은 어느 곳에서 바라보이는 건물에 대한 시각적 형상의 좋고 나쁨을 의식하기보다 중심과의 관계와 질서가 중시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 건물에 이르기까지 중심 축을 따라가며 배치하였는데, 그것은 유가적 인간사회 질서를 표출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 곳을 걷다

29. 공자 교택의 우물 30. 공부(孔府) 31. 공부 안쪽의 권자 32. 공림에 있는 공자묘



보면 마치 최면에 이끌리듯이 여러 개의 문을 넘어 핵심공간에 다다르게 된다.

또 중국전통건축에는 음양론도 반영되어, 건물은 양이고 땅은 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것은 바둑의 원리에 비유할 수 있다. 빈 대지 위에 건물을 세우는 바둑판 위의 돌을 놓는 것과 비슷하다. 바둑은 흑백의 힘이 부딪쳐 긴장이 유발된다. 규정된 반상 위의 한 점은 전체의 부분으로서 전체 판의 균형과 다음 수에 관계를 미친다. 이처럼 고대 건축에서 건물의 놓인 위치는 바로 우주 전체를 의식하며 자리잡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전에 필자는 중국전통건축을 화려하고 기교적인 풍으로 알고 있었으나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 그것은 세부적 현상이며 동양사상을 토대로 우주적 시각에서 균형을 갖추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건축다움의 발현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러한 세계관과 공자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려는 마음으로 그의 유적은 권위적인 건축질서를 표출하고 있었다.

옛 선조들의 중국과의 교류 현장

아침 일찍 일어나 제남에서 옹구까지 무려 14시간이나 차를 타고 달렸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옹구는 서북의 사당이 있을 뿐인데, 그 곳은 원래 필자의 관심사가 아니어서

공연히 하루종일 차를 타고 달린 꼴이었다. 필자는 이번 여행에 뒤늦게 참가해서 목적이나 구성원들도 잘 몰랐는데 그 날은 이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지역을 보기 위해 모두 내려하지 않는 길을 함께 끌고 갔다.

이 지역은 산둥반도의 북쪽연안이다. 옹구로 가는 도중에 있는 소래는 소정방이 군대를 끌고 출발했던 곳이다. 그리고 고구려 때 수나라 군사가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수군을 출발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이곳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가기에 가장 편리한 교두보였다. 이 곳은 전쟁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기 위한 여로이기도 했다. 등주는 삼국시대에도 대륙으로 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등주 북쪽은 대련반도, 남쪽은 산둥반도인데 대련반도는 북경을 지키는 외곽역할을 했다. 등주의 봉래각은 8년여 사는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신라 구법승들이 건너오는 행로여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외상대사가 뱃길로 당도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현대에는 여행이 수월하지만 당시에 바다를 건너는 여행은 생사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험난한 일이었다. 그런 험난함을 무릅쓰고 유학길에 올랐던 당시 인물들을 생각하면 엄숙한 기분이 든다.

의상이 한국 사상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의 선구자적 행적에 의해 신라에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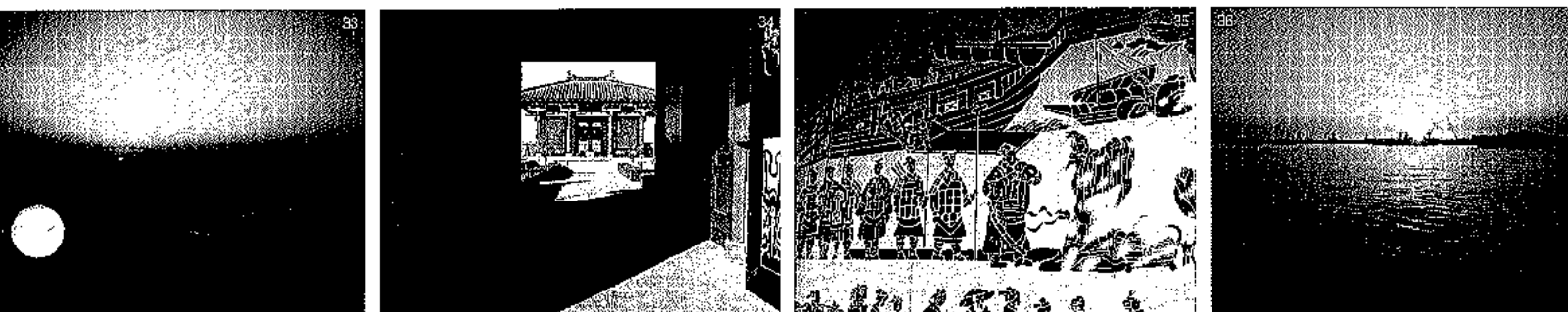
엄학이 전파되고, 또 일본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담긴 선구자의 발자취가 어린 등주로 가 의상의 행적을 느끼고 싶었지만 일행의 행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으로 차를 타고 석도를 향해 가는 길은 해안 쪽에 나 있어서 길을 달리면서 언뜻언뜻 해안선이 보였다. 필자는 해안이 나타날 때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등주에 닿은 의상을 사모했던 선묘 이야기를 떠올리다 내륙의 길로 접어든 다음부터는 석도까지 지리한 길을 씀 없이 갔다.

석도진과 장보고 유적

석도에 도착하니 깜깜한 밤중이었다. 피곤한데다 숙소에 짐을 두고 늦은 시각에 어두운 밖으로 나와 식당을 찾아드니 영 식욕이 생기지 않았다. 일행이 석도에 간 것은 그곳에 있는 장보고 유적지를 보기 위함이었다.

장보고는 통일신라시대 완도의 청해진을 본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해상무역 활동을 펼친 인물이라고 전해진다. 장보고의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는 궁복(弓福) 또는 궁파(弓巴)라고 되어 있으며 중국 기록에서는 장보고(張保皋), 일본 기록에서는 장보고(張保高)라고 되어 있다. 그 이름 한자는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

33. 곡부서 제남가는 길에서의 일몰경경 34. 옹구의 서북사당 35. 서북사당에 그려진 행적도 36. 석도진의 일출



다. 그의 조상에 관해서는 언급된 기록이 없어 미미한 평민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장보고가 장씨 성을 쓴 것은 당나라에 있을 때 그 곳의 대성(大姓)인 장씨를 따라 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신라 38대 원성왕(785~798)때 우리나라 서남 해안의 섬에서 태어났다. 완도를 바로 그의 고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장보고는 청년기에 자기보다 몇 살 어린 친구 정년과 함께 당나라의 서주로 건너가 서주 절도사의 본군인 무령군에 들어갔다가, 뛰어난 무예 실력을 인정받아 30세 때는 소장(小將)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8세기부터 황해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삼국통일시기에 나당 연합군을 형성한 대규모 선단의 이동 등으로 뱃길이 넓어지고, 전쟁 후 패한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이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모국과 망명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황해에 접한 중국의 동해안에는 당시 신라 사람들의 집단 거류지인 신라방이 여럿 있었고, 신라인들의 자치기구로 신라소가 있었다. 신라방 사람들은 중국연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상업과 무역을 하며 살았으며, 중국과 신라와 일본 등으로 다니며 국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겼다. 실제로 장보고가 무령군으로 있던 9세기 초에 당나라 수도 장안에는 신라에서 유학 온 승

려나 학생이 260여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그 해상 교역로에는 해적질을 하는 무리도 출몰해서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 연안을 약탈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 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해상왕 장보고가 탄생된 배경이다.

장보고는 828년(흥덕왕 3년) 신라에 돌아와 왕에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물리치고 신라인들의 교역로를 보호할 것을 주장,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신라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무역로의 치안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상단을 두고 국제 무역을 함으로서 막대한 권력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세가 커지자 그 영향력은 신라 조정에까지 미쳐서 왕이 그의 힘을 빌기도 했다. 836년에 흥덕왕이 후계자 없이 죽자 근처 왕족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고, 그 결과 김재웅이 이겨서 희강왕으로 즉위했다. 그와 싸우던 감군정은 죽고 그의 아들 감우징은 청해진의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했다. 그런데 희강왕 또한 왕위 다툼 속에 3년만에 피살되고 민애왕이 즉위했다. 이 때 감우징은 장보고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민애왕을 죽이고 신문왕이 되었다. 장보고는 그 공으로 감의군사(感義軍師)라는 칭호와 식읍 2,000호를 받았다. 왕이 되면서 감우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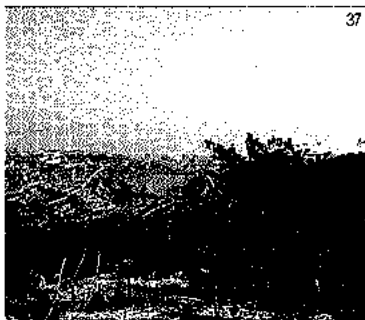
였으나, 이미 왕비가 있었고 장보고의 신분상 그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여식의 혼사문제로 신라 왕실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를 시기하고 배척하려는 신라 조정을 장악한 무리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서 장보고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그러한 때 장보고의 부장을 지낸바 있던 염장이 841년 (문성왕 3년) 청해진으로 가 장보고에게 투항하는 척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보고를 찔러 죽였다.

장보고의 죽음으로 해상왕국이라고 불린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해상활동은 고려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개성의 왕씨 가문은 해상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훗날 왕건을 배출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것은 장보고의 활약이 끼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석도진은 장보고가 활약한 중국 쪽 근거지이다. 장보고는 석도에 모여 살던 신라 유민들을 위해 법화원이라는 절을 지었는데, 현재 법화원 대웅전 마당의 우측에 있는 관음전에는 장보고의 초상과 그의 활약상을 기록으로 전시하고 있다.

석도를 끝으로 중국에서의 답사 일정도 모두 끝나고 귀국하는 일만 남았다. 돌아가는 배를 탈 항구는 위해항이어서 장보고 유적지를 돌아보고 그리로 이동했다. 돌아가는 항로는 해류를 거스르지 않고 순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으로 올 때보

37_ 법화원에서 본 석도진 광경 38_ 석도법화원전경 39_ 법화원 관음전의 장보고 초상 40_ 법화원에 있는 장보고 활약경로 지도



다 4시간 정도 적은 14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일행은 위해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를 한 후 시간이 남아 여행사에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안내한 부두 창고로 갔다. 어차피 떠나기까지 남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건강을 중시하는 요즘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고국에서보다 조금이라도 싼값에 구입할 요량으로 현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사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요새는 검은콩, 깨, 호두 등이 인기이다. 입국 수속을 밟기 위해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거기서도 무리한 시간을 보내며 대가했다. 한참이 지나 배에 올랐어도 금방 출발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다시 나갈 수도 없는 배 안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떠나는 순간은 항상 무엇이 아쉬운 듯 꾸무적거린다.

귀향선

지루하게 출항을 기다리는 사이 어느덧 위해항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가로등 불빛만이 영롱하게 보이는 도시는 낮과 전혀 다른 느낌을 발하고 있었다. 어느덧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위해의 밤 풍경을 보고 있는 사이 이윽고 배가 천천히 움직이며 부두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밤이 되어 출발했기 때문에 배는 처음부터 캄캄한 바다를 향해했다. 필자는 배가 연안을 빠져나가며 항구의 불빛이 희미하게 사그러져 보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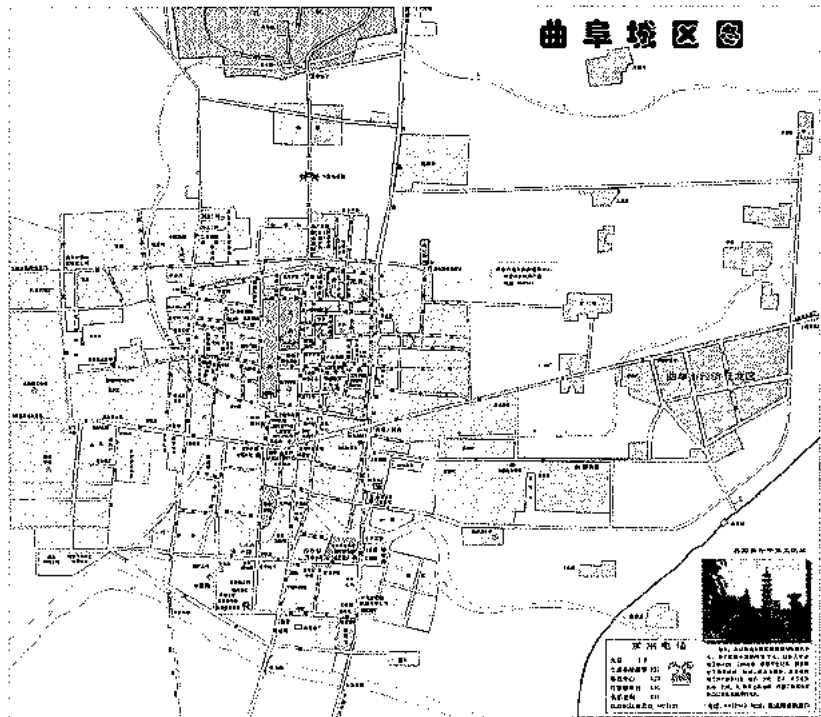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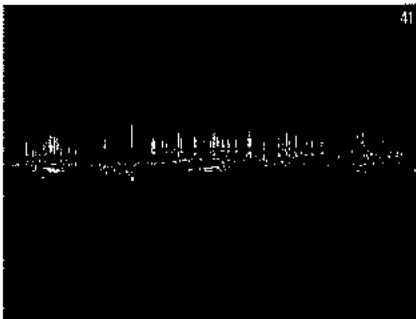
않게 될 때까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내 망망대해를 떠나게 되었다. 칠흑같이 캄캄한 밤 뱃앞머리에 서서 그 심대한 바다의 울림을 생생히 느껴보고 싶었다. 얼마나 깊은 바다 위에 우리가 떠 있는지, 그리고 갈 길은 얼마나 먼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다는 더 깊고 처연한 느낌이었다. 그 심연의 느낌을 대하며 꿈쩍 않고 뱃전에 서 있었다.

서 있는 동안 차가운 공기에 몸이 얼어오는 듯 했다. 그럴 땐 잠시 배 안으로 들어와 쉬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서서 바다를 느꼈다. 어둠이 자리해질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흐린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언뜻언뜻 보였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 동안 멀리서 새롭게 떠올라 펼쳐지는 수평선 물살 위에서 불빛이 보이다 숨었다 했다. 별빛일 수도 있고 고깃배의 등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니 빛이 주기적으로 밝았다 어두워졌다 했다. 등대였다. 가까워지기 시작하니 회전하는 것이 뚜렷이 보였다. 그곳까지 멀리서부터 한 지점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갔으나, 그곳에 이르자마자 금세 스쳐 지나고 다시 칠흑 같은 바다 위를 향해해 갔다. 그 사이 몇 번 멀리서 보이는 고깃배나 등대 불빛을 지나쳐가고, 희미하게 날이 밝았을 때 배는 어느덧 연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갈 때 지나쳤던 인천 앞바다 도서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배는 인천항 도크로 미끄러 들어섰다. 간만의 차이로 도크와 그 너머 연안 바다의 수면이 큰 차이가 나 있어서 도크에 들어가 양면 문을 닫고 물을 채운 후 앞문을 열고 연해로 접어들었다.

마침내 출발했던 인천항의 그 부두에 도착하였다. 승객들은 짐을 챙긴 다음 배의 출구로 나와 부두로 내려진 트램을 내려서서 대기중인 버스에 올라탔다. 그 짧은 순간 이 땅을 새롭게 보는 기분으로 공기 냄새를 맡았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열 지어 입국수속을 밟고 들어서는 순간 여행객을 마중 나온 사람들 사이로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섰다. 

4. 귀향선을 탄 위해 항의 야경



曲阜시의 공자유적도

이 관 영
(주)한인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Young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건축제도개선과 협회의 역할-

A Reflection on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Issues

- Institutional Reformation of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the Institute -

세계화의 진전으로 사실상 국가간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직 자격에 있어서도 각국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IA는 건축사자격에 대한 국제 기준이랄 수 있는 「건축실무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관한 국제기준 권장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WTO에 의한 전문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건축사제도에도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UIA와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UIA회원단체로서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따른 대응방안(1999. 9)」을 발표하였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를 설립, 3국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뿐만 아니라 학회를 중심으로 한 건축학교과과정의 모델연구, 건교부와 건축3단체가 참여한 「건축사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응방안연구(2002.12)」등을 통하여 이미 5년 이상의 건축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고, 건축교육인증을 위한 인증원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세계화 혹은 무역자유화라는 현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건축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 기준과 동등한 건축사제도를 갖추으로써 건축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라마다 건축사제도의 성립 과정과 배경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축사제도는 건축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 협회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인증원 설립을 위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여 회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필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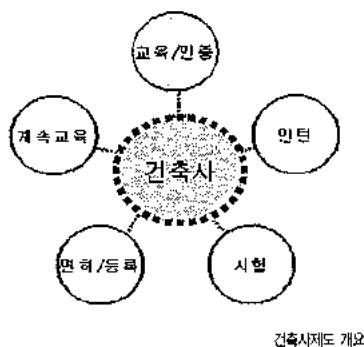
서론

전문직 서비스분야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에 대한 상호인정(MRA)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필요하게 된다.

UIA가 채택한 '권장안'도 건축사 자격에 관한 국제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1980년대에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직자격에 대한 상호인정 경험이 있고, UIA의 '권장안'도 상당부분 EU의 경험을 참고하거나 수용하고 있다.

'권장안'은 건축사자격의 MRA를 전제로 한 국제기준으로서 건축사의 요건, 교육/인증, 인턴제도, 시험, 등록, 계속교육, 건축사 윤리, 업무영역, 업무형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회원국들에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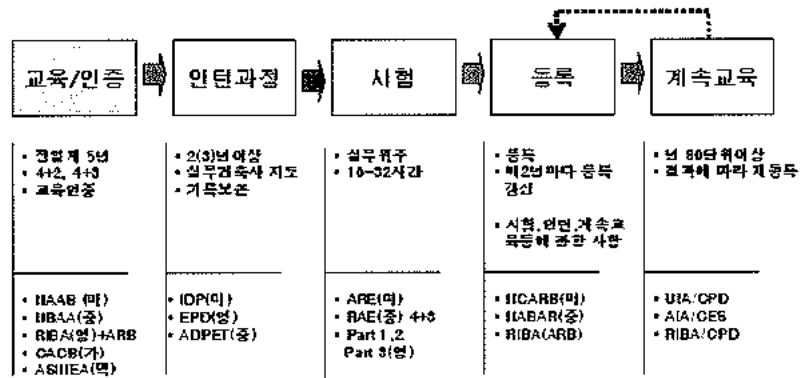
이들 기준은 앞으로 WTO에 의한 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어서의 전문직자격 상호인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UIA권장안에 의한 건축사제도

UIA가 권장하는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교육/인증

기본적으로 전일제 5년 이상의 교육을 이



수하여야 하며, 학생수행능력(Performance of criteria)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은 별도의 독립된 인증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UIA는 이들 인증기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인턴제도

교육/인증자는 기본적으로 2년(3년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중) 이상 실무건축사 밑에서 인턴과정을 거쳐야만 건축사시험자격을 갖는다. 실무훈련내용과 평가방식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 시험

인증받은 교과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시험은 실무위주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 등록

별도의 등록기구에서 등록업무를 관리한다. 등록기구는 등록업무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지문, 인턴기록의 관리, 시험과니, 계속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계속교육 결과에 따라 2년마다 재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계속교육

건축사로서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

UIA권장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건축사제도는 UIA권장안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혹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점에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 권장안이 WTO의 서비스시장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 상호인정(MRA)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
- MRA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건축교육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건축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UIA권장안은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이러한 합의에 따라, 현재 60여개 대학의 5년제 건축학과정과 상당수의 건축전문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학회가 연구해온 모델을 기초로 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7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또한, FIKA를 중심으로 건축학교육인증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1)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2)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 3)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1999 (건축 실무에 대한 국제기준에 관한 UIA 권장안)
- 4) 학생능력수행평가기준(Performance Criteria)

현행 교과과정모델은 인증에 필요한 수행 평가기준⁴⁾을 염두에 두었다 하지만, 인증절차와 기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연구된 것이어서, 앞으로 인증원에서 확정될 수행평가기준에 따라 다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현행과정에 대한 인증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외국의 인증제도

• 영국의 인증제도

영국은 RIBA⁵⁾가 중심이되어 ARB⁶⁾와 함께 산하 위원회로 하여금 건축학교과과정에 대한 국제적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RIBA의 국제 인증(RIBA International Validation)은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축교육의 최소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학생의 성취도에 있어서 우수성과 다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UIA권장안에서 보듯 '인증'을 Validation/Accreditation으로 병기하고 있는데, RIBA는 이를 엄격히 구분하여, Validation은 교수방법, 시설기준, 교수내용 등보다, 학생작품, 시험답안지 등 결과물을 중시하고 있다.

인증기준(Criteria For Validation)은 5개 영역 58항목으로 되어 있다.

RIBA는 EU를 비롯한 외국의 인정기구와 협력하며 CAA(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의 창립회원으로서 영연방국가에 대한 인증업무를 지원한다.

외국의 많은 건축대학들이 RIBA의 기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절차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인증위원은 RIBA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며 3년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국

제인증판별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2년까지 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RIBA의 회원이어야 한다.

• 미국의 인증제도

미국의 인증제도는 시험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으로 1902년 일리노이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1903년 코넬, 컬럼비아, 하버드, MIT, 펜실바니아 대학 졸업생에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1912년 건축대학연합(ACSA⁷⁾)이 설립되자 연합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대학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최소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범국가적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1932년 ACSA가 이 기준을 포기함으로써 건축교육인증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미국건축가협회(AIA⁸⁾), 건축대학연합(ACSA), 미국건축사등록위원회(NCARB⁹⁾)에 의하여 1940년 인증원(NAAB¹⁰⁾)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인증기준은 건축교육과 실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데 현재는 4개주제 39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조건 및 절차는 C&P (Condition & Procedure)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NAAB는 1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각각 ACSA, AIA, NCARB에서 3년임기의 이사 3인, AIAS¹¹⁾에서는 2년임기의 이사 2인, 기타 3년 임기의 이사 2인으로 구성된다.

• 중국의 인증제도

중국은 일찌기 건축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1994년부터 미국식 건축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또한 2000년 북경 UIA총회유치를 계기로 '권장안' 마련을 위한 간사국으로서 권장안의 채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국립건축인증위원회(NBAA¹²⁾)는 미국의 NAAB를 모델로 하여 1994년 설립되었다. NBAA는 고등건축교육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가 설치한 특별기구

로 정부 교육, 건설부처의 위탁을 받아 고등 건축교육기관의 인증을 시행하고 또한 중국 건축협회(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인증원은 건축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일련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수립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질 있는 건축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은 외국어 영역에 대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등 4개 주제에 47항목으로 되어 있다.

NBAA의 위원은 ASC의 자문을 받아 고등 건축교육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로서 정부 건설주무부처에서 임명한다. 위원은 총 15인 이상 17인 이하로서 건설주무부처출신 2~3인, ASC출신 1~2인, 건축교육전문가 6인과 실무 건축사 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유임할 수 있다.

운영지금은 정부의 건설·교육주무부서가 공동으로 제공하며 기타 인증신청기관의 인증수수료와 사회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우리나라의 인증제도

외국의 예에서 보면 영미 등은 인증제도가 민간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직 제도의 설립배경과 역사가 나라마다 다른 때문이다.

5) RIBA(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6) ARB(Architects Registration Board)

7) ACSA(The 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 of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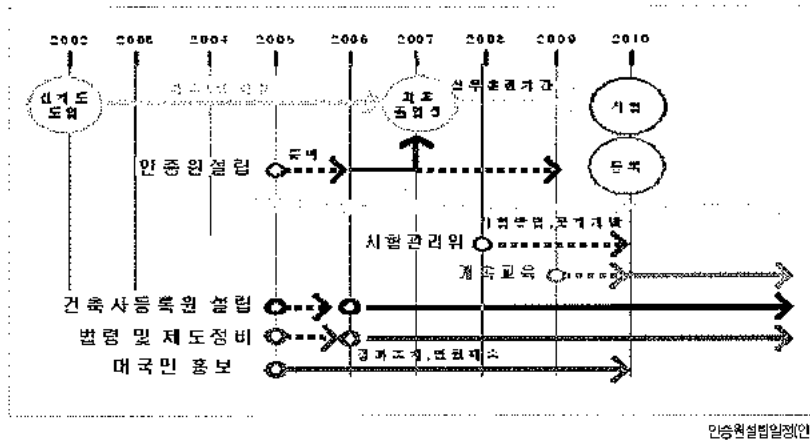
8) AIA(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9) NCARB (The 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

10) NAAB (The 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11) AIAS(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Students : 전미국건축학생협회)

12) (The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



인증원설립일정(안)

그러나 본격적인 인증원 설립에 이르기까지는 건축계 전반의 합의와 관련부처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제도시행일정에 대한 정확한 예보를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현행제도하에서 시험자격을 갖춘 대가자의 적체를 해소하여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인증제도의 출발로 비롯된 새로운 건

축제도의 완성을 위하여는 이에 못지않은 건축계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될 뿐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지 않는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새로운 건축사제도의 정립을 위하여는 우리 협회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건축교육이 궁극적으로 건

축사가 되기위한 과정이라면 학생수행능력평가단계 뿐 아니라 교과과정 편성에도 건축사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곧 졸업할 학생들을 위하여는 인턴제도, 시험관리 등을 위한 등록기구의 설립도 협회가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현재의 협회 체제와 성격으로 등록기구의 역할이 가능한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새로운 건축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존 협회로서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능동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비록 건축경기의 침체와 설계시장의 불황으로 건축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위기라 하지만, 장래 배출될 후배 건축사를 위하여 기성건축사의 책임을 게을리 하서는 않된다.

새로운 건축사제도 정착을 위하여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원은 물론 건축사 여러분의 깊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정회원(월정)회비 납부안내 및 징계예고

본 협회 제38회 정기총회(04. 2. 26)에서 정회원(월정)회비를 장기 미납한 회원에 대한 징계처리 안이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회비 장기미납회원들께서는 미납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회비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총회 의결내용 (04. 2. 26)	가. 징계대상 : 본 협회 정회원(월정)회비를 5년(60개월)이상 장기 미납한 회원 나. 징계종류 : 제명 다. 징계방법 및 미납회비 처리 - 총회개최일(04. 2. 26)현재 5년 이상 정회원회비를 장기미납한 회원은 3개월간의 회비납부 기한을 주고, 그 이후에는 정관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제명처리 - 제명처리 된 자의 미납된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산처리 라. 관련근거 : 정관 제55조제1항제3호 <참고> 2003년도 회비장기미납자 제명 - 제명인원 : 103명(서울 101명, 경기 2명) - 제명사유 : 5년(60개월)이상 회비 장기미납자 - 제명일 : 2003. 8. 9
미납회비 납부안내	○미납회비 납부기한 (04. 5. 25) - 총회 승인일(04. 2. 26)부터 3개월 이내 ○개인별 회비 미납금액 확인 및 납부 - 회원의 소속건축사회 회비수납 담당자에게 미납개월수 및 미납액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건축사회에 납부하면 됨
참고	○제명 또는 퇴회한 자는 정관 제11조제4항에 의거 본 협회가 회원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경조비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폐업회원에게 지급하는 폐업위로금 혜택 없음 ○회원 신상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회원이 협회에 변경사항을 미신고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김 용 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명예교수
by Kim Yong-Boo

브라질 고층 사무소 건축에 사용한 고성능 유색 콘크리트

HPCC in Brazilian Office Tower

준공단계에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의 e-Tower (이하 e-타워로 함)에 압축강도 125MPa* (약 1250)의 고성능 고강도 유색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건물의 최초 일곱개층의 다섯개 기둥에 사용된 HPCC는 일반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일괄 처리되고 극심한 도시교통 때문에 현장에 가는 도중에 트럭에서 혼합되어 플랜트를 출발한 후 40~60분내에 타설되었다.

그러한 특별한 콘크리트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경험이다. 콘크리트는 거주공간을 최대화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쉽게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철저히 연구소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콘크리트 기둥의 유색화는 건물의 거주와 그 외 주차공간에서 바리는 건축효과를 얻었다.

e-타워는 준공이 되면 800대의 주차공간, 두개의 일류식당, 하나의 컨벤션 및 비즈니스 센터, 하나의 올림픽 경기 규모 반정도의 수영장, 건강 헬스센터 및 육상 헬리포트를 제공하는 현대 사무소 건물이 된다. 또한 건물은 "인공지능"공기조화시스템과 에너지 및 수계 절약 설비를 가진다. 162 높이에 42층 건물의 연면적은 52,000이다. 브라질의 다섯 개의 가장 높은 건물에 속하는 e-타워는 고층건물이며 The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가 채택한 국제분류에 따라 "마천루"이다.

* MPa = N/mm², 1kN = 101.97kgf

브라질 콘크리트의 배경

브라질은 100 이상의 높은 건물을 건설한 전통을 가진 남미에서 콘크리트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 중의 하나이다. 오랜 전통으로 75년전인 1929년에 브라질 기술자는 상파울루 거리에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06의 유명한 콘크리트 건물인 Martinelli Building을 설계하였다. 1960년에 당시로는 제일 높은 189의 콘크리트 사무소 건물인 Palacio Zarzur Kogan을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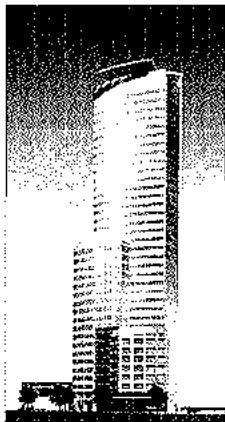


그림 e-tower의 투시도

e-타워의 설계와 건설조건

e-타워는 폭 17, 길이 28, 깊이 28 규모 의, 35MPa 강도로 된 큰 단립콘크리트 기초 블록으로 지지된다. 25°C의 주위온도에 대하여 약 15°C의 타설온도를 얻어 수화열을 조절하기 위하여 혼합수에 얼음을 사용하였다.

기초로 지탱되는 다섯 개의 주기둥은 각각 약 2500t의 하중을 받으며, 저층부에서 거주와 주차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0.42 이하의 단면적을 갖는다.

이들 크기 한계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측 기술자, 구조설계 기술자, 레미콘 회사와 저자인 교수로 만든 팀은 적절한 고성능 콘크리트의 설계를 수용하였다.

팀은 브라질의 콘크리트 구조에 지정된 최고강도 콘크리트를 연구하였다. 이것을 상파울루에 있는 일반콘크리트 플랜트로부터 믹서트럭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건축가 Affalo와 Gasperini가 유색콘크리트로 기록 돌파의 높이가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에 색을 추가할 것을 결정하였을 때 도전은 더욱 흥미를 일으키게 되었다.

기술 및 경제적 국면

설계자는 e-타워의 전체적 형태를 결정하는 기술 및 경제적 문제와 최초의 다섯 개 층에서 기둥 크기를 줄여야 할 임계성 때문에 대안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선택하였다. 유색 고강도 콘크리트는 총 간의 기둥에 사용되었다. 그중 4개는 지하 4개층의 지하 주차장과 주 출입층 및 추가 2개층 내의 긴 기둥에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HPCC의 사용은 콘크리트량의 53%와 전체비용의 3%를 절약하였다. 재료는 또한 주차용 4개 층의 각층에 추가로 4대 분의 주차공간을 늘려 주었고 잠재적인 건물수익을 올리게 된다.

콘크리트 재료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 다음 기준을 고려하였다. 포틀랜드 시멘트와 골재의 품질, 시멘트 혼화제와 혼화제 간의 친화성, 내구적인 색을 마련하고 콘크리트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안료의 적합성, 지역에서의 공급성 그리고 비용 등이다.

모든 콘크리트 재료는 상파울루와 근교에서 조달되었다. 지역 굵은골재는 19mm의 최대공칭입경, 3.02의 밀도와 6.91의 조립율을 가진 단단하고 강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2.4mm의 최대입경, 2.67의 밀도와 2.04의 조립율을 가진 석영 잔골재가 사용되었다. 사용된 포틀랜드 시멘트는 ASTM C150 Type III와 유사한 Brazilian high-initial-strength Type V이다. 이에 약 23%의 용광로 슬래그, 13%의 실리카흄이나 15%의 메타카올린 유색을 위하여 4%의 붉은 무기안료 플리카 복시레이트에 근거한 1% 고성능 감수제 그리고 수화조절과 응결지연을 위한 0.45% 혼화제를 추가하였다. HPCC 혼합의 성질은 일개 층에 있는 총 다섯 기둥의 높은 생산성 타설을 거의 3시간에 할 수 있게 하였다.

색의 선택

건축가는 미를 위하여 색을 선정하였으나 도급자는 HPCC와 보통콘크리트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HPCC의 확인과 구분을 위하여 색을 사용하였다. 광물성 산화철은 HPCC의 적색의 주성분이 되는 것으로 건조분말로 공급되어 뱃칭플랜트에서 첨가되었다.

HPCC의 혼합비율

연구실 시험은 이들 35개 고강도 기둥의 시공에 약 150가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1.5의 HPCC를 요구하였다. 콘크리트 혼합비율에는 초기 및 최종강도, 온도상승, 높은 시공연도, 물탈 비율과 슬럼프 감소 등 고려해야 할 많은 인자가 있다. 요구조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콘크리트 혼합비율이 개발되어야 했고, 가장 적절한 비율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압축강도와 탄성계수가 조사되어야 했다. 140~200mm 사이의 슬럼프가 현장의 시공연도에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기술자는 실제 타설 3개월 전에 실험실과 현장에서 시험용 기둥을 만들었다.

유색기둥은 언급한 것과 같이 저층부에 한정되었다. 그 윗층의 기둥강도는 위치에 따라 점차 감소되었는데, 최상 10개 층에서는 60MPa와 40MPa까지 되었다. <표 1>은 유색콘크리트 기둥에 사용한 혼합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 e-타워의 기둥에 사용한 고성능 유색콘크리트의 혼합 비율

재료	혼합량(kg/m³)	비고
시멘트	460 시멘트 + 163 슬래그	ASTM C150 Type III - 슬래그
실리카흄 혹은 메타카올린	93	-
잔골재	550	석영
굵은골재	1027	현무암
안료	25	산화철
고성능 감수제	6.2	폴리카복시레이트
응결 지연제	3.2	키르복시락산
물	135	물결합비 0.19

HPCC의 타설과 양생

HPCC는 플랜트에서 현장까지 트럭 내에

서 혼합되었는데, 슬럼프시험과 타설 전에 현장에서 최소 8분 동안 계속 혼합되었다. 노동자는 크레인과 덤퍼버킷으로 HPCC를 거푸집 속에 충전하였고, 투입식 진동기로 콘크리트를 다졌다. 뽁뽁한 철근간격에도 불구하고 거푸집은 깨끗하고 평평한 콘크리트 표면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72시간~96시간 후에 제거되었다. 또한 HPCC는 좋은 점착력을 나타내고 기둥철근의 상부부터 바닥까지 자유중력타설이 가능하였다.

기둥의 길이는 주된 층의 바닥부터 천정까지 5.5m이다. 노동자는 다음날에 슬래브와 보의 접합점에서 기둥의 꼭대기를 타설하였다.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 강도는 40MPa인데 이들 부재는 최소 72시간 동안 거푸집 속에서 양생되었다. HPCC의 압축강도가 15MPa가 초과할 때까지 지속적인 양생이 필요하였다. HPCC는 0.19의 물결합제비(w/cm³)를 가지며 거푸집을 제거하였을 때 압축강도는 50MPa 이상이 되었다. 그 후 수분 양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HPCC의 관리

HPCC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인 조사로 슬럼프시험을 하였고, 실린더(100×200mm와 150×300mm)와 큐브(150mm) 공시체가 압축강도, 탄성계수 그 외에 온도 관찰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슬럼프 시험으로 결정된 HPCC의 시공연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슬럼프는 140~200mm까지 변할 수 있었고, 또한 주위 온도와 상대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콘크리트가 구조에 타설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시체를 만들었는데 샘플 콘크리트는 트럭 호퍼의 배출구에서 직접 채취하였다. 각각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약 4의 콘크리트만 운반하였다. 모든 트럭은 검사를 받았다.

150×300mm 실린더(ASTM C 39)로 결정된 HPCC의 28일 압축강도 의 평균치는 124.8 MPa, 최고치와 최소치는 149MPa와 109.8MPa였다. 표준편차는 6.1 MPa, 표준변동율은 4.9%였다. 28일 평균 탄성계수(ASTM C 469)는 47.7GPa, 표준편차는 4.2GPa, 표준변동율은 8.7%였다.

e-타워에 사용한 HPCC는 보충하는 건축물에 또한 사용한 30MPa 콘크리트와 비교될 수 있다. <표 2>는 e-타워와 보충하는 건축물에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질을 비교한다.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과 옳은 사용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브라질 시멘트협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연구 시험을 수행하였다.

e-타워에 HPCC를 사용한 주요한 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구조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고강도
- 조기 거푸집 제거를 허용하는 조기강도
- 고도의 내구성
- 높은 생산성과 재작업이 없는 쉽고 빠른 프로젝트 시공
- 보다 낮은 콘크리트 기둥 크립
- 보다 높은 탄성계수와 이에 따른 보다 적은 변형
- 건물의 사용공간 증대 등이다.

<표 2>에서는 사용된 HPCC와 보통 즉 더욱 전통적인 콘크리트 사이의 성질을 비교하였다.

생콘크리트와 경화콘크리트 양쪽의 결과는 우수함을 증명하였고, 건물이 완성됨에 따라 프로젝트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되었다. 필요 조건을 충족한 적용된 콘크리트 기술은 HPCC로 이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엄격한 재료선택 과정과 우수한 품질관리로 이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두가 선택된 콘크리트팀간의 긴밀한 협동으로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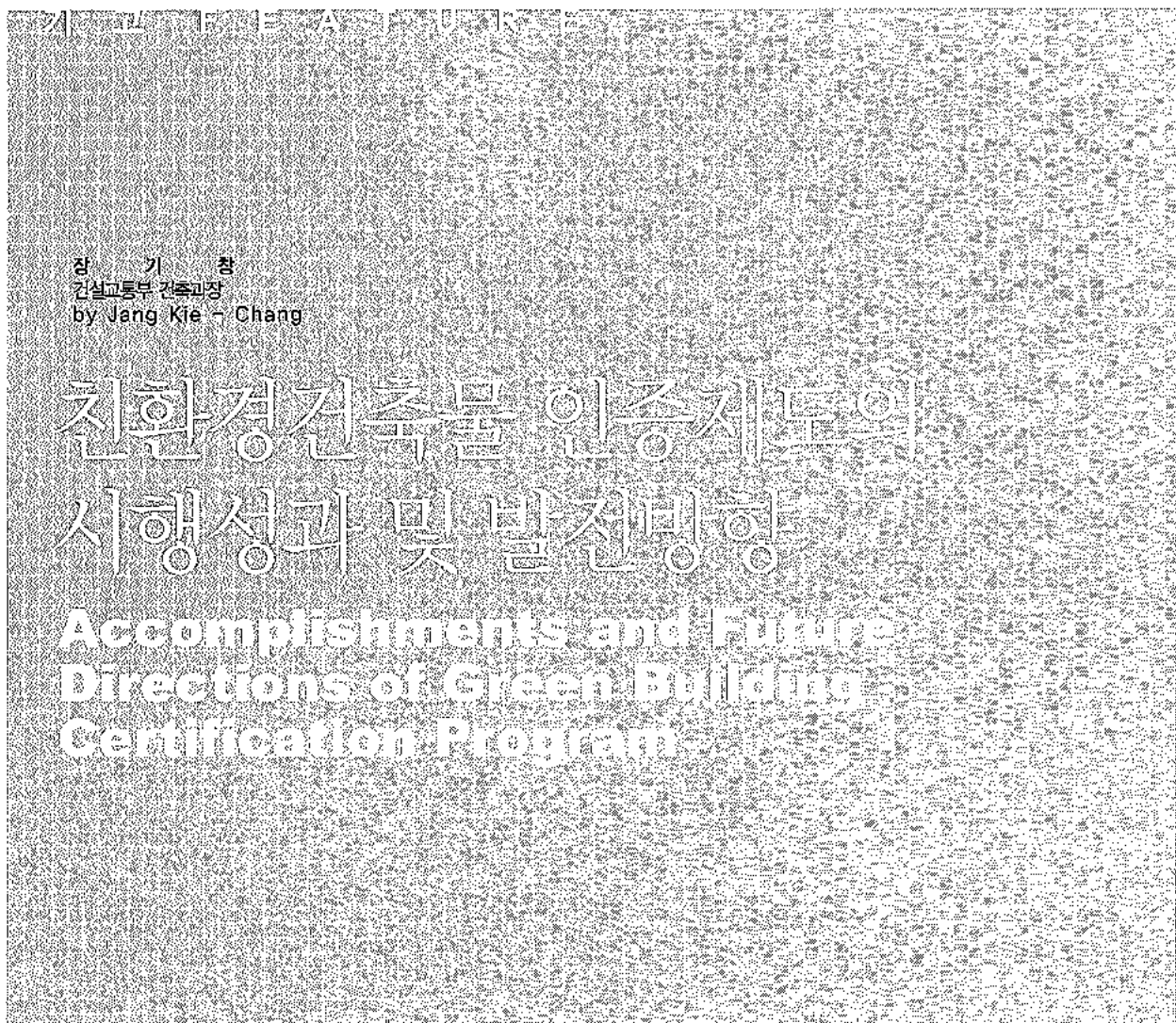
현재 고성능 콘크리트는 남미 전체의 공학 기술 직업의 중요성은 물론 건축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호기를 제공한다. 라이프 사이클과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설계와 건설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의 내용년수를 향상시키는 것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으며, 브라질 사람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표 2 : 30MPa 보통 구조용 콘크리트와 비교한 HPCC의 성질

성 질		HPCC f _c = 125MPa (약 1250kgf/cm²)	보통콘크리트 f _c = 30MPa (약 300kgf/cm²)
	7일	111 MPa	18 MPa
압축강도 (ASTM C 39)	28일	125 MPa	36 MPa
	63일	141 MPa	41 MPa
	91일	155 MPa	44 MPa
탄성계수 (ASTM C 469)	28일	47 GPa	33 GPa
취강도 (ASTM C 406)	28일	10.0 GPa	3.3 MPa
탄화깊이, 28°C 상대습도 65% CO ₂ 5%	91일	0	28mm
ASTM C 642	흡수	0.35%	5.1%
	비등후의 흡수	0.41%	5.8%
	기공부피	1.0%	13.2%
	비등후의 기공부피	1.1%	15.1%
ASTM C 1403	밀도	2500kg/m³	2320kg/m³
	모세관흡수, 72시간 후	1.2kg/m³	12.0kg/m³
	돌의 최대 내부상 72시간 후	0mm	99.0mm
클로라이드 이온 함량 (ASTM C 1202)		43C	8000C
초음파 속도 (ASTM C 597)		4950m/s	3250m/s
함매 시험 (ASTM C 805)		52	27

이 글은 2003년 12월호 concrete international에 소개된 Paulo Helene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외국 콘크리트 선진 기술의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성능 유색콘크리트(high-performance colored concrete, 이하 HPCC로 함)는 강도, 세장한 기둥, 유용공간의 증대 및 미를 제공하였다. (필자 주)

* cm : cementitious material



배경 및 목적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살다가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과거 산업사회의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현혹되어 자연을 단순히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파과한 결과는 우리에게 심각한 자연재해로 되돌아와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자연의 이러한 경고를 인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차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등장한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어 점차 확산되었다. 이제 전 세계는 개발과 환경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이후 CO₂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일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일련의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정책전환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오던 일련의 친환경인증제도인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와 "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를 통합하여 2002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는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걸친 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는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관련업계와 학계에 대해서는 환경기술발달 및 연구활동 등을 진흥시키는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관련 인증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등을 비롯한 선진 각 국에서 이미 오래 전에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건교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2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의 단계이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요와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인증제도 개요 및 운영방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시행경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1992년 기후협약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일기 시작함에 따라 1999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제도를 각각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제도가 중복되어 시행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관련업계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를 통합하기로 하고, 양부처가 공동으로 실무팀을 구성

하였다.

여러 차례의 실무협약과 학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통합제도의 명칭을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로 결정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2년 1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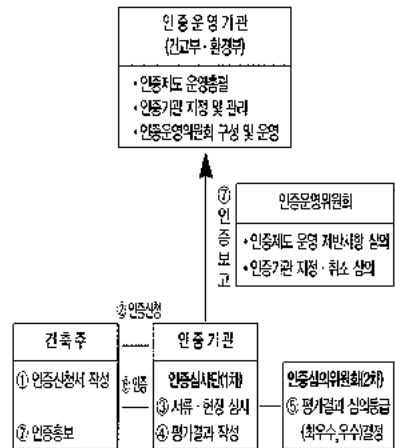
〈표 1〉 통합 전 인증제도

시행기관	인증제도의 명칭	시행기간	내 용
환경부	그린빌딩 시범인증	99. 10 ~ 00. 10	- 인증기관 : (주)녹색합의 인증원 - 대상 : 17개 공동주택
건교부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	00. 4 ~ 00. 12	- 인증기관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대상 : 8개 공동주택

인증제도 운영체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운영기관으로서 총괄적으로 공동 관리한다. 그러나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준의 제·개정 등 주요정책의 결정은 운영기관에 의해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는 인증제도시행지침은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제정·공고하며, 이 지침에 의하여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시행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기관명의로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며,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지만 건축허가 단계에서 설계내용만을 평가하여 예비인증을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인증기관들 간의 인증사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증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단의 1차 심사결과는 타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인증제도의 운영체계

1) 운영기관

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은 건교부와 환경부로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수립·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인증운영위원회

인증운영위원회는 본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대표기구로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상호 협의하여 인증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며, 10~15인의 인증위원으로 구성된다. 인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건의 심의기능과 인증기관의 지정과 감독 기능을 갖는다.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재민사향의 심의
- 인증제도와 평가모델에 대한 보완 및 개선
-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 올해의 최우수 인증 수여단지에 대한 수상 등

3)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을 평가하여 인증결과를 통보하고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건축물의 사후관리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인증기관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등 3개의 기관으로 다음과 같다.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주)크레비즈큐엠,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인증신청 및 인증절차

1) 대상건축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시행하고,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심사하여 예비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현재의 대상건축물은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주거복합 건축물 등이며, 조만간에 학교건축물이 인증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향후 인증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신청방법

① 인증신청방법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의 경우에는 설계시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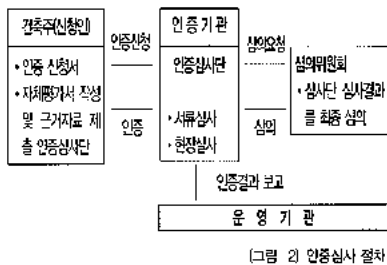
② 인증심사 절차

인증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

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인증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통해 인증을 수여하게 된다.

- 인증심사단 :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관리), 생태 환경, 실내 환경의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및 인증등급 판정

- 인증심의위원회 : 타 인증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당분야 전문가 각 1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심사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인증 결정



(그림 2) 인증심사 절차

③ 인증 심사내용

인증심사는 해당 건축물별로 별도의 인증심사항목에 따라 평가된다. 인증심사항목은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명료한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인증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인증심사항목의 개발과 함께 기존 심사항목의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가.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및 배점은 인증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르며, 각 인증대상별 심사항목과 배점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등급별 인증기준

인증 대상	평가분야	심사항목수	배점(총가)
주거복합	공동주택	4	44
	주거용	9	41
	비주거용	9	34
업무용 건축물		9	40

※ 주거복합건축물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면적비율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여 산정함

나. 심사방법 및 인증기준

• 심사기준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항목별로 평가 및 점수부여

- 인증 신청시 자체평가서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인증등급은 우수, 최우수 2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표 4> 등급별 인증기준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8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	65점 이상	(추가 20~36점)

인증제도의 성과 및 발전방향

인증제도의 성과

1) 공동주택 인증 실적

2003년도까지 총 5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예비인증을 받았다. 즉,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삼성래미안 약사2차 2,3단지 등 4개 단지에 예비인증을 수여하였고, (주)크레비즈큐엠에서 제주노형 e-편한세상 아파트에 예비인증을 수여하였다. 인증단지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 공동주택 인증실적

구분	건축물명	신청인	등급	인증일자	인증기관
1(예비)	래미안 약사 2차 2,3단지	상영물산업	우수	'02.5.13	주택도시연구원
2(예비)	래미안 약사 2차 4단지	상영물산업	우수	'02.5.15	주택도시연구원
3(예비)	인천상선 신성 미소지아아파트	(주)신성	우수	'02.8.30	주택도시연구원
4(예비)	안산고잔 7차 푸르지오 아파트	(주)유건영	우수	'03.6.3	주택도시연구원
5(예비)	제주노형 e-편한세상아파트	대림산업	최우수	'03.12.8	(주)크레비즈큐엠

2) 업무용건축물 인증실적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

<표 2> 단계별 인증신청 및 취득절차

구분	설계단계	사용승인	유지관리
인증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수여	인증신청 ↓ 인증심사 ↓ 1차인증신청
			↓
			2차인증신청
예비인증부터 신청하는 경우	예비인증신청 ↓ 인증심사 ↓ 예비인증수여	인증신청 ↓ 인증심사 ↓ 인증수여	
비고	• 예비인증서 발급 • 인증평가에 활용 • 인증유�효기간 : 사용승인까지		

구원에서 서울중앙우체국청사 등 총 2개의 건축물에 예비인증을 수여하였다.

〈표 6〉 업무용건축물 인증실적

구분	건축물명	신청인	등급	인증일자	인증기관
1예비	서울중앙우체국 청사	설계건축주	최우수	'03. 12.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예비	사천시 신축청사	사천시청	우수	'04. 2. 2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증제도 발전방향

앞서 살펴본 인증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인증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비하여 인증실적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인증을 받기 위한 친환경 수준이 현실적 상황에 비해 다소 높은 점과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인한 인증취득의 필요성 미흡 및 인증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결여되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새집증후군, 웰빙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지면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많은 노력과 비용, 친환경건축물의 건설로 인한 거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혜택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 감소되는 공공적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건축법에 마련하는 법제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증취득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맺는 말

앞으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법제화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면 보다 많은 건축물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에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조속히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인증기관의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건설회사와 일반국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우리 세대는 물론 우리 후손들도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건교부, 「건축서비스팀」 운영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최근 웰빙(well being)열풍 등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과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건축민원의 상담 및 안내를 전담하는 「건축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지난 3월 31일부터 질높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서비스팀에서는 단순한 법령질의와 진정 또는 조사가 필요한 민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간 건설교통부내 건축민원은 연간 평균 1만 여건(부내 최대)을 처리함에 따라 폭증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건축서비스팀 운영으로 민원인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행정부서(건축과)는 새로운 행정수요인 건축환경·문화 및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 등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등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개편으로 지속적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팀은 건설교통부 1층 종합민원실안에 건축민원서비스 전담공간을 설치, 건설교통부(건축과) 직원 3명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와 대한건축사협회 직원 2명 등 총 5명이 건축민원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문의: 02-2110-8437 (기존 건축과 2110-8172)

공간클럽 - 12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 a. 공간은 하나인가요?
- b. 공간의 증거
- c. 공간은 없다

2회

- a. architectonic space
- b. 노자의 공간개념
- c. 5차원공간

3회

- a. 누구의 공간인가?
- b. 열어붙은 공간
- c. 서랍속의 공간

4회

-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 c. 공간지능지도

5회

- a. 안티 중성의 공간
- b. 시간을 넣은 공간
-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 a. 공간의 밀도
- b. 공간의 전이
- c. 공간의 무게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 a. 쉬운 공간만들기
- b. 새로운 공간만들기
-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9회

- a. 공간의 구별
- b. 공간의 내입개념

10회

- a. 마음속의 건축공간
- b. 언어속의 건축공간
- c. 돈이 되는 건축공간

11회

- a. 공간의 위치
- b. 형태, 체계, 위치
- c. 위치적 공간구성

12회

- a. 창으로 보는 공간
- b. 시나리오 공간

13회

- a. 공간계획
- b. 공간디자인
- c. 공간의 끝

a. 창으로 보는 공간

Space through window

창은 내부공간에 빛과 바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서양건축의 역사는 마치 창을 얼마나 크게 뚫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건축의 목표인 것처럼 보여진다. 보다 많은 빛을 실내로 끌어들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창이 중요한 목표를 두었다. 조적조 건물의 특성상 창을 크게 뚫으면 벽이 무너지고 마는 제약으로부터 재료와 구조법의 혁신으로 건물의 모퉁이를 개구부로 만들 수 있거나 커다란 창을 벽면에 마음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은 건축공간의 품질 개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원하게 뚫린 창은 내부와 외부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에 개방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여를 했다고도 생각된다.



그림 1. 창으로 들어오는 빛과 전망

그러나 창이 커지면서 오히려 개구부를 막는 것이 건축적 전통이었던 한국건축은 창에 대해 다른 의미를 시사해준다.

가구식 목조 구조의 전통을 가진 한국건축은 기둥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부분이 개구부이고 모든 부분이 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구부를 막음으로서 문과 창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문과 창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빛과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 창을 크게 뚫는 것이 목적이었던 서양건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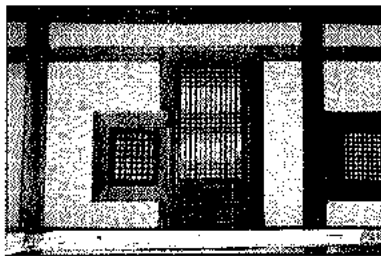


그림 2. 도산서당의 창

한국건축의 창은 기본적으로 사선을 염두에 둔듯하다. “창문을 열어다오”라고 외치는 로미오의 말처럼 한정된 공간으로서의 내부공간으로부터 시선을 밖으로 보내는 창구로서의 창문의 의미를 말한다. 한옥에서 창이 나있는 위치를 보면 방의 동서남북 모든 곳이 창이 날 수 있는 곳이지만 창은 대부분 마당을 향해 있으며, 창은 건물의 주축 방향과 일치한다. 그리고 건물의 주축은 남쪽의 햇볕을 계산에 두며 주산을 향한다. 즉, 창을 통해 항상 주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산을 바라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질 수 있겠지만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바깥세상을 본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를 시사해주는 것이다. 즉, 한국건축에서의 창은 빛의 문제나 환기의 문제가 아니라, 비록 풍수지리라는 중세의 장소 개념에 치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깥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한 철학적인 이유가 관련된 것이다.

항상 주산을 바라본다면 보다 많이 산의

의미를 생각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항상 바다를 바라본다면 상대적으로 바다에 대해 많이 생각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仁者樂山 智者樂水라는 말처럼 산을 바라보는 사람은 중후하여 옮기지 않는 것이 산과 같다는 뜻의 어진 성품을 갖게 되고 늘 자신과 하늘의 관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위에다 두고 있다. 반면 바다를 늘 보는 사람은 물을 좋아하여 두루 흘러 뱃힘이 없는 것이 물과 같아지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즐기기를 좋아한다. 흐르는 물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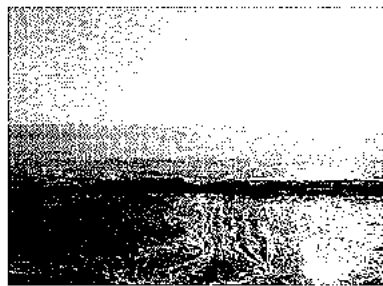


그림 4. 바다 : 智樂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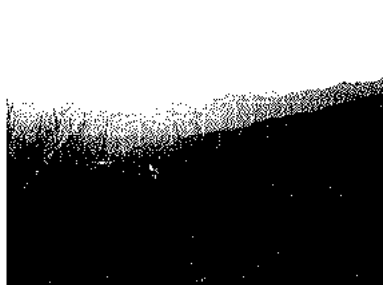


그림 5. 산 : 仁樂山



그림 3. 와암리 인숙마을의 배치도 - 건물마다 다른 곳을 투시하도록 건물의 주축이 엇바뀌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항상 새롭게 살게 된다고 한다. 바라본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수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건축에서의 창문의 설치는 그리 쉽지 않다. 고밀의 주거환경은 시선을 멀리 두는 것은 고사하고, 환기나 채광만을 위한 개구부의 역할로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항상 막힌 벽이나 창밖의 차양막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거주자에게 세상을 개방된 시각에서 보지 말라고 하는 미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 6. 현대도시의 바깥은 건물사이여 나있는 창

여기서 르 꼬르뷔제의 창에 대한 의미를 고려해 볼 수 있을 듯 싶다. 그는 건축적 시선으로서 창들을 제한한다. 보는 대상의 의미보다는 창들의 구성으로부터 건축적 시선의 의미를 강조한다. 마치 모더니즘이 사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주장하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에 의해 미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듯이..... 창들에 거주자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건축적 의미를 살리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창들을 제한한다. 마치 그림의 프레임 효과와 같다고 하겠다. 틀을 어떻게 갖다대는가에 따라 본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대도시에서 막힌 경

관을 푸는 좋은 시사점이 된다. 본질적 경관의 에메함에도 불구하고 멋진 창들은 우리의 시선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창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주변경관요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건축적인 해결로서 시선의 자유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데서 그 건축적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막힌 세상이라는 대상보다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갖는 건축적 도구로서 세상을 보게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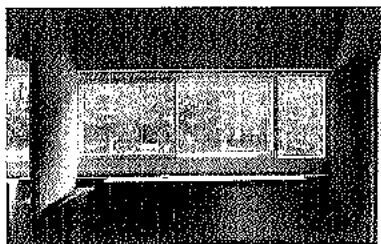


그림 7.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에 창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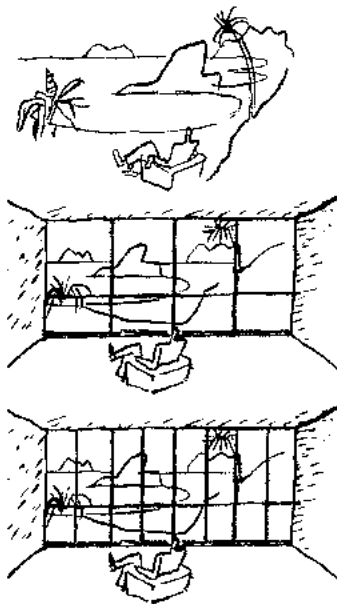


그림 8. 다른 창들로 빚어낸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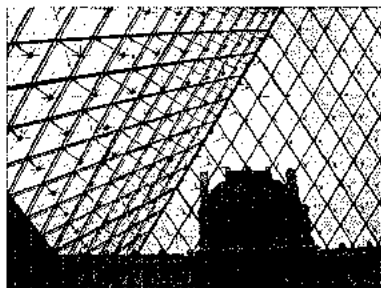


그림 9 창들 밖으로 보이는 경관-루브르궁

b. 시나리오 공간 scenario space

문을 열고 들어서면 조그만 유선형의 안내데스크가 사람들의 동선을 부드럽게 중앙홀로 유도한다. 충격적일만큼 거대한 중앙홀은 사람들에게 의외의 느낌을 주고, 홀에 나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면 시선의 앞에 조각품이 보여지면서 공간 속으로 관찰자를 이끈다. 홀을 나서 복도를 돌아서면 정면에 큰 문이 보이면서 목적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방에 들어서면 사방이 막힌 동향태의 틀 속에서 감정이 폭발한다. 뒤돌아보면 문밖으로 길게 나있는 길이 지나온 길을 회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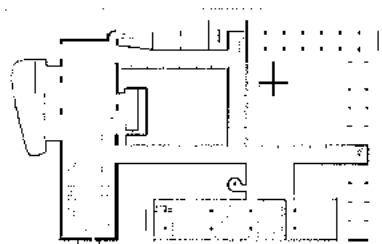


그림 1. 시나리오가 있는 건물, 라푸렛 수도원의 집

마치 하나의 영화를 보듯 건축물의 입구로부터 메인 홀까지 들어서며 느껴지는 감정들을 기술할 수 있다. 과정에서 파악되는 감정들은 메인 홀에서의 커다란 감동을 위한 전주곡처럼 들릴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과정마다의 감동이 누적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매일같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감동은 진부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한 번씩 구경 오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시나리오 있는 공간은 매우 인상적으로 남는다.

공간에 시나리오를 부여하여, 공간을 경험하면서 어떤 시나리오를 느끼게 해준다면 보다 풍부한 공간경험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기승전결의 구조나 발단-전개-절정-전환-결말의 일반적 이야기 구조는 인간에게 익숙한 패턴으로 발단에서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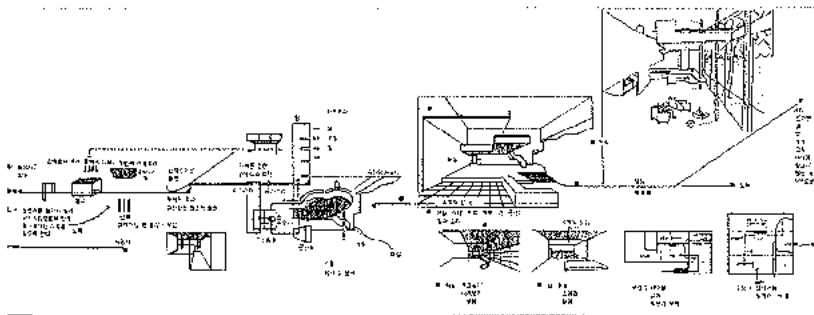


그림 2. 김현철의 공간박물관에서 보여 지는 시나리오

기 주제를 서서히 알려주며 전개에서 주제가 밀도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절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전환에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전환시켜 결말에서 다시 주제가 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공간은 일반적 구성원칙에 이야기라는 시나리오가 함께 이입되어 사람들의 공간경험을 풍부하게 한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재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재미를 주는 것은 시나리오 자체라기보다는 시나리오의 구성에 있는 경우가 많다. 어설픈 구성과 비약은 이야기의 주제전달 효과보다도 그 구성의 빈약함으로 인해 가치를 잃는다. 공간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가 있더라도 구성이 치밀하지 못하다면 시나리오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 것이다. 시나리오의 소설이나 영화에서 빌려올 수 있지만 공간구성의 기법은 건축가가 수련을 통해 얻어야 할 부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라고 강변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말로 하는 건축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건축 공간들을 보면 시나리오로서 많이 인용된다. 많은 유구가 사찰건축물로 남아있고, 종교적 이유가 없다면 이들 사찰들은 단지 건축물의 구경거리로서 방문하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사찰을 관찰자 중심의 시나리오로서 읽히도록 한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의미로서 사찰로 이어지는

긴 진입로, 일주문을 통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다는 통과 의의를 겪고, 사천왕문을 통해 세속을 벗어나는 입장이 강조된다. 경내에 들어서면 보다 경건해지며, 주변에 퍼진 요사채를 통해 경내에 기거하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킨다. 세인들의 중심공간인 강단을 돌아 사찰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며 중요한 장소가 되는 대웅전에 서면 그 규모와 정교함에 고개를 숙이고 만다. 여유가 있다면 대웅전 뒤에 주지 스님이 기거하는 암자에까지 이를 수 있지만 덤으로 여겨진다. 쉽게 정리되는 사찰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이지만 그 구성은 보다 복잡하다고 하겠다.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강조하기 위해 천왕문 안에는 사찰을 지키는 무서운 모습의 사천왕을 모셔두었고, 경사를 두어 서서히 사찰의 중심으로 오르도록 한다. 주변과 구별되는 돌바닥이 직선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솟아 있는 강단이나 범종각의 누 밑을 통하도록 하여 중요공간인 대웅전에 이르기 전에 어두컴컴함과 답답함을 잠시 경험토록 한다. 터널의 끝에서 디테일이 풍성한 다포의 대웅전이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며 사람들을 압도하도록 한다.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구성으로써 사찰은 종교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한 다양한 시나리오 공간은 건물의 구성을 위한 제약이 적은 오늘날, 비교적 쉽게 달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나리오의 달성이 건축의 목적

인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과거 조적조의 벽돌 구조 공간에서의 공간의 관계는 보다 단조로울 수밖에 없다. 벽돌구조의 건물은 방과 방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부터 방들의 연속관계를 통해 시나리오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방들을 통해 동일한 공간의 연속은 시나리오의 궁핍을 가져온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의 모듈을 합쳐 방의 길이를 조정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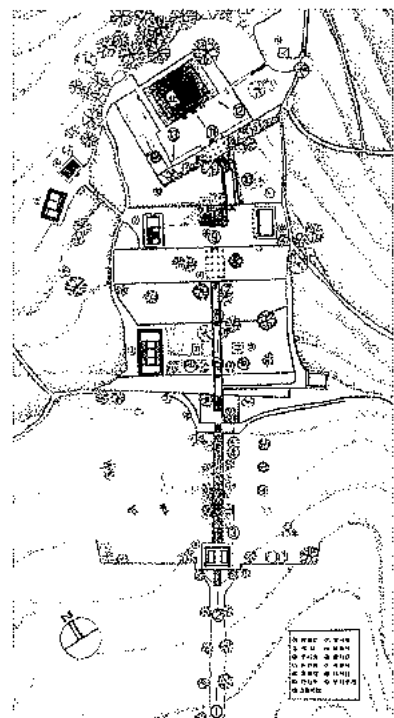


그림 4. 한국건축 시나리오-부석사 배치도

로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방에 나있는 창을 통해 공간의 변화를 주는 것일 것이다. 그곳에는 시나리오가 빈약하다. 그러나 벽으로 둘러싸인 단위공간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어필된다. 아돌프 로스가 설계한 그의 주택 평면에서처럼 방을 통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공간의 연속관계는 매우 재미있는 방의 연결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시나리오를 만들만큼 연속되지는 못한다.

기둥의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에 있어서 공간의 시나리오는 기둥의 관계로부터 유추될 수 있다. 등 간격을 이루는 기둥의 배치

를 갖는 교회 공간은 리듬을 통한 공간의 변화를 만든다. a,a,a, 또는 a,b,a,b, 등의 리듬을 갖는 공간은 공간이동에 있어서 느낌에 미묘한 차이를 주지만 시나리오로서 해석되기는 어렵다.

르 꼬르뷔제는 미술관 건물로서 나선형 건물을 제안한 적이 있다. 구경이라는 개념의 무한 연결을 임시하는 나선형 구조는 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한바퀴 돌아 나올 때 마다 한 곳에 대한 반복되는 공간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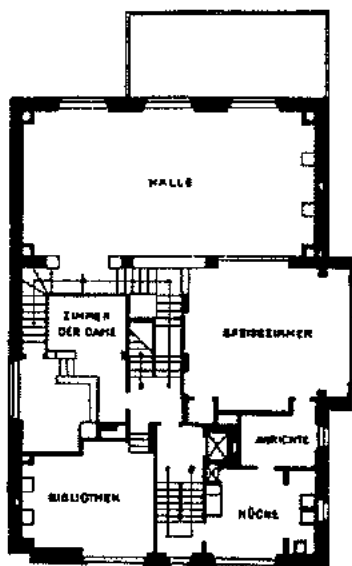


그림 5. 알바로 시자의 건물평면-광과 방의 관계

을 불러일으킨다. 르 꼬르뷔제는 건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공간 경험의 반복을 통해 건물과 인간을 유기적으로 엮어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복이 연속보다 우선의 개념으로 인정된다.

르 꼬르뷔제의 또 다른 건물 유형인 팔랑게비 평면형이 있다. 중앙의 한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을 이루는 팔랑게비형의 평면은 사각 박스가 갖는 무한의 대칭성과는 달리 회전의 의미를 건물에 부여한다. 한 쪽에서의 공간경험이 정반대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대조성을 분명하게 해준

다. 이에 대해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건축공간의 경험에 대해 대립되면서도 쌍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의미화를 강조한 것 같다. 대칭의 경험이 연속적 경험보다 우위에 선다.

조적조의 방 구조이거나 기둥의 연속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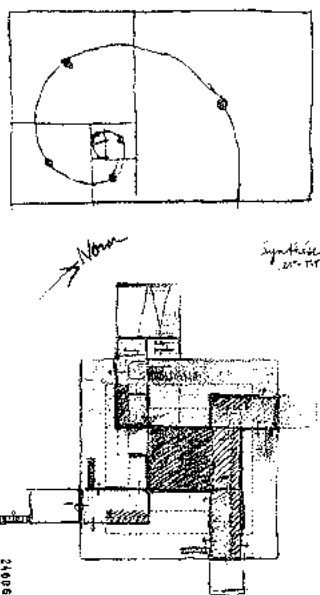


그림 6. 나선형 공간체계-미술관의 평면개념

조이거나, 또는 나선형의 공간구조이거나, 건축물에 보여지는 단순구조의 공간은 시나리오를 보여주지 못한다. 즉 시나리오의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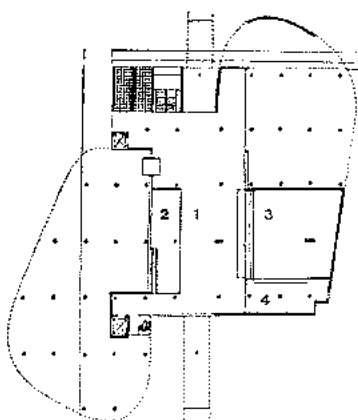


그림 7. 점대칭 공간체계-기센터

나 모양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이입하면서 감정의 흥분과 차분함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건축공간의 효과를 가져보고자 하는 시나리오형 건축공간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구성체계가 될 수도 있지만 건축적 구성의 효과가 반드시 시나리오에 의존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간은 하나의 공간 그 자체에 의해서 강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며, 두개의 공간을 대립시킴에 의해서 오히려 쉽게 공간을 파악하고 강한 이미지로 공간을 습득할 수도 있다. 또는 르 꼬르뷔제와 같이 공간의 반복이나 공간의 점대칭 등과 같은 형식의 법칙에 의해서도 의미 있는 공간은 만들어진다. 다만 이야기 구조의 시나리오 공간은 사람들의 정서를 건축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가정적 논리가 내재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圖

협회소식 kira news

2004년 건축사예비시험 실시

지난 5월 9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홍익대학교에서 2004년 건축사예비시험이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총 1,445명 출원에 821명이 응시하여 56.8%의 응시율로 작년(1,343명 출원, 688명 응시, 응시율 51.2%, 110명 합격)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5월 19일 발표한 합격예정자는 141명으로 학력·경력 심사(제출서류접수 : '04. 5. 27~5. 31)를 거쳐 6월 22일(화)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130쪽 참조)

우리협회 세무·회계정보 개설

우리협회는 세무·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세무·회계정보를 개설하여 지난 2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 정보는 정회원이 로그인하여 "참여광장 → 세무회계정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코너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은 ▲ 세무 정보 : 회계 및 세무와 관련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방법, 예규, 국세행정의 방향과 세법 개정 내용 등 회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상담 사례 :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상담결과 중 중요한 사항

한편 상담신청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민원 상담으로서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당해 질의지만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게재한 경우에는 E-Mail로도 회신내용을 통보해준다.

2004~2005 전국건축사 회원명부 제작 공고

우리협회에서 2004~2005 전국건축사 회원명부를 다음과 같이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료는 5월말 현재 본 협회 회원정보 프로그램에 전산 등록된 회원자료를 기준으로 제작할 예정이오니 소속 회원들께서는 필요한 정보, 사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 원고기준 : 2004년 5월말 현재 본협회 회원정보 프로그램에 등록된 회원자료
- 작성방법 : 2003~2004 회원명부를 기준으로 작성
- 게재내용 : 성명(한글/한자) / 생년 / 사무소 이름 / 사무소주소 /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 팩스번호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인물사진
- 문 의 : 본협회 홍보편찬팀 (02-581-5711~4)

○○○소장을 ○○○건축사로 부름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 존중을 위해 현행 000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000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자 및 장소 확정

• 개최일자 : 2004년 10월 7일(목)

• 장소 : 올림픽 역도경기장 (올림픽 파크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4년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우리협회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로 이루어진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4월 23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관계부처 공무원, 건축계의 실무 전문가, 건축학 교육자들이 함께 자리해 건축 분야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국가 간 상호 인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리였다.

1부 행사는 심재호(법건축)씨의 사회로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최재필/서울대 교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에 따른 제도 및 행정 문제 고찰(이관영/한인건축), ▷분과위원회 보고-인증원의 조직과 운영(정진국/한양대 교수), 인증절차와 규정(최명철/단우건축), 프로그램 인증 기준(이근창/엠앤디건축)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2부에서는 박한규(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발표자들의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간 차이점이나 5년제 과정 수료자 사이의 교육기간 격차 문제 해결방안, 건축전문대학원 문제 등에 질의하고, 향후 건축사등록원 등에서 담당하게 될 건축사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대학의 교수들만이 아니라 실무경험

이 풍부한 현업 건축사들을 강사로 활용할 것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내용은 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 설립추진위원회공식 홈페이지(www.kaab.or.kr)에서 볼 수 있다.

2004 건원세미나

2004 건원세미나는 2003세미나의 주제에 이어 '도시 속의 건축, 도시 속의 주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도시 속에 자리하는 건축의 모습과 주거단지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건축설계 및 단지설계의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기획, 건원건축 B2 세미나실(지하철 2호선 역삼역 8번출구)에서 오후 5시에 진행한다. 두 번째인 5월에는 20일(목)에 성균관대학교 김도년 교수의 '아파트 단지계획의 도시설계적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문의: 02-527-1585 www.kunwon.com

- 5월 20일: 아파트 단지계획의 도시설계적 접근 방법/김도년(성균관대학교)
- 6월: 도시에서 커뮤니티 단위의 이해와 설계에의 적용/한광아(연세대학교)
- 7월: 주거단지의 생활도로계획/제해성(아주대학교)
- 8월: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축/송인호(서울시립대학교)
- 9월: 역사도시 속의 집합주택계획-일본의 사례/안재락(경성대학교)
- 10월: 주거단지 내부의 도시적 공간-세계 각국의 길, 광장, 녹지, 공원 들여다보기/김홍규(연세대학교)
- 11월: 도시조직의 개념변화와 블록형 집합주택의 적용 가능성/손세관(중앙대학교)

도시와 환경 사진전 -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리고 서울의 기억'

80일 동안 세계 도시와 환경,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여행하듯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내용은 매그넘,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비스의 대표적인 작품들과 임인식의 50년대 서울의 풍경. '세계의 도시와 환경 사진전'은 저널리즘 사진분야에서 권위있는 사진작가들이 있는 매그넘(Magnum)의 대표 작품과 전 세계 다양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작품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증군 기자로 활동하며 서울의 모습을 공중에서 담았던 임인식 작가의 미공개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는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80일 동안 열린다. 이 행사는 환경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주최로 이루어진다.

문의: 환경재단 그린페스티벌 사무국

(02-725-3654 www.greenfestival.or.kr)

홍익건축 50주년 기념사업

올 10월로 50주년을 맞게 되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총동문화장 박 승)는 학과 창설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조형물 제작'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형물 제작은 동문을 대상으로 공모전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 외에 50주년 기념집 출간과 기념 작품전, 기념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재학생과 동문들의 공동전으로 열릴 예정이며, 각 기별로 일정한 전시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념집 출간을 위한 동문들의 건축, 인테리어, 사진 등 자료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518-7257

중국 청도시 「코리아타운」 국제현상설 계 공모

중국 천태그룹은 청도시가 2008 북경올림픽
수상경기 개최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2002년
10월 천태올림픽가든을 착공하고, 올림픽가든내
에 부지 12만㎡ 규모의 코리아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국제현상설계를 실시한다. 응모는 오는 7
월까지이며, 심사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응모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의: +86-532-5931920, 5931916

www.gdkcs.com

△ 개요

- 대회 내용
- 코리아타운 설계부문
- 주택 설계부문
- 유치원 설계부문
- 설계 요구
- 출입구가 2개 설치되고 녹지면적은 전체
50%이상이어야 함.
- 주택은 총 1,200세대로 12층 건물과 18층
건물로 설계되어야 함.
- 주택구조에 대한 요구

세대수	면적(㎡)	구 조
360	90-100	방2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1개
540	130	방3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2개
180	150	방4개, 거실1개, 주방1개, 화장실2개
60	170-180	복합식

- 주차장은 1가구당 1대의 기준의 설계하며
지하공간을 우선 이용하여야 함.
- 상점, 초등학교, 음식점 등 시설은 올림픽
화원과 공유하기에 설계에서 제외
- 유치원이 별도 설치되고 편의점, 미용원,
세탁소 등 편의시설도 설계되어야 하며, 아
파트관리사무소도 마련되어야 함.
- 유치원은 9개반이 설치 가능토록 설계되어
야 하며, 3층 규모에 면적은 3,000㎡ 내외
임. 모두 온돌식으로 설계되어야 함.
- 제출 자료
- 각종의 평면도(1:100), 주요 공간의 사용면

적, 각종 면적 및 건물 총면적

- 총 평면도(1:500)
- 입체도 및 해부도(1:100)
- 간단한 설명
- 필요한 확대도면, 루시도
- 실내 인테리어 도면 및 루시도

국제학생전시회 개최

"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 주제로

UIA의 International WorkProgram에서는
"Architecture and Renewable Energy
Source"라는 주제로 국제학생전시회를 개최한
다. 2005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UIA 총회 중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부주제는 "Environmental Architecture &
Sustainable Town - Environmental Friendly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이며, UIA 그
리스 지부에서 주최한다.

- 제출서류: 포스터(A3 사이즈 1장), CD 1
장, 언어(영어)

- 일정

- 등록 및 문의사항: 2004. 7. 15
- 제출마감: 2005. 1. 15
- 수상작 전시: 2005. 7. 4~11

- 문의 및 제출:

Http://www.arch.ntua.gr/Ares

email : env-ua@arch.ntua.gr

fax : +30 210 772 3592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Port-Louis시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Port-Louis시 행정당국
은 도시계획을 위한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을 발
표하였다. 작품제출양식은 A1 3장으로 1/5000
및 1/1000 스케일로서 평면, 입면, 조감도 및 스

케치 등을 포함하고 A4 최대 4장의 설계보고서
로 작성하면 된다. 참가지원서는 웹사이트
http://mpl.intnet.mu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심사는 Berzi Ozalp, architect (Turkey) / Ariel
Iglesias, architect, town planner (Argentina) /
Wafaa Hammoud, architect (Lebanon) /
Mammood Sairally, architect (Germany -
Mauritius) / Peter Drooge, architect (Australia) /
Ashok Bhabra (Netherlands), representing the
UIA / Hirendranath Rambhojun, architect
(Mauritius) / V. Saha, town planner (Mauritius)
등이 맡는다.

- 일정

- 등록마감: 2004년 6월 12일
- 작품제출마감: 2004년 9월 2일
- 심사: 2004년 9월 21일 ~ 23일
- 작품전시회: 2004년 9월 28일 ~ 10월 5일
- 참가비: 150 US\$

- 시상

- 대상: 40,000 US\$
- 우수상: Old Barracks & Victoria
Station Site : 15,000 US\$
North Station Site : 15,000 US\$

- 문의: Tel: + 230 212 0831 / 7

Fax: + 230 212 4258

E-mail : concourspl@servihoo.com

web : http://mpl.intnet.mu

제39회 센트럴 글래스 국제 건축 공모전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Asia Front Village)
주제로

1966년부터 일본의 센트럴 유리주식회사와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잡지인 '신건축'은 매년
센트럴 글래스 국제 건축 설계 공모전을 주최하
고 있다. 1976년부터 해외 참가가 처음으로 시
행되면서부터 국제공모전이 되었다. 적절하게

반영된 세계적 관점이 매년 공모전의 주제로 선택되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의 세계화 그리고 20세기의 주목할 만한 주제로서 21세기의 이슈가 되고 있는 듯하다. 문화는 기후, 자연지형, 역사 등에 의해 형성되며, 세계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한다. 21세기에 고유하게 전해내려 온 문화의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그 가치의 다양성을 활성화시키고,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전반적인 개념을 보다 많이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아시아 프론트 빌리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심사는 토요 이토, 오카모토 마사루, 구마 켄코 등이 참여하며, 코디네이터는 바바 쇼조가 맡게 된다. 접수는 7월 26일까지.

참조: www.cgco.co.jp/english/glass_house.html

2010년 상해박람회 기획 및 디자인 국제 세미나

상해 박람회 조직위원회, 상해 건설조직위원회, 상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하는 2010 상해박람회의 기획 및 디자인 국제 세미나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상해 시립 도서관 1555 Huanghai Zhonglu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박람회 사이트의 레이아웃 및 기능에 따른 배치, 기념비적 건축물의 스타일과 형태, 박람회 지구의 교통 문제 해결책, 박람회 지구의 지하공간 활용안, 박람회 행사 마친 뒤의 영구 파빌리온과 박람회 지구 활용안 등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에 이어 Zhujiailiao 방문, Songjiang 신도시 방문이 함께 이루어졌다. 램 쿨하스를 비롯한 건축가들이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 두번째 패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발표자 : 램 쿨하스 (Rem Koolhaas), OMA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 주제 : Doomed to Success?

- 개요 : 2010년 상해 박람회의 경제적, 인구 집 중적인 현 상황에서 박람회의 성공을 이미 확신할 수 있다. 상해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활기찬 경제를 가지고 있고, 상해는 세계의 가장 인구 밀도가 조밀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서 2010년은 문화 및 자성의 이상적인 순간이 될 듯하다. 그러나 커다란 가능성만큼 위험도도 크다. 만약 상해 박람회가 상해의 경제 기반과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기회로서만 사용된다면 상해 박람회는 실망으로 기억 될 것이다. 그러면 2010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가? 동아시아는 세계 속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한국과 더불어 중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조밀한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 중에서 상해가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다. 1851년의 첫 번째 박람회 이후로 박람회는 개최지의 경제력과 도시화를 반영하고 있다. 박람회 출범 이래로 세계 박람회의 기획에는 아주 작은 혁신이 있었을 뿐이다. 박람회장은 여전히 광활한 대지 위에 여기 저기 서있는 각국의 파빌리온들이 서있을 뿐이다. 상해 박람회가 이러한 개념을 깨고 처음으로 다른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램 쿨하스와 파워포인트 발표에는 골라쥬가 많이 사용되었다. 요즘의 박람회는 마치 디즈니랜드를 연상시킨다면 낭소적으로 얘기하고, 디즈니랜드를 배경으로 춤을 들고 서 있는 중동권 아이들을 골라쥬로 만들어서 보여주었다. 왜 각 나라별로 파빌리온이 따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번 상해 박람회에 서는 화환된 모습의 파빌리온이 소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유럽의 EU연합국은 한 파빌리온에 전시되어야 하고, 중국-한국-일본 역시 한 파빌리온을 빌어 서로를 전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아무래도 의도적인 듯, 한국을 항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넣었다.

- 발표자 : 피터 아이레스 (Peter Ayres), 아룬 그룹 (Arup Group)(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

- 주제 : 건축 형태에 대한 구조의 영향

- 개요 : 구조는 건물의 형태와 양식을 결정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벽의 뒤에 숨겨질 수 있다. 이 두가지 다른 접근방식은 적절한 상황에 건축적 가치를 가져 줄 수도 있다. 이전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거나 전시 파빌리온들을 예로 들어서 공사비와 시간, 운영시의 고려할 점과 이런 시설들의 박람회 이후의 재활용안에 대한 발표이다.

- 발표자 : 마틴 로바인 (Martin Robain), Architecture Studio 상해 박람회 마스터 플랜 국제현상경가에서 당선된 프랑스 회사

- 주제 : 더 나은 도시, 인생 · 2010 상해 박람회를 위한 상징은 어떤 것인가?

- 개요 : 박람회를 위한 상징으로는 기술과 자연의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정신을 들 수 있다. 상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는 세계 박람회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 세계 박람회는 19세기 유럽 공업사회의 상징이며, 20세기 초반 서구문명과 20세기 후반 형성된 지구촌 문화의 상징이다. 세계 박람회는 미래 정해진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마치 국장의 연극처럼 생존하는 이벤트라고 정의 내림(자료제공: 육은아 화림건축 이사)

제15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김수근문화재단에서는 제15회 김수근 문화상에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김병윤)'를 선정하고 6월 14일(월) 오후 5시에 공간사옥마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또한 시상식에 이어 '선유도 공원'을 주제로 제14회 수상자인 정영선 + 조성룡 씨의 전시회 오프닝이 있을 예정이다.

전시는 6월 27일까지 공간사옥전시장에서 열린다. 문의: 02-743-7281(담당: 최원준)

《심사평》

김수근 문화재단 전문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작으로 추천한 작품은 파주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김병윤), 우주 작업들(정기웅), 덕원갤러리(권문성), 아트레온(김준성+법건축 박영건) 등 4점이었다. 이 네 작품들은 각각 다양한 분야의 건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멀티플렉스 극장인 아트레온은 전면을 투명한 유리 벽으로 구성하여 블랙박스로부터 해방시켰고, 과감하게 1~2층에 광장을 만들어 축제적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기능과 신촌 대학가라는 장소성에 참신한 해법을 제시했고, 재료의 성질에 대한 치밀한 탐구를 세련된 디테일로 풀어낸 수작이다. 그러나 9개의 영화관을 적층해야하는 프로그램과 최대용적 속에서 부분적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는 상업건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인사동의 빛나는 성과”로 평가되는 덕원갤러리는 기존의 평범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새로운 도시적 기념물로 탈바꿈시킨 작품이다. 개성적인 건축적 어휘들을 시도하면서도 표현에 지나침이 없고, 현암사 리노베이션에서 보여준 건축가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반가웠다. 그러나 외관의 뛰어난 도시적 성과에 비해 내부공간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서, 리노베이션이라는 과제의 한계가 곧 건축의 한계가 된 아쉬움이 있다.

무주 작업들은 수년간에 걸쳐 무주군 한 지역에 십수점의 공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현한 건축군(群)이다. 건축적 혜택에서 소외된 무주군에 쏟은 건축가의 애정과 희생, 열악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이룩한 건축적 성취들은 높이 평가할 만하며,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빛나는 귀감이다. 그러나 작가가 아니라 대표작품에 수여한다는 김수근문화상의 수상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파주출판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섬지 않은 현상설계 절차를 거쳐 실행되고 있는 작품이다. 철학적이기까지 한 도시 설계 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거대한 규모의 건물을 효과적으로 분절하고 연결하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으로 담아냈다. 은근한 상징적 형태를 통해 도시

의 시작점을 이루면서도, 다양하고 변화 있는 내부공간들이 절제된 규율에 따라 구성되어 확실한 도시 커뮤니티의 장소를 형성했다. 단, 마스터플랜 상의 전체 영역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 완공작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지만, 뚜렷한 건축적 개념과 도시적 해석, 정공법에 가까운 공간의 완성도 등이 이미 입증되어 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작품으로 평가되어 올해의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상작 선정에 못지않게 이 상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 건축계는 매우 다양한 층위의 활동들이 벌어진다. 도시설계에 가까운 거대 프로젝트에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의 경계에 산업, 업무, 공공서 시설부터 전원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와 유형을 막론하고 완성도와 건축적 질에 대한 차이도 사라져간다. 외국건축가의 국내작품, 공동작업에 대한 크레딧, 단계별 완공이 벌어지는 작업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립할 필요도 있었다.

논의 끝에 다음 해부터는 ‘지난 1년간 완성된 작품’이라는 기계적 시간의 제한을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작품’으로 넓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영역과 경향의 작품들을 수용해야 할 필요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작가의 치열한 고뇌에서 얻어진 건축적 개념들이 형성되고 건축적 완결성을 동반해야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다.

올해의 수상작은 물론, 후보작들의 성과를 되새기면서 해당 건축가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축하를 드린다.(대표집필 김봉렬)

시간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사례

그 동안 대부분의 기술관련 서적들이 상세한 기술 설명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 책은 발표용 자료를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보다는 대표적인 사진 및 그림 등으로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 책은 제1장에 구조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제2장에 종로타워, 아셈타워, Bank of China Tower, Jin Mao Building 등 13개 국내외 초고층 건물사례를 소개하고, 제3장에 초고층 건물 관련공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윤성원 · 주영규 공저/223쪽/15,000원/도서출판 구미
서관 발행(02-333-1101 www.goomibook.com)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단지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enter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임동건 · 금두연) + (주)단우건축사사무소(최명철 · 강영건 · 심우근)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56-1번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내
지역지구 자연녹지, 학교용지
용도 대학원교육연구동, 생활과학대학, 보건대학원, 행정대학원
대지면적 17,100.09㎡
건축면적 8,488.52㎡
연면적 52,333.00㎡
주차대수 247대(지상주차 22대)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외부마감 적벽돌,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THK 18 복층유리, THK30.7 접합복층유리(행정대학원 도서관)
설계팀 회람 : 이정후, 정진환, 김상원, 김정희, 송상영, 이인수
단우 : 최홍연, 윤재환, 최현영, 유철환, 이합희

호흡..... for human

-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술 연구 발전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호흡 with nature

-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 공간을 계획하여 건축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단지를 구성

호흡 with complex

- 성격이 서로 다른 학과들의 중심에 중앙 광장을 형성하여 상호 교류, 호흡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호흡 in campus

- 캠퍼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종합 교육연구단지로서의 Identity를 갖춘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1세기 세계수준의 종합 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의 발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단지	110
청주 문화방송(주)사옥	112
건국대 서울캠퍼스 제2사회과학관	118
대전하기중학교	122
대전반석고등학교	124



청주 문화방송(주) 사옥

Chung-Ju MBC Office Building

당선작 /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만 · 김태집)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52-8번
지 외 15필지

지역지구 자연 녹지 지역, 방송, 통신 지구

용 도 방송시설

대지면적 17,063.00㎡

건축면적 3,049.57㎡

연 면 적 9,059.95㎡

건 폐 율 17.87% (법정 20 %)

용 적 륜 37.83% (법정 50 %)

구 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계획 73대

외부마감 외벽: 알루미늄 패널, Wood, Zinc

지붕: Wood, Zinc

창호: T19컬러 복층유리

설 계 팀 한기영, 송지연, 장명희, 권성근, 이운수,
김평중, 정진우

Flying Tube

주 매스를 지면에서 들어올린다.

지면으로 자연은 흐르고, 연결되며, 청주사를 향해 열려진 시야. 첨단 디지털 미디어 방송국으로서 청주의 Landmark로 자리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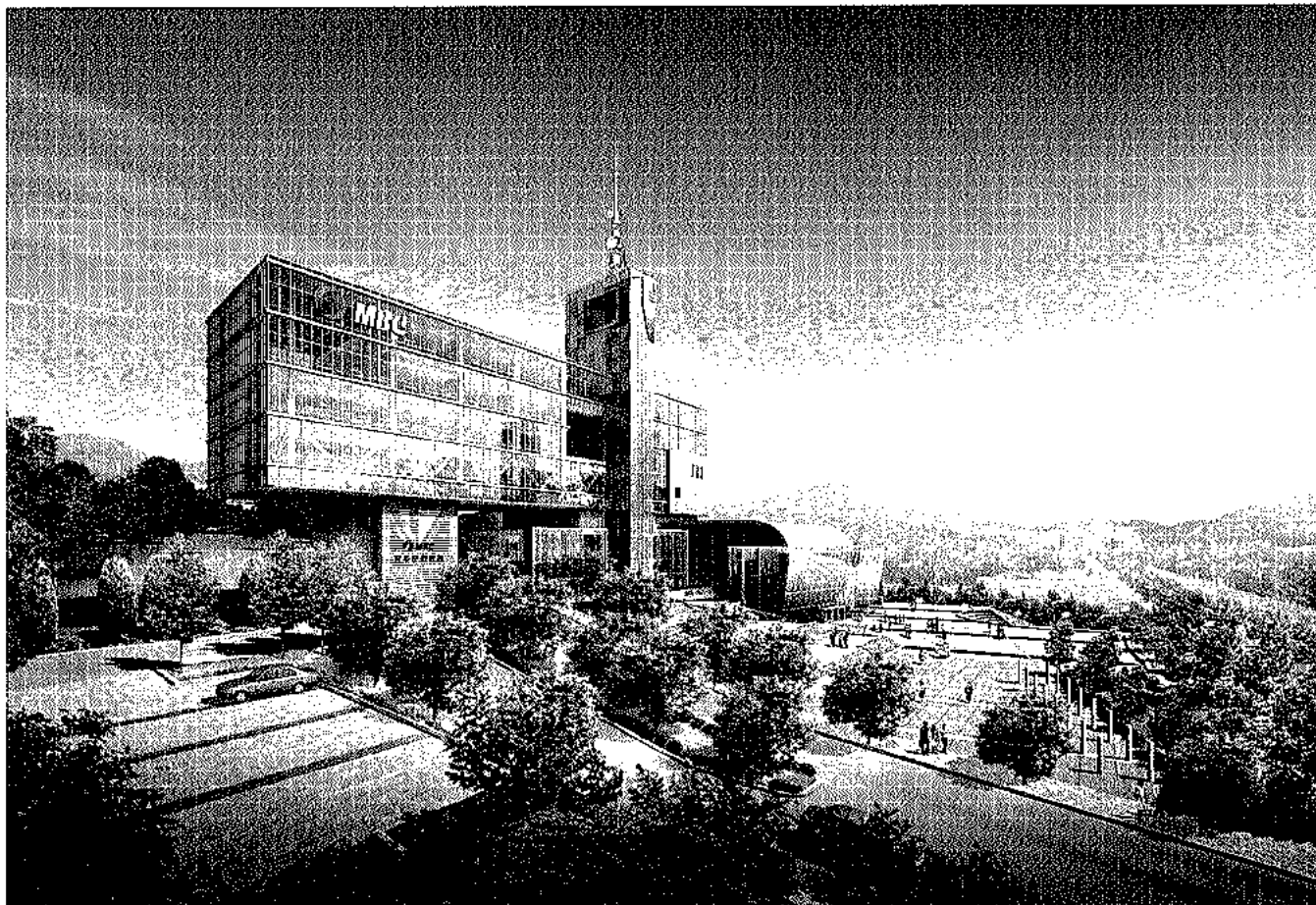
현재는 자연녹지이나 향후 택지개발지역으로 예정된 대지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대지의 북측으로 도심에서 보행자가 주로 유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지의 레벨을 결정함으로써, 자연과 지역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였다.

도시의 가로축에 순응하여 건물을 배치하고, 기존 지형의 흐름과 방향성을 살려서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특히 전면에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TV아외무대, 야외 공연, 지역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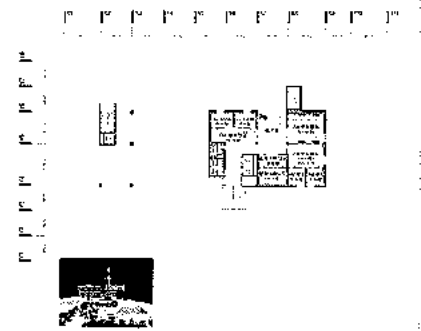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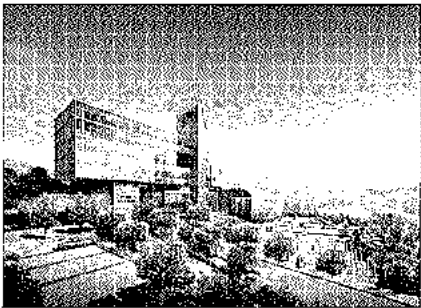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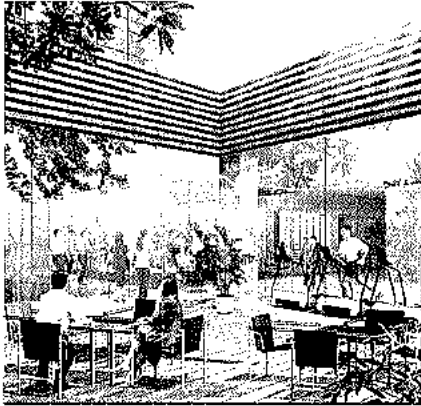
방문객 주차장을 프로그램주차장으로 계획하여 야외행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지역 변경에 따른 중축시, 수평중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방문객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로 수익시설이, 하부에는 수익시설을 위한 주차장이 되도록 배치를 하였다.

깨끗하게 정돈된 큐빅 형태의 상부매스와 대지 콘타에 순응하는 자유롭게 계획된 하부매스가 조화된 공간구성으로서, 공적공간은 하부에 계획하고, Security 및 영역성이 필요한 제작 및 업무공간은 상부에 계획하여 설비 및 동선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상부 매스 안에 Void공간을 마련하여 여유 있는 야외휴게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장래 중축 및 기능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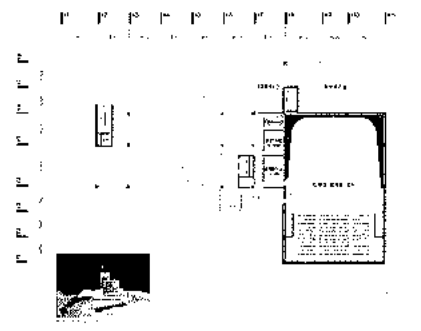
건물자체가 어디서나 촬영가능한 세트가 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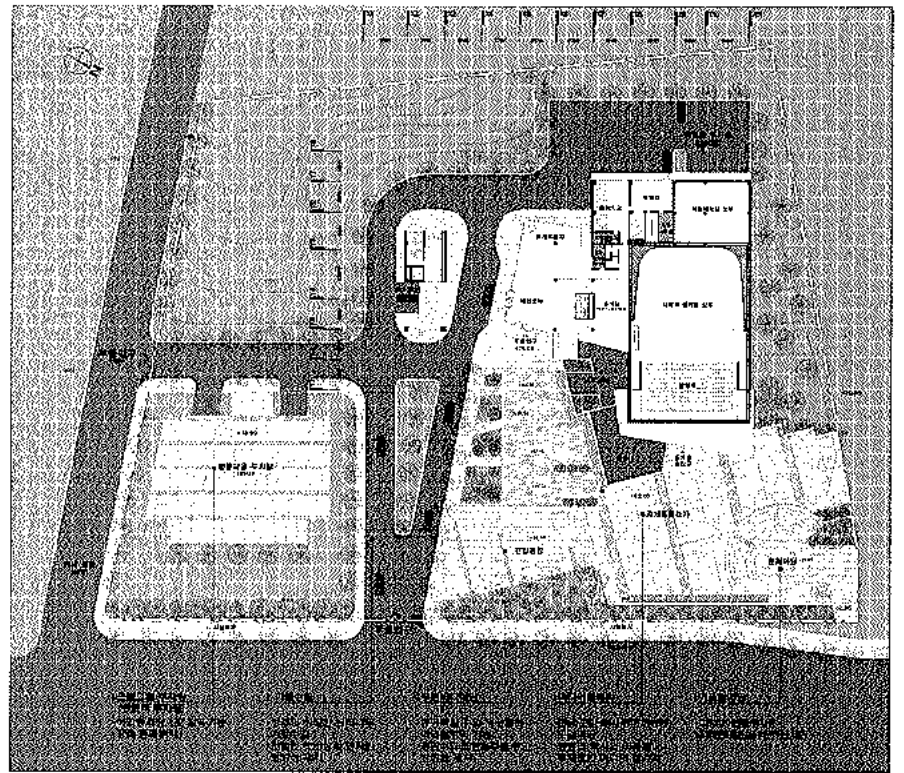
있도록 하였고, Screen Glass 등의 하이테크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래 방송산업을 주도하는 첨단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목재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조경계획과 어울어지는 환경친화형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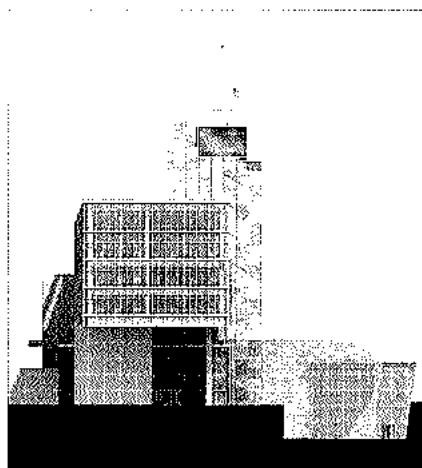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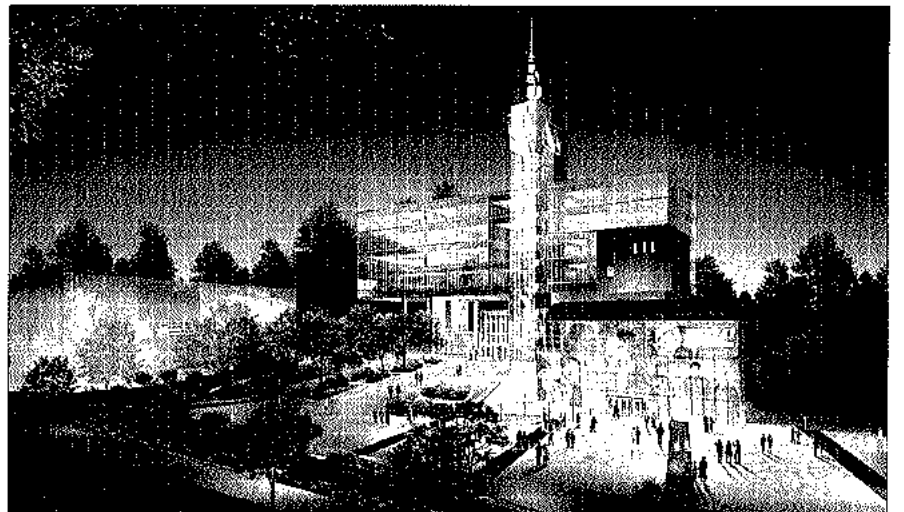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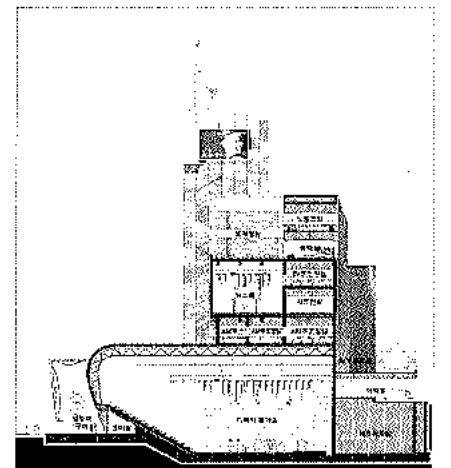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베치도 및 1층 평면도



좌측면도



단면도

청주 문화방송(주) 사옥 Chungju MBC Office Building

우수작 /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
(아관표)

대지면적 17,063.00㎡
건축면적 3,011.29㎡
연면적 9,052.15㎡
건폐율 17.65% (법정 20%)
용적률 35.08% (법정 80%)
구조 SRC
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
주차대수 72대(장애인주차5대, 대형버스3대 포함) - (법정 70대)
외부마감 외벽(알루미늄 복합패널+골강판), 창호 (T24절리복층유리 + S.P.G)
설계팀 이인 부장, 심재균 차장, 권영민 과장, 박은희 대리, 김성민 대리, 김홍석 소원, 박정만 소원

프로로그

청주 문화방송 사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진 직자심경으로 대표되는 청주시의 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방송국을 체감하게 하고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송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획대지는 가경택지 개발지구 외곽의 순환도로에 접한 곳으로 울창한 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급적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숲을 보존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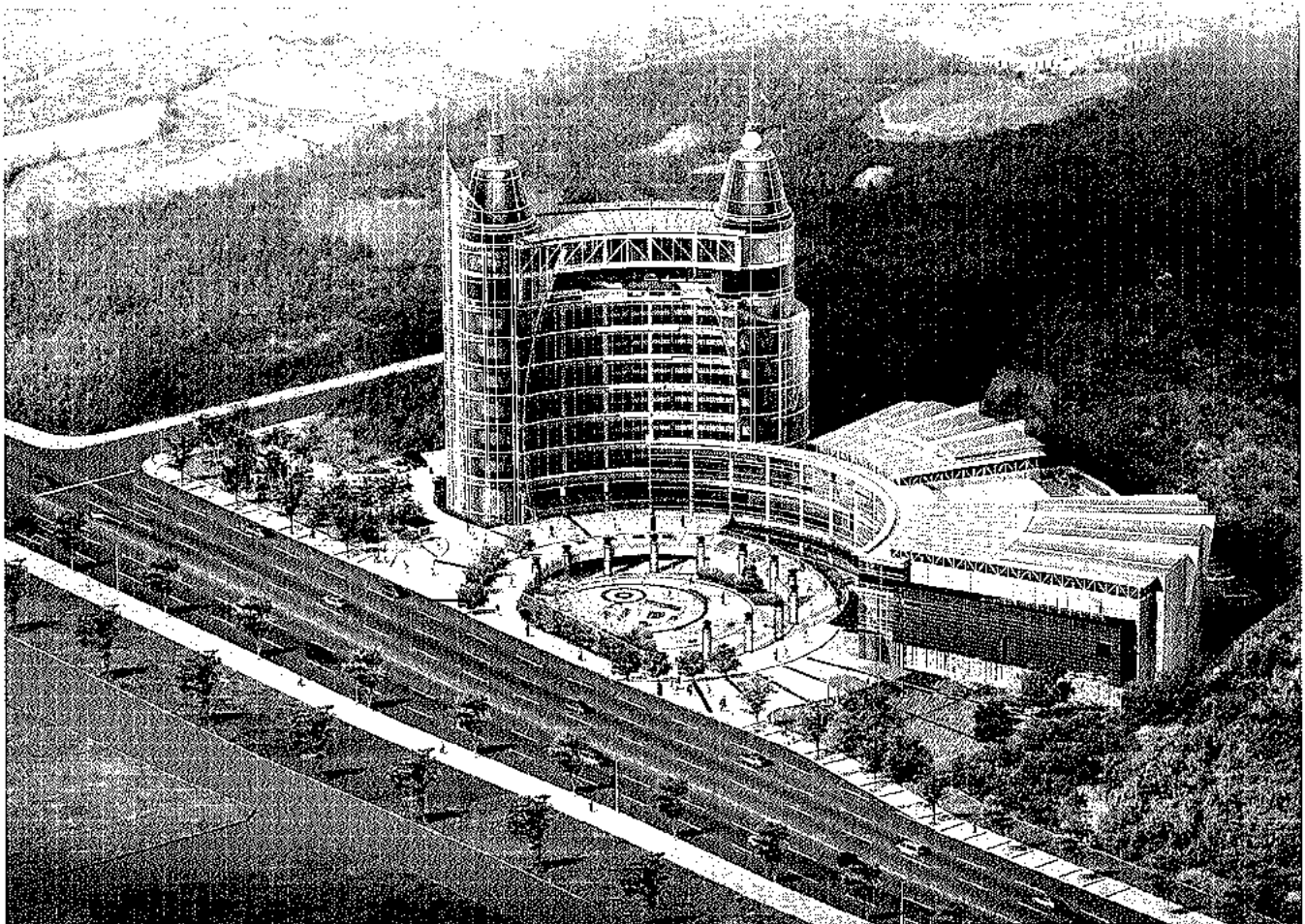
배치계획 및 평면계획

- 방송국 사옥은 숲을 배경으로 하고 전면도로를 따라 길게 놓여진 시설녹지, 잔디광장과 연결된 원형 광장은 휴식, 문화공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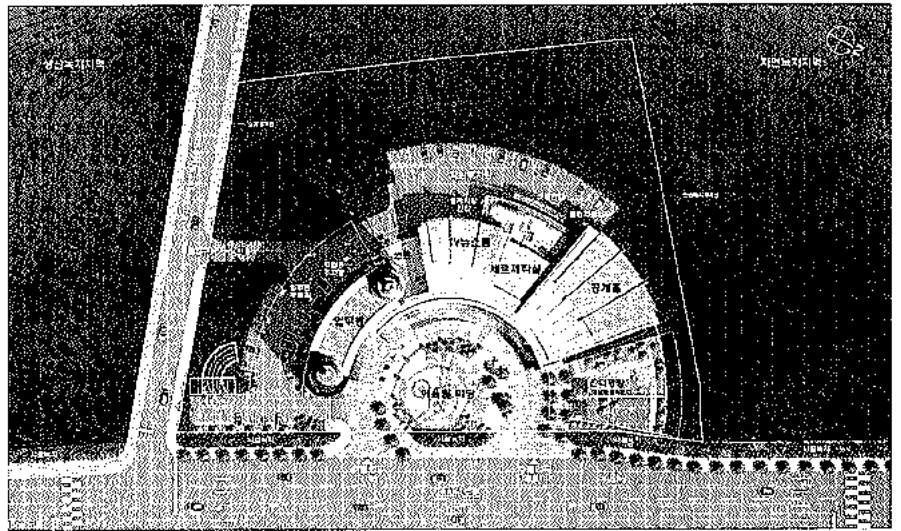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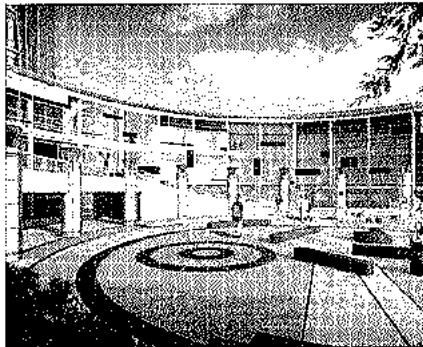
- 원형의 평면에서 간결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유지하고 고층부의 휴게공간과 옥상의 가능한 많은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준다.
- 내부와 외부공간을 연계하기 위하여 실내의 일부공간을 녹화하고 필요시 외부공개방송, 시민참여행사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다.
- 시민 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공간을 시청자(관람자)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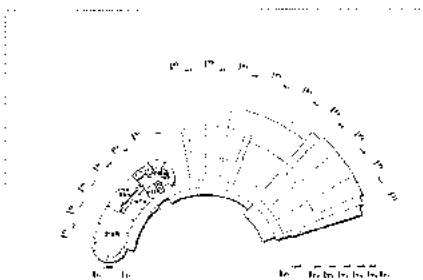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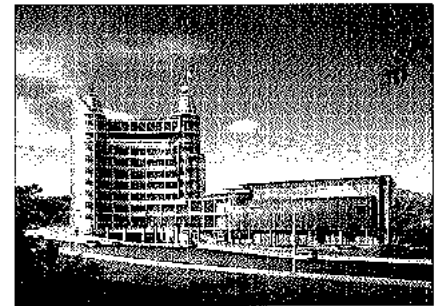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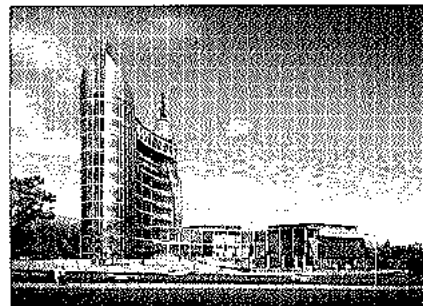
- 두개의 원형 타워는 새로운 방송국에 강한 특징을 주며 입면의 곡선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인 전파의 파동을 시각화 한 것이다. 또한 저층부 우측벽면은 청주의 문화상징인 직자심경의 활자모양을 본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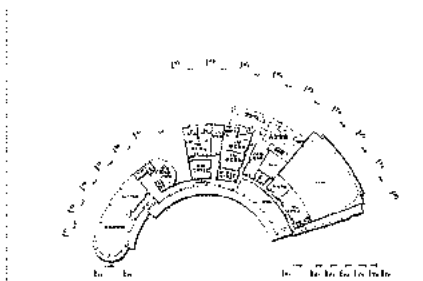
- 높은 건물입면의 곡면 선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인 전파의 파동을 시각화한 것이다.
- 기존 경사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전면에 중심 광장을 두었고 광장에서 지하층, 1층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며 1층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낮은 3개의 단을 거치며 시각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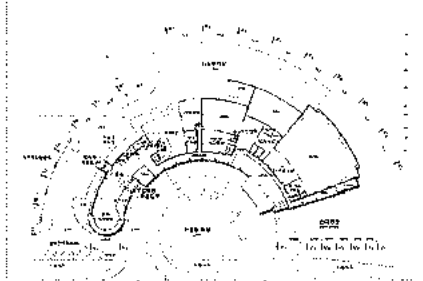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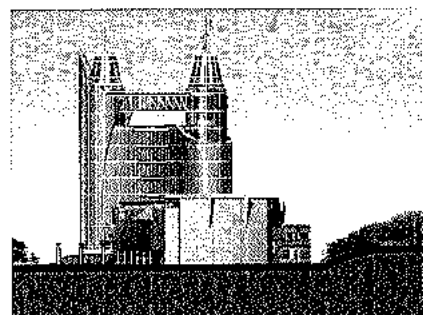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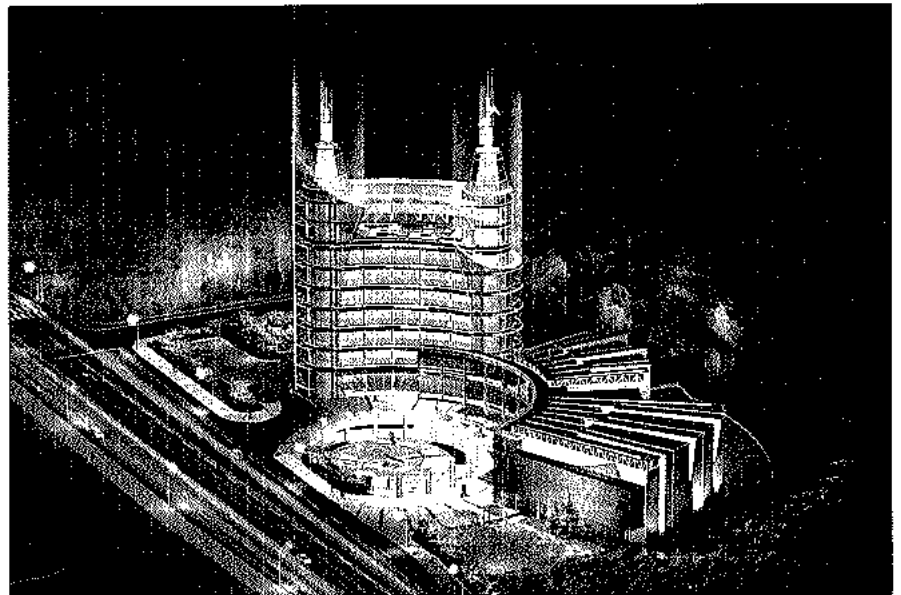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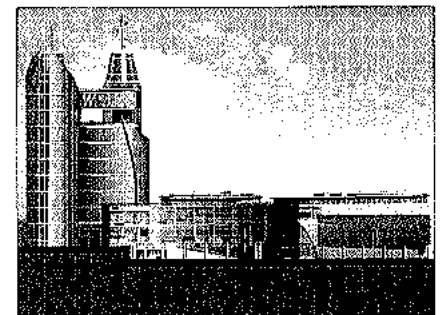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청주 문화방송(주) 사옥 Cheongju MBC Office Building

가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G
(김기웅)

대지면적 17,250㎡
건축면적 3,351.66㎡
연면적 9,063.24㎡
건폐율 19.43%
용적률 52.54%
구조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주차대수 지상80대, 지하27대(장애인주차6대 포함)
(법정 : 70대)
외부 마감 스테인레스 스틸, 두께24mm 복층유리, 강화유리
설계팀 홍성욱, 최웅, 이기환, 이정희, 유현석,
채현정, 송민주

청주시는 교통 및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국제화 시대에 도약해 나갈 부도심권 및 문화중심지역으로서의 발전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청주 문화방송은 청주지역문화의 중심점으로서의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정보매체로서 미래의 방송환경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람직한 업무환경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벤트, 전시, 홍보, 관람, 방송제작체험 등에 이르는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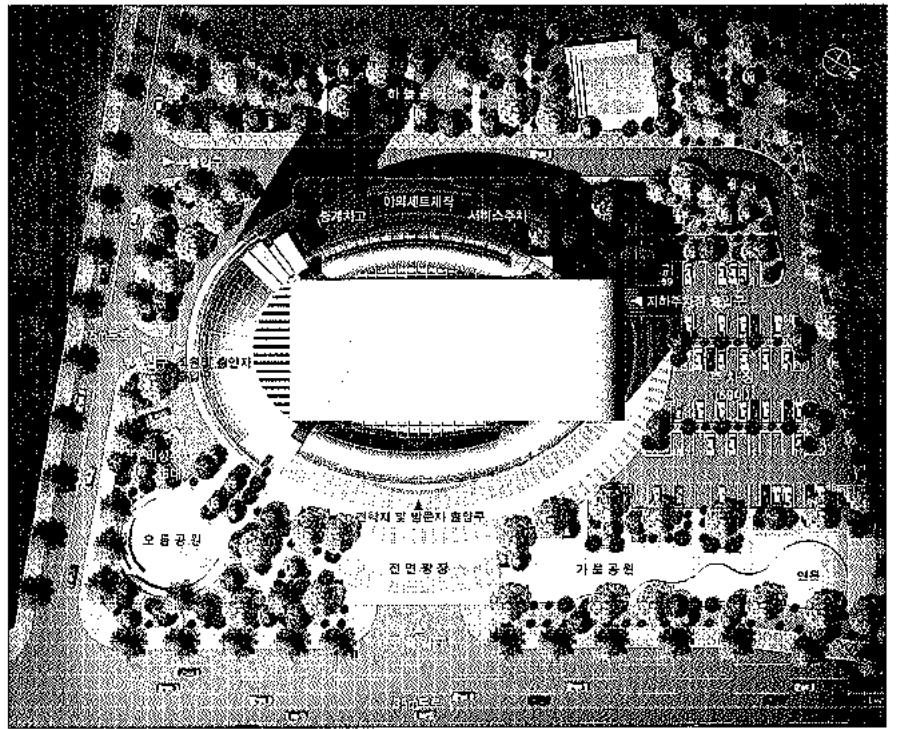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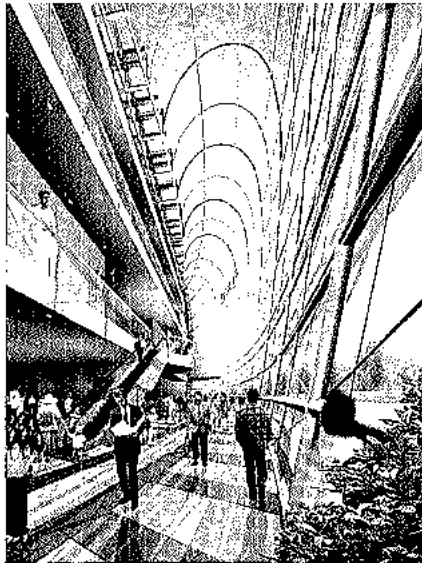
청주지역문화의 중심점으로서의 중심성과 청주문화방송만의 독특한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친근감을 제공하는 유선형 매스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순응한 매스를 조합한 결과이

며 첨단정보매체로서의 미래지향적인 형태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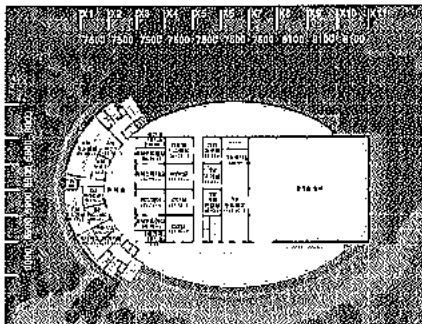
총체적인 종합문화시설로의 방송공간을 위하여 일단 건물을 전면 도로측에서 후퇴시킴으로써, 전면부 진입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휴식공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지역문화 시설로의 역할을 위한 열린 외부공용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대지 경사를 이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형의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제작자와 방문자의 출입동선을 분리하였으며 관람객 출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공개홀을 배치하였다. 사무영역은 채광, 조망 및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영역에 따라 층별로 분리되었다. 제작과 송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보도국과 뉴스 STUDIO를 통합하였다. 또한 세트 관련 시설과 스튜디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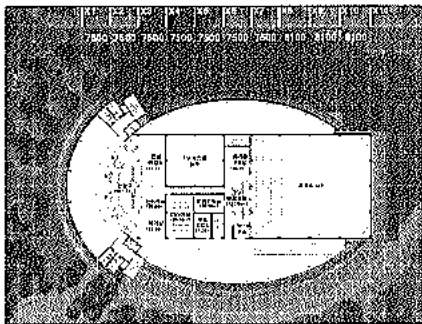
하였으며 이후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하였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공용공간을 극대화하였으며 IBS 수용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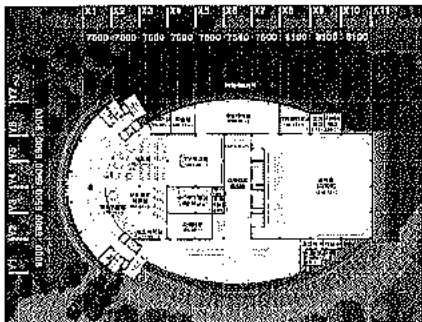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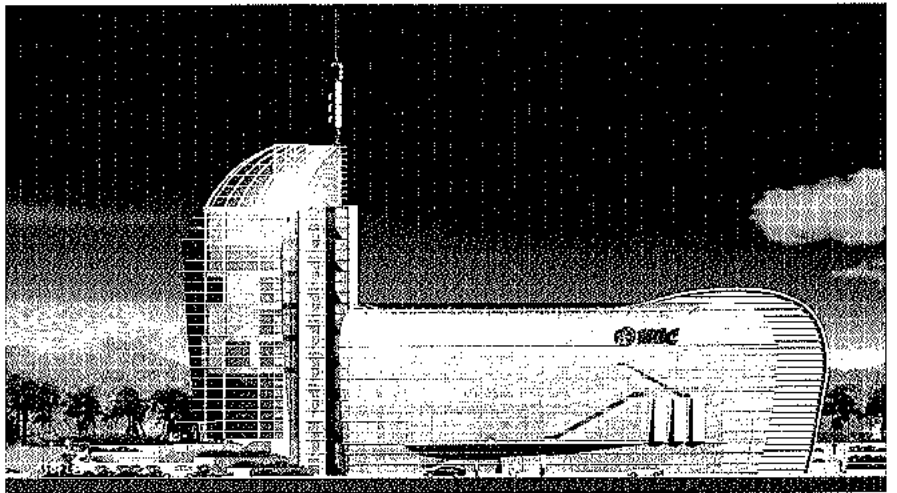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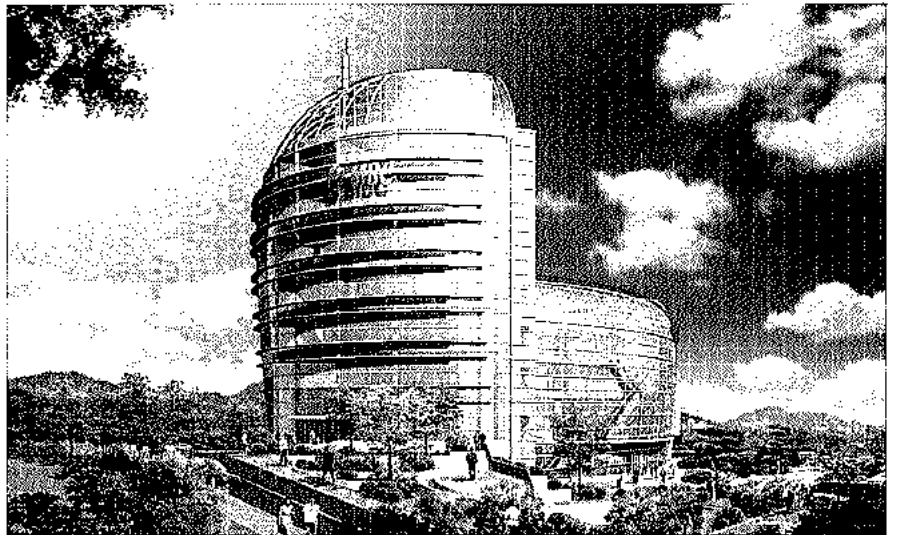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제2사회과학관 College of Social Science in Konkuk Univ.

당선작 / (주)간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광민 · 김태집)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지구), 일반비관리지구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440,218㎡
건축면적 9,830.19㎡
연면적 1,907.53㎡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경량 철골 구조
주차대수 계획 43대
외부마감 외벽 : 화강석, 지붕 : 철근콘크리트 + 경량 철골조, 창호 : T-18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태성, 김종선, 이의진, 황성환, 권성근, 박지현, 유혜나, 박지현, 박진태, 정진우

환경

건국대학교 제2사회과학관은 캠퍼스 북서측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며, 계획 부지 내에는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 두 그루와 보존 녹지가 인접해있다. 이 계획안은 캠퍼스 내 녹지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중앙 광장과 연계한 조망권과 행(向)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물을 계획하였다. 자연스러운 동선의 유입과 주위 경관과의 흡수 및 조화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녹지를 보존하고 기존의 지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간 질서에 따른 유기적인 구성

이 건물은 인문사회과학Zone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심 건물로서 기존의 사회과학관과 사범교육관의 사이에 위치하며 각 건물간 연결 통로를 갖는다. 자연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면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진입동선을 갖도록 계획하

였다. 유동성이 큰 저층부에 강의실을, 고층부에 연구실을, 매개 공간에 행정실을 두어 각 기능의 효율성을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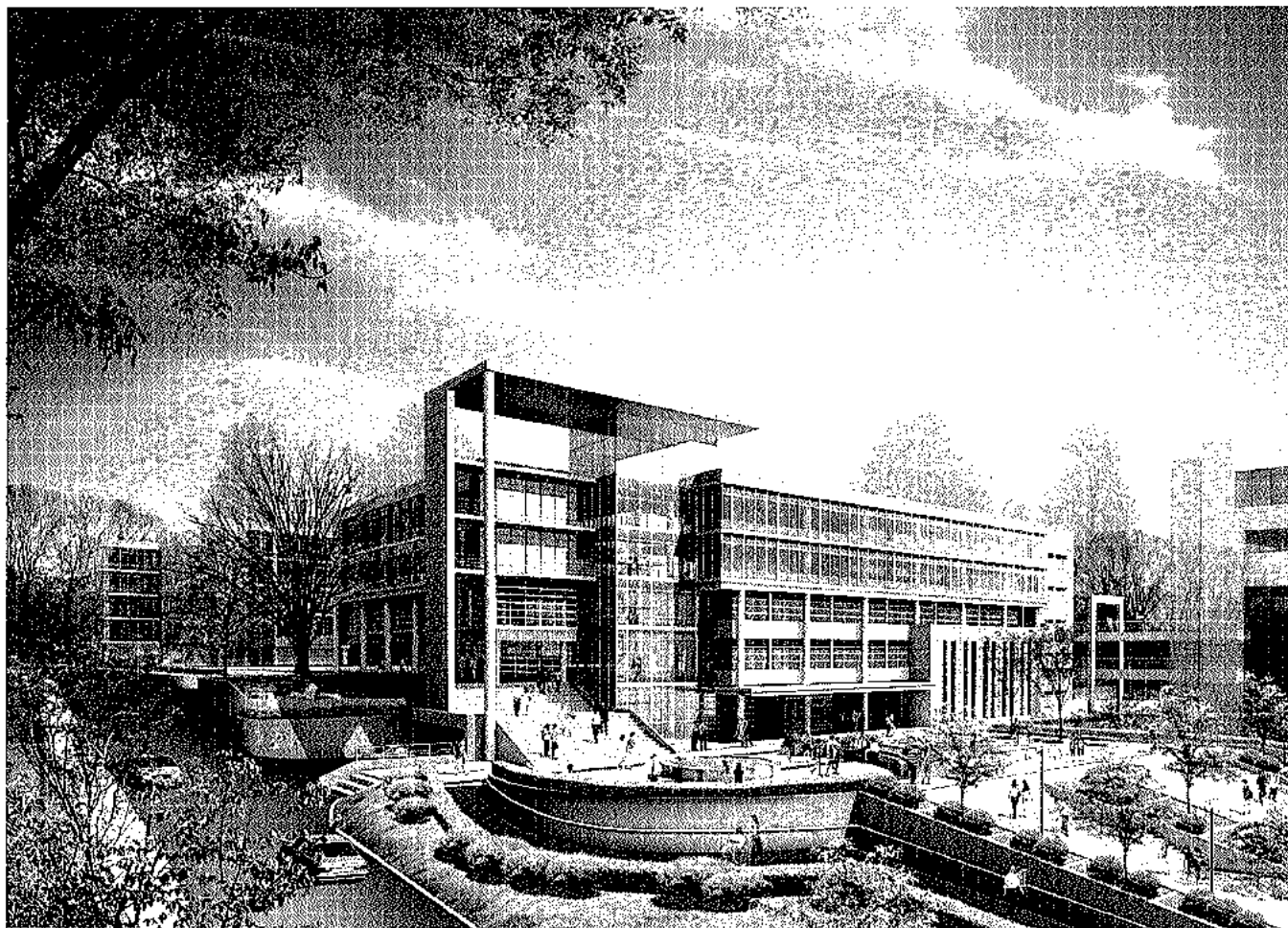
매스 및 공간구성계획

크게 연구실중심의 정적인 영역과 강의실과 학생 화실 중심의 동적인 영역, 일반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의 중소형 공간과 소강당, 대형강의실 등의 대형 공간으로 매스를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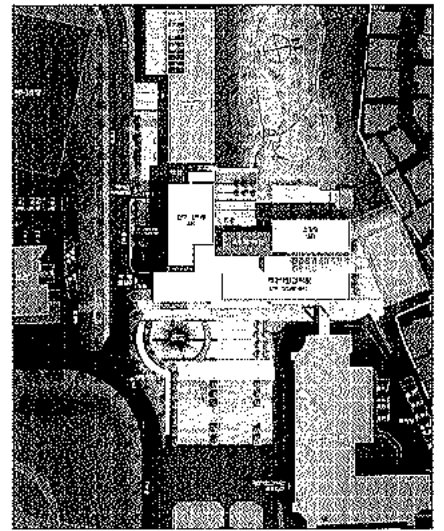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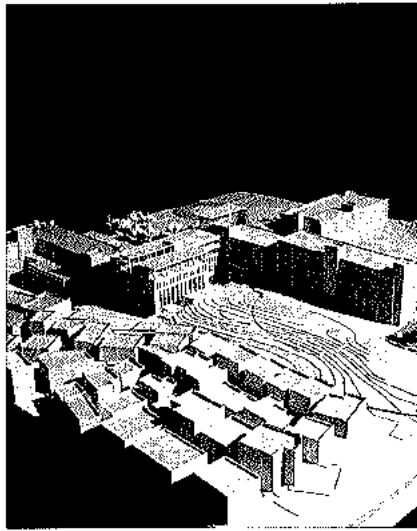
강의실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여 단순하게 계획하였으며, 지형의 레벨 차와 좋은 향과 조망을 적극 활용한 휴게 데크와 테라스, 중앙에 아트리움을 두어 쾌적성을 배가시켰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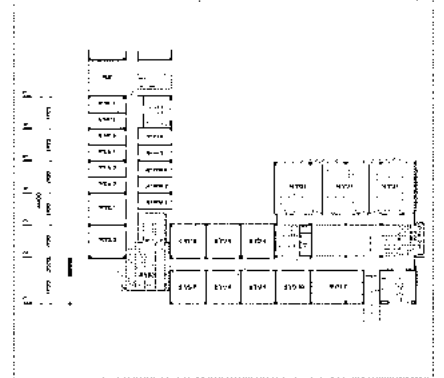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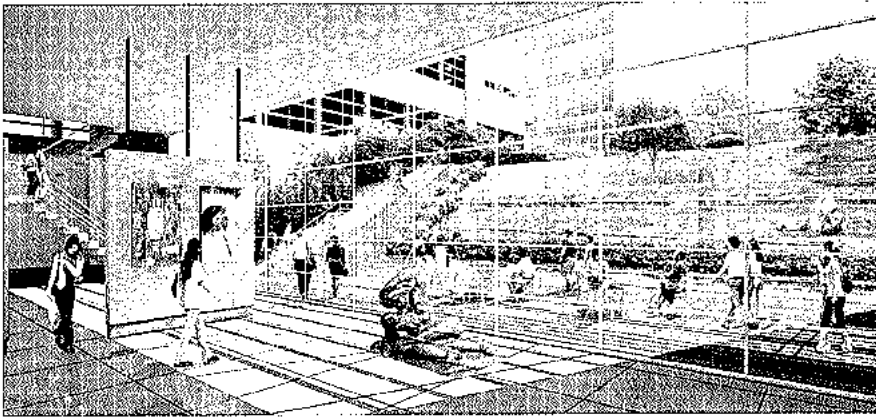
미시적으로는 공간 사용의 융통성을, 거시적으로는 캠퍼스 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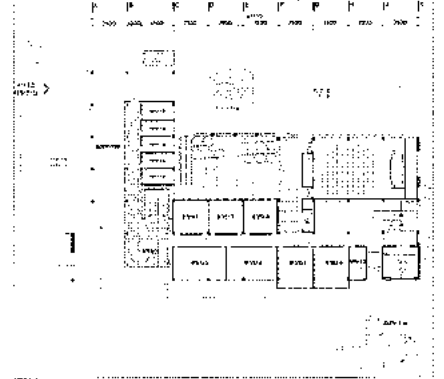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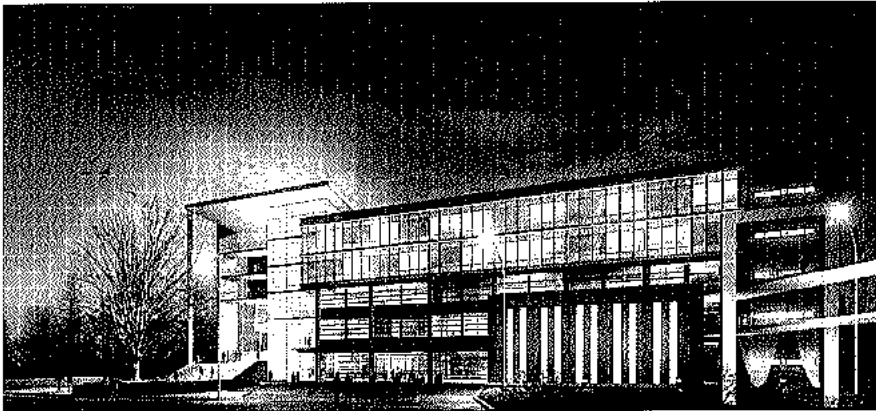
합적인 전체 마스터 플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로비, 휴게실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 모듈 사용으로 실의 용도 변화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신설되는 시설과 현재의 각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메인 건물과 외부공간, 영역별 건물간의 외부 공간들이 적절히 연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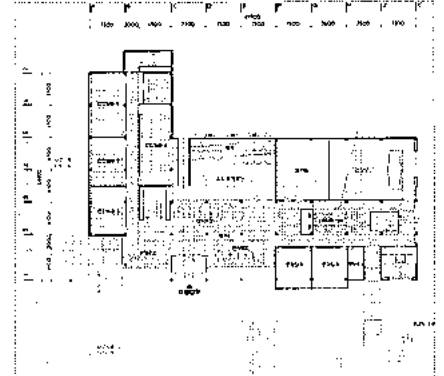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안길원 · 서학조 · 최창섭)

대지위치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부지내
대지면적 6,199.74㎡
건축면적 3,683.68㎡
연 면 적 18,535.3㎡
건 폐 율 59.4%
용 적 륜 237.9%
규 모 지상 1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지상 45대, 지하 110대
외부마감 화강석, 사암, THK18복층유리
주요설비 GHP(가스엔진히트펌프)방식

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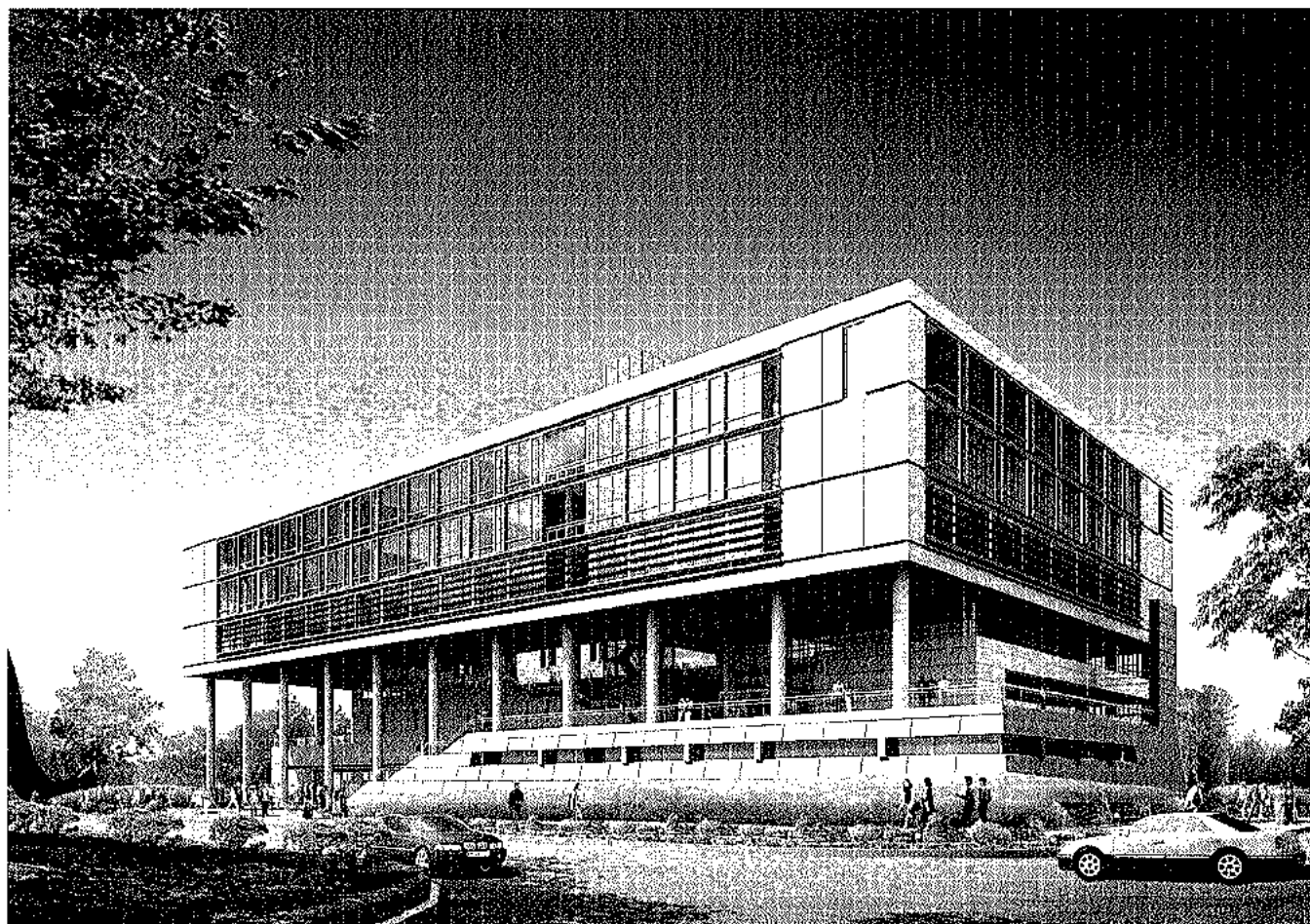
건국대 산학협동관은 건국대 산정문 쪽에 위치하여 기존의 캠퍼스 축과 인근건물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캠퍼스 내외부에서의 상징성 확보와 산학협동관의 기능을 물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자 형의 단순한 매스구성과 배치로 상하로 축과 Street Wall에 순응하면서 캠퍼스의 재정비를 고려하며 상허기념관의 강한 축성을 더욱 부가시켜 새로운 캠퍼스의 질서구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 매스의 단단하고 정돈된 이미지는 상징성과 인지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평면계획은 주간시간대에 주로 사용하는 교육원을 저층부에 배치하고, 야간 시간대에 주로 사용하는 특수 대학원을 상층부에 배치하여 시간대별 효율적 관리체계를 형성하였다. 벤치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기 위하여 레벨차이를 이용하여 출입구를 별도 형성하는 등 '강의, 벤치, 대학원' 각 기능을 명

확하게 분리하여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형의 평면구성을 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후 시설용도 변경에 융통성 있게 대처가능 하도록 하였다.

레벨별 데크 마당을 조성한 단면계획은 기반부의 휴먼스케일 연출 및 자연스러운 동선 인입을 유도하였고, 쾌적한 옥상정원으로서 안마당(중정)을 형성하여 건축 속의 자연과 내외부 공간의 관입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저층부는 필로티 대형계단 설치로 개방감과 역동적인 시선흐름을 유도하고, 상층부는 수평적 매스를 강조함으로써 가로와 연속성과 확장성을 유도하여 휴먼스케일과 슈퍼 스케일이 대비되는 조화로운 입면을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건국대 산학협동관은 다양한 기능의 건축적 해결과 캠퍼스 내의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계획부지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결코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으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배치계획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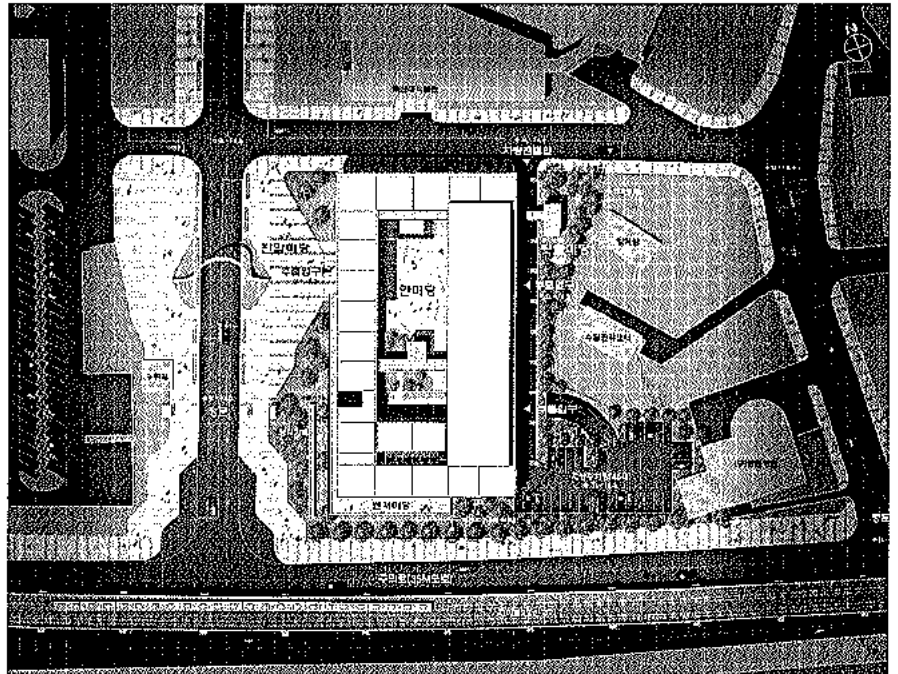
- 상하로의 street Wall에 순응하는 배치
- 캠퍼스 재정비 계획을 고려한 배치
- □자형 단일매스 구성에 의한 교육과 벤처기능의 효율적인 연계로 발전적 산학협동관 실현

축에의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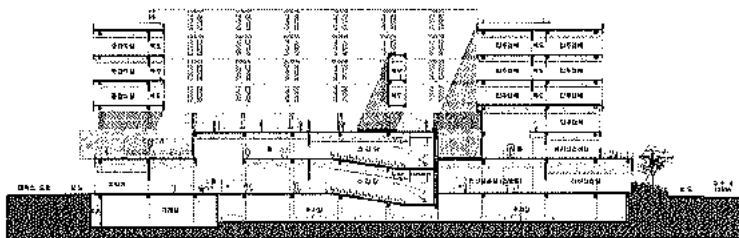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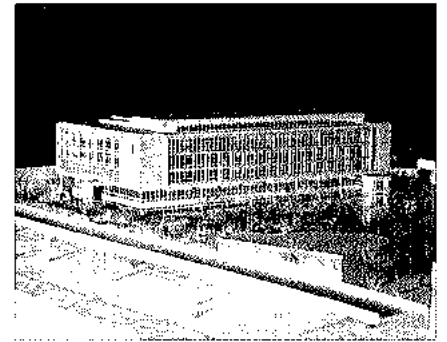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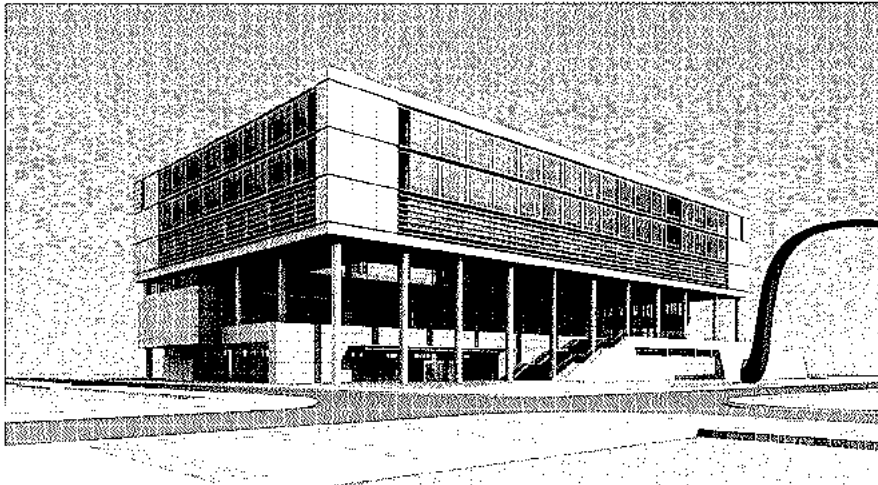
□자형 건물을 축에 맞추어 계획함으로써 캠퍼스의 질서를 견고히 확립하고 확장 예정지와 함께 추후 캠퍼스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중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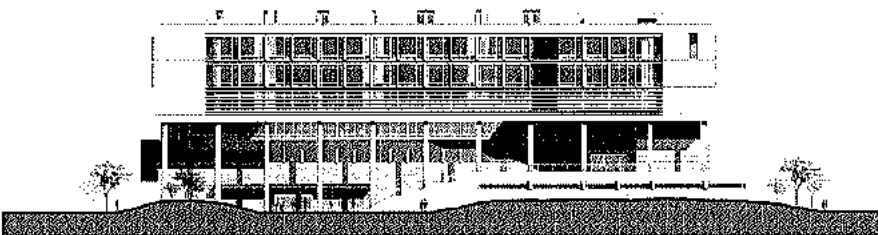
단일 mass의 계획으로 인자성, 상징성 있는 건물로서 상허기념도서관, 건국대학병원과 함께 구역의 중심공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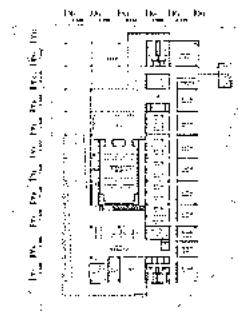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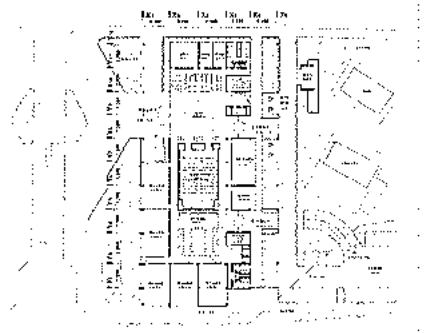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대전하기중학교

Hagi Middle School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목성(이기수) + 이관석(한남대 건축학부 교수)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520번지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4,134.00㎡

건축면적 2,830.27㎡

연 면 적 8,352.10㎡

건 폐 율 20.02%(법정60%)

용 적 륜 59.09%(법정200%)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철골조

주차대수 44대

외부마감 점토벽돌치장생기, 외단열시스템, 압출성형 시멘트판, THK18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자준성, 조성범, 이상영, 박귀동, 전태숙
CG(디자인폴즈)김갑태

근린입지분석

- 서측에 있는 35m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북측의 8m도로 너머에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가 위치하여 주로 북서 방향에서의 접근이 예상됨
- 대지와 서측 대로변 사이에는 사설녹지가 있어 주로 북측 도로를 따라 보행자 진입이 예상됨. 따라서 북측도로에 도시계획 상에는 없는 보행자 통로 확보가 요구됨
- 대지로의 차량 진입은 동측 10m 도로에서만 가능

토지이용계획(도시맥락의 수용)

대지는 북측에서 남측으로 2%, 서측에서 동측으로 0.3%의 경사를 가져 북서 모서리와 남동 모서리를 면한 도로간에 약 2.63m의 레벨차가 있는 완만한 북고남저의 지형이다. 이러한 레벨차와 보행자의 진입방향, 운동장 확보를 동시에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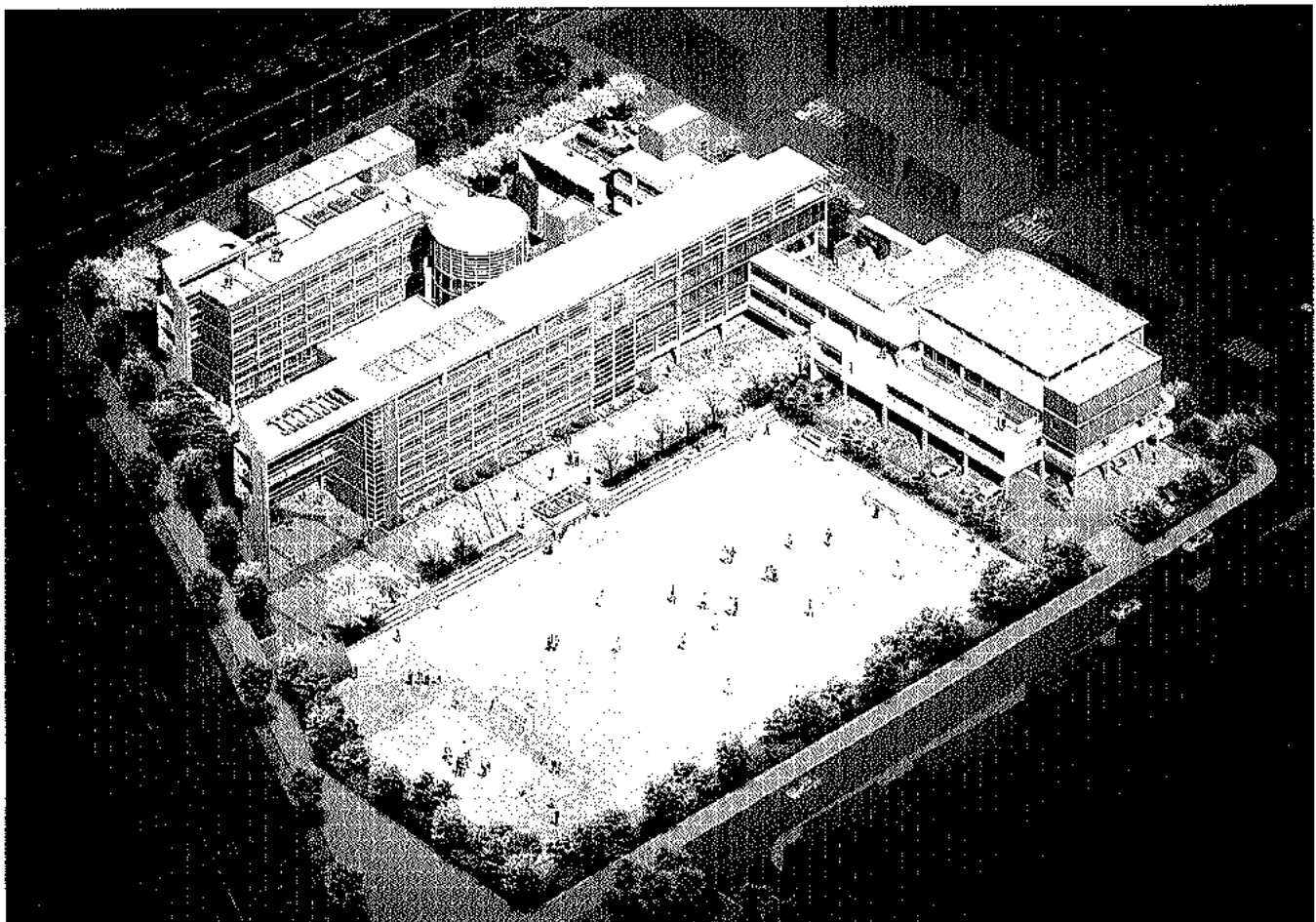
안해 북서측에 교사동을 배치하고 남동측에 운동장을 두어 질, 성토량을 최소화한다.

공간구성의 위계와 지역과의 개방

운동장(육외활동공간)과 구별되어 계획된 일반교실군과 특별교실군(교육영역)을 날개별로 분리 배치하여 공간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활용 증진을 위해 교사동과 독립적으로 계획된 시청각실, 도서정보실, 체육관을 주진입부에 전진 배치하고 주차장과 연계시킨다. 주민휴게공간(쌈지공간) 또한 인근주민을 위해 배려되었다.

동선계획

- 보행자
- 주변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의 위치를 감안하여 정해진 주진입 보행동선을 위해 북측 대지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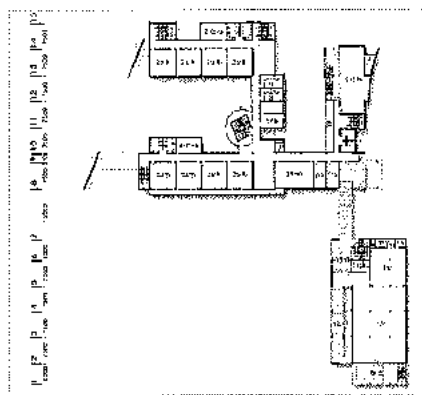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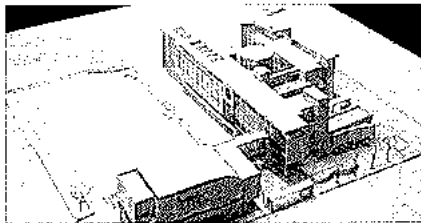
선에서 3m물러서 인도를 계획한다. 전면에 돌출하여 들린 교사동의 필로티가 동선을 유도한다.

-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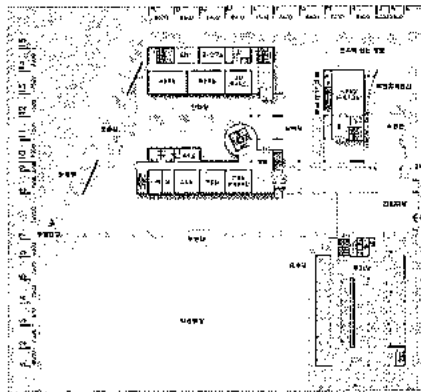
법규상의 요구에 따라 북쪽지정경계모서리에서 20m 떨어진 곳에 주차장 입구를 두어 보행동선과 완전 분리한다. 주차장법 강화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식당과 체육관 건물의 필로티 하부에 주차장으로 둔다.

증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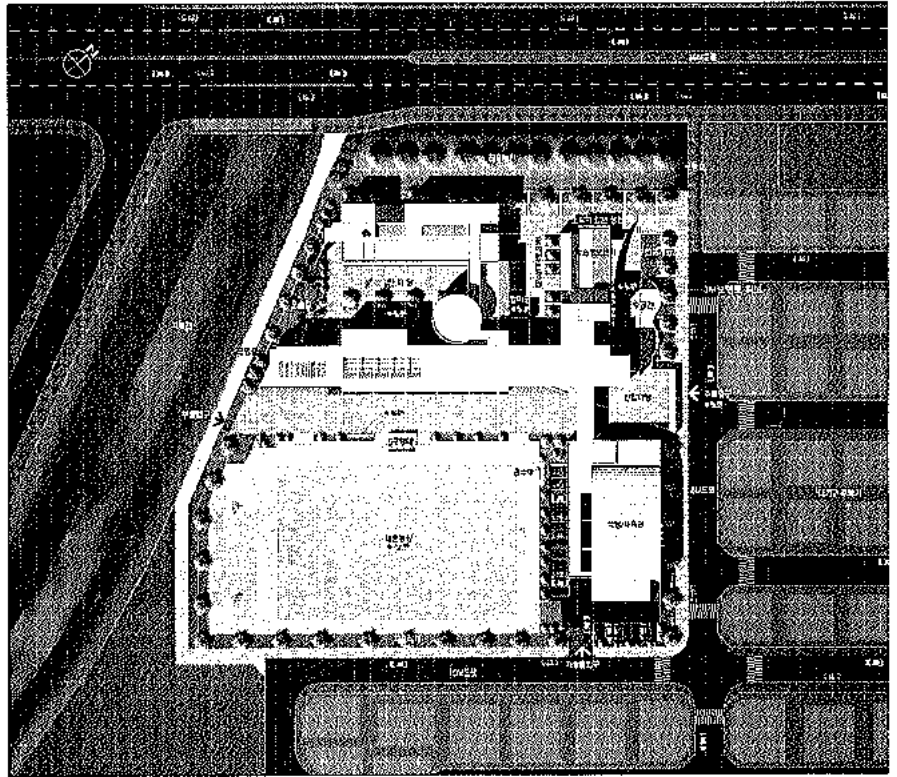
장래의 증축에 대비하여 두 곳의 일반교실동의 옥상을 수직증축 장소로 예비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 두 동을 잇는 통로 부분의 5층 역시 증축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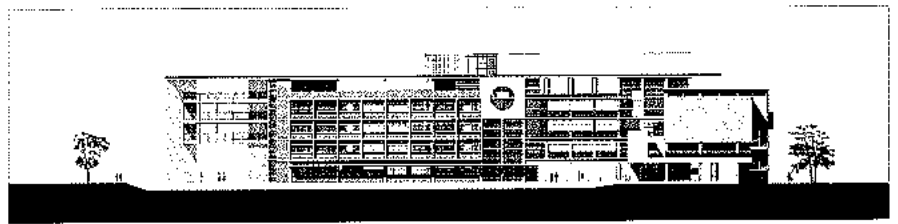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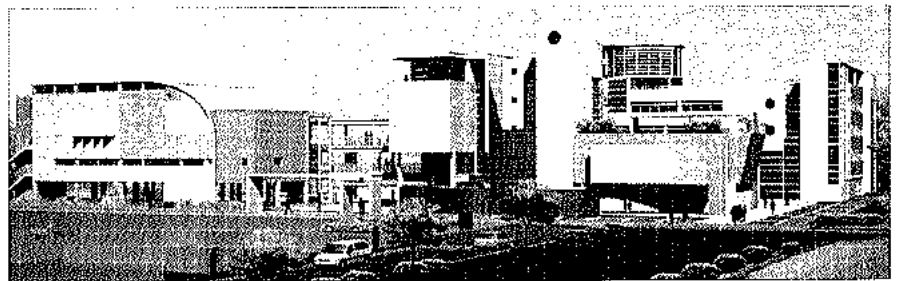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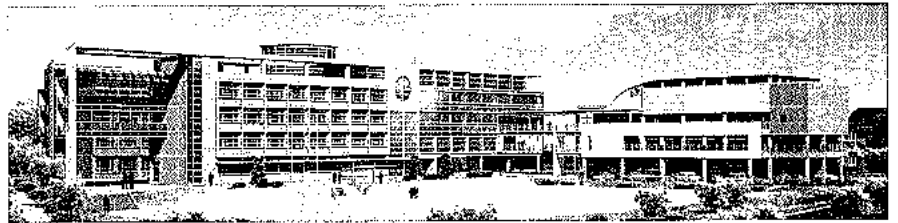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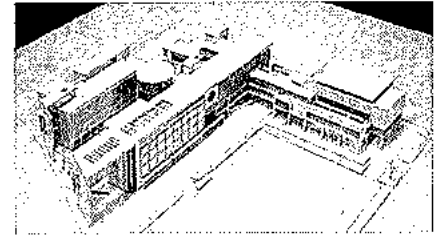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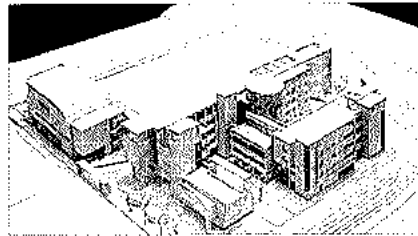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남동측입면도

대전반석고등학교

Daejeon Bansuck High School

당선작 / (주)디엔비건축사사무소(조도연)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93번지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고등학교)
 대지면적 13,201㎡
 건축면적 2,926.16㎡
 연면적 10,184.19㎡
 건폐율 22.17%
 용적률 73.1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체육관)
 규모 지상 5층
 주차대수 50대 (법정 : 48대)
 설계팀 김현주, 김수희, 신무경, 유복재, 천승진,
 박임호, 임정훈, 김경환, 김대영, 박순영

Movement & Event

Event는 교실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Movement는 이동 동선의 요소로서 Event와 Event 사이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준다.

Movement와 Event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 속에 자유롭게 존재하고 매스와 매스사이의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있게 채워주며 건물에 활력과 생동감을 넣어준다.

기존의 학교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주변 자연을 대지 안으로 유입, 대지 내 크고 작은 공간으로 형태화하여 재미있는 공간, 즐거움이 있는 학교로 계획하고자 한다.

Event - 1 (정자나무가 있는 데크마당)

체육관 앞의 데크마당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의 흐름을 이어준다. 자연이 어우러진 테크마

당을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계획하고, 기억속의 정자나무 밑에서 사람이 모이고 대화가 오가던 행위들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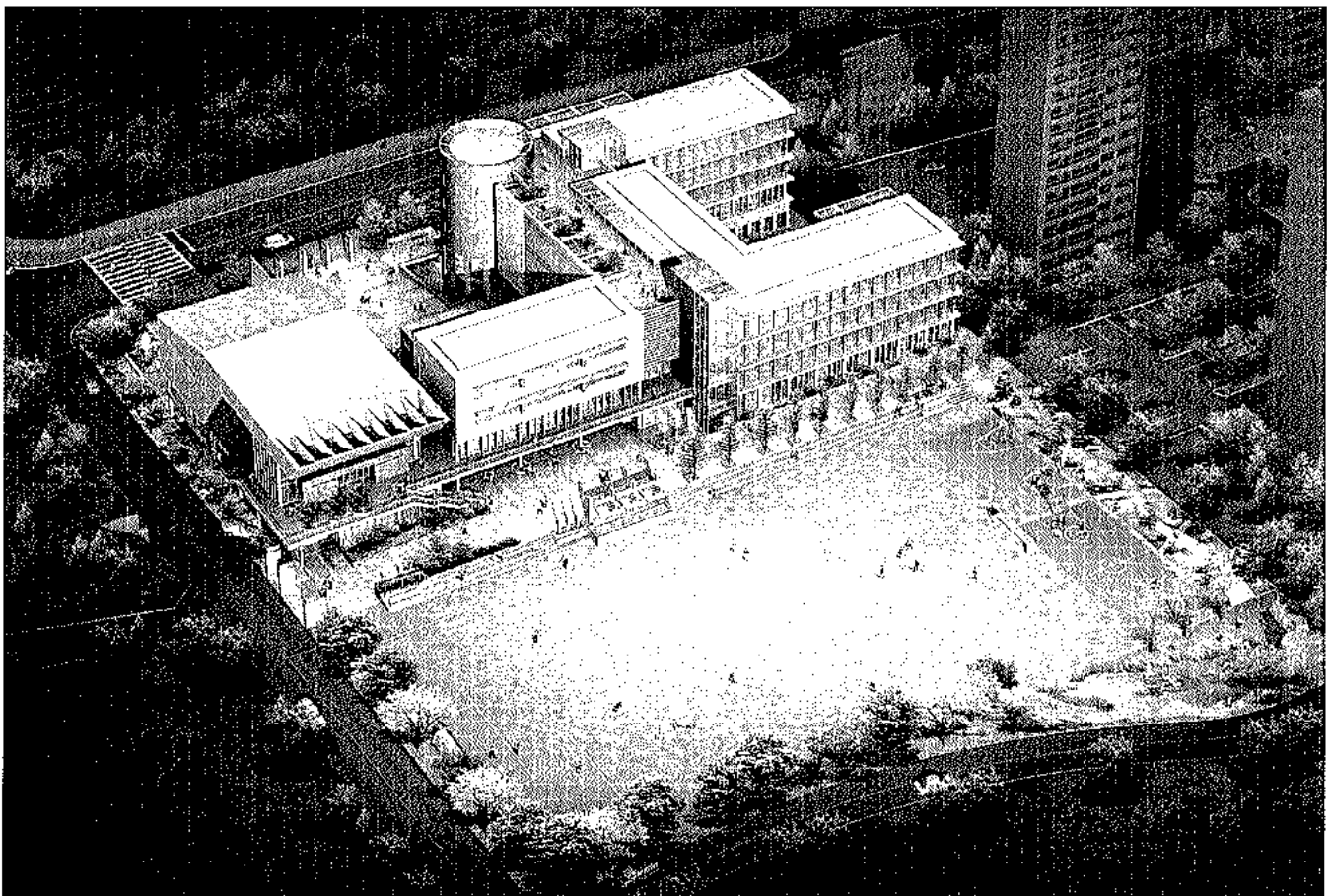
Event - 2 (주변 Context의 반영)

주변녹지에서 보아오던 숲의 모습을 건물의 외피에 적용하여 학교인의 일상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숲과 하늘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아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투명한 커튼월을 통해 학교 내·외부 공간 속에 하늘을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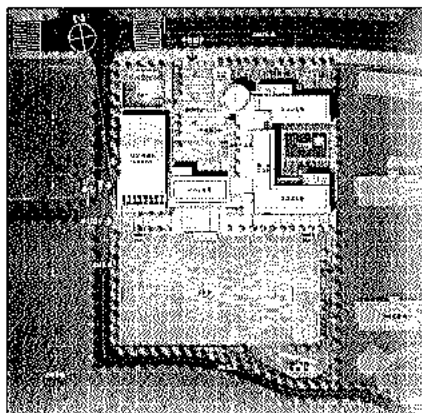
Event - 3 (전통건축의 누하진입방식)

지형의 레벨을 그대로 활용하여 진입에서 교사동 주출입구까지의 경사를 계단과 열린마당을 통한 누하진입 방식으로 계획하여 필터를 통한 시각적·공간적 연속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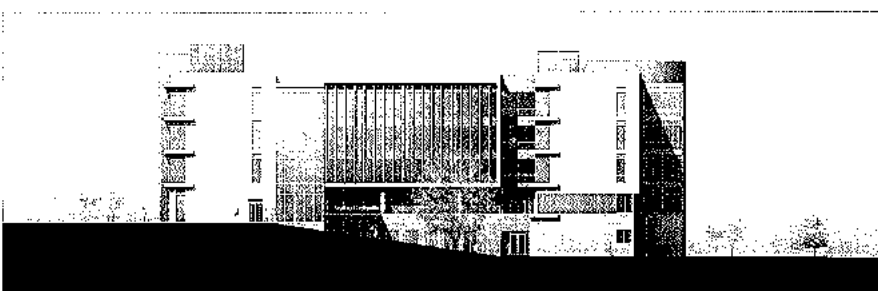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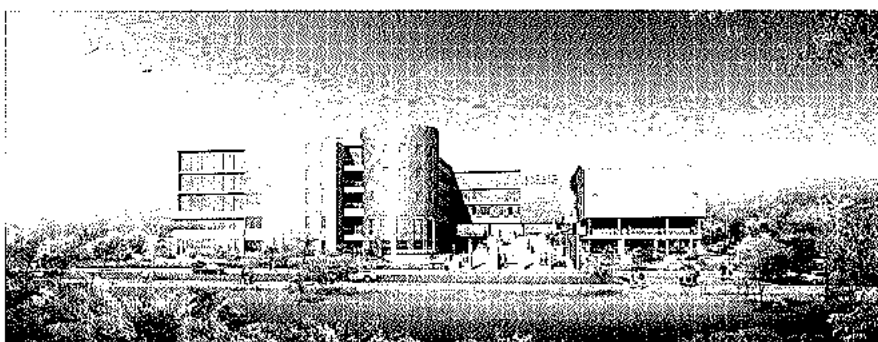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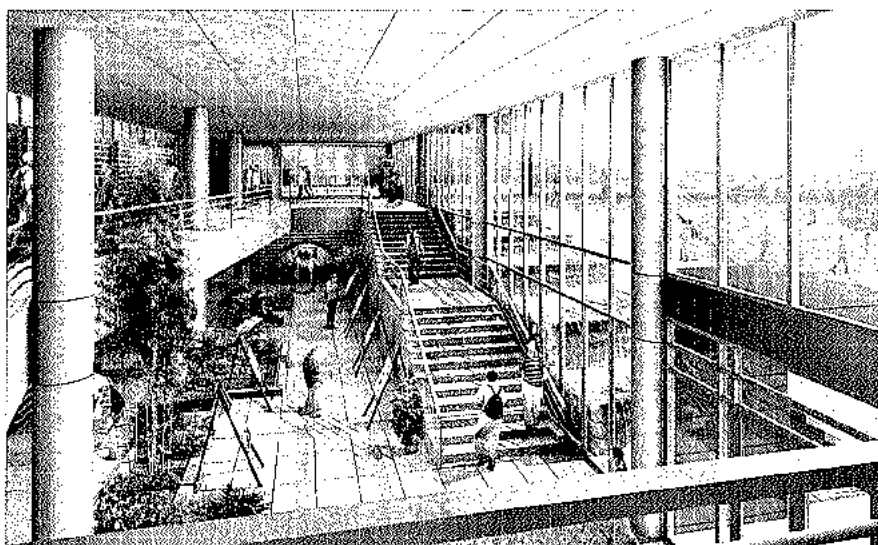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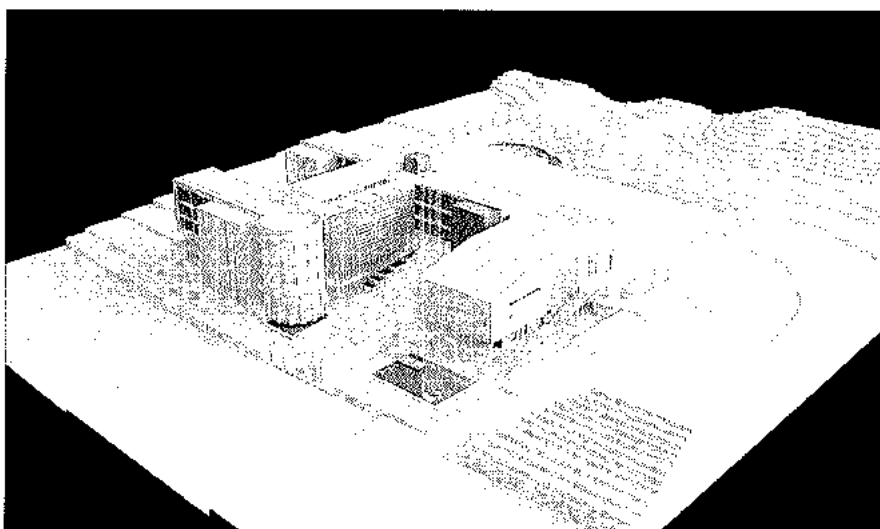
교문을 들어서면 경사진 계단위로 멀리 학교가 들어온다. 경사진 계단을 따라 열린 광장과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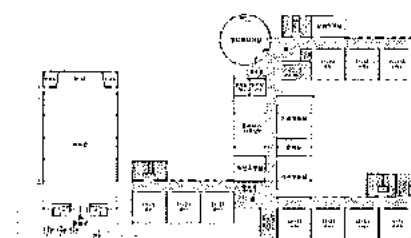
을 지나 필로타에 오르면 멀리 공원과 녹지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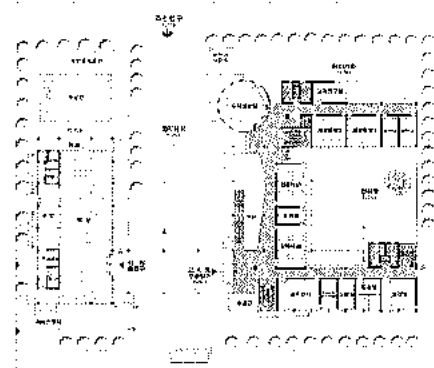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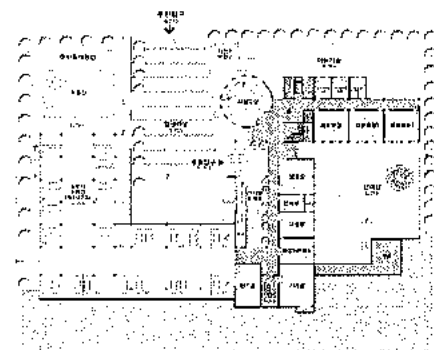
동측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004 UIA 실무옹역위원회(PPC)

참가보고

본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건축 설계 부분을 포함한 전문직능 자격을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지정한 후, 민간 직능 단체인 UIA가 자발적으로 건축설계 실무옹역에 관하여 국가 간 상호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발족한 위원회이다. 위원회에서는 6년 간의 긴 논의를 거쳐 "건축실무 옹역에 관한 국제 표준 권고안"(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과 7개의 관련 부분의 지침 안을 작성하였다. 지침 안 내용에는 전문성에 관한 정의와 16개항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상세한 배경, 정의, 원칙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중 12개항은 이미 UIA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1개 항목은 이사회에서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 3개 항목은 유보된 상태이다. 본 기본 권고안은 1999년 북경 UI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각 회원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주)

올해 제13차 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PPC)회의는 18개국 40여명이 참석하여 2004년 3월 10일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3월 14일까지 4일간 Kuala Lumpur 시내 Nikko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에서는 FKA명으로 필자와 심재호 위원이 참석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북경 총회에서 통과된 UIA Accord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세부지침은 참여국의 발의로 정해진다. 위원회에서 합의된 항목이 상정되면 Draft Panel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각 국에서 상호 인정 협상

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 있는 안을 수립한다. 수립된 안이 본 위원회에서 의결되면 UIA 이사회에 상정되며, 이사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투표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최종 추진 받는 절차를 따른다.

회의 진행은 참가국 대표의 자기소개에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사고 희생자의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2003년 회의록은 일부 문구수정으로 채택되었고, 본 회의안건 상정이후 2003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이사회 보고가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 국에서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과 본 위원회 Website의 개선내용, 자문위원회의 활용방안이 사무국에 의해 간략히 설명되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내부 지침서의 등급을 3단계로 나누어 Accord, Guideline, Note 순으로 하기로 하였다. 즉 법, 시행령, 조례로 나누어 세부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2005년부터 3년 간 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 각 참가국에서 2004년 7월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2005년 7월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될 총회에서는 본 규정의 적용사례, 건축사 지속교육 문제와 더불어 이미 북경총회에서 통과된 16개 세부 항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세미나를 갖기로 하였다.

상정된 안건의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내용은 적어도 2005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 Louis Cox의 UIA-Unesco 교육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현재 UIA-Unesco 교육위원회에서 UIA-Validation System을 전 PPC의장이었던 James Scheeler가 초안을 작성중이며, 그 내용 중 주요사항으로는 학생교환 Program, 계속교육, UIA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Unesco는 설립 이념에 맞는 각 국의 과학, 문화 발전 문제만 다루고 교육문제는 별도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UIA-Unesco 교육위원회가 무산되

거나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UIA-Validation System 적용여부에 따라 교육인증 문제는 탄력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어 스페인 Jordi가 준비한 국제 전문용역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표준양식(Standard Form on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새로운 양식은 각 질문내용이 정확히 그리고 번역 또는 해석의 상이점이 없도록 준비하였으나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의 차이와 각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제도의 다양성으로 답변내용이 서로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조사서는 104개국에 배포되었으며, 76개국이 답변서로 보냈으며, 이를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배부하기로 하였다.

각 국에서는 조사내용 중 회의를 통하여 분명해진 일부 사항은 수정하여 재 제출하기로 하였다.

독일 Tillman Prinz가 발표한 컴퓨터 업무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적인 IT 산업의 추세가 WTO의 Mode 의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제적인 전화통화와 같이 용역의 교류 또는 결과물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E-Business가 WTO의 특별한 규제 없이 국가 간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축설계용역의 Computer Practice와 관련하여 규정을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견해를

설명하였다. 본 규정의 정책이 건축용역 결과물의 안전한 정보이동, 저작권보호, 소비자의 법적인 권익 등이 전제되었으나 급변하는 IT산업과 국제적인 입찰의 공고와 절차 등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거의 실시간 변화하는 기법에 대응하기에는 본 규정을 작성 공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기본방침의 내용수정과 더불어 새로운 지침수립을 요구하였으며, Guideline이나 Policy가 아닌 Practice Note 또는 정보교환 수준으로 등급을 격하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추후 본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되어 최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 Shinjiro Wachi가 발표한 실무용역의 형태에서는 정책의 기본정식인 각 국에서 건축사는 윤리에 입각하여 건축설계 활동을 하는데 있어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실무형태는 공익을 우선으로 건축사의 역할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양한 현지국의 제도와 여건에 구성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형태를 구분하는 대원칙을 소유권, 용역의 조정, 책임으로 하고 주요 형태를 일반적인 형태, 특수형태, 기타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인 실무형태는 단독운영, 분산운영, 제한분산 운영으로 나누고 특수형태로는 공동운영, 협력운영, 공동참여방식, 대학운영기구, 다분야 참여로 분류하고 기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형태 등으로 구분하였다.

실제적인 논의에 있어 건축사사무소의 운영이 실제로 상기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여 거의 대부분 개인 또는 법인 형태로 운

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최근 다양한 입찰제도와 참여방식에 대해 폭 넓은 정의를 해두는 것으로 하였다.

각 실무형태에 따른 구성, 실무책임, 한계 등에 대한 도표를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실무범위(Scope of Practice)의 논의에 있어서는 UIA 기본방침이 건축사 개인이 소비자로부터 부여받은 용역을 확대하되 그 범위가 공공의 이익과 건축사의 윤리, 해당 정부의 방침 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건축사의 주요업무로는 프로젝트관리, 조사연구, 공사비 적정성 조정, 설계, 입찰지원, 감리, 유지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내용을 정의하였다.

부가적 업무로는 사업성검토, 설계지침서작성, 건물조사업무, 토지이용협상, 광고, 팜플렛 작성, 생애주기계획,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관리, 조경설계, 실내설계, 그래픽설계, 음향설계, 환경설계, 중재 등 건축물 또는 단지계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다.

프랑스 Isabelle Bucher를 대신하여 발표한 건축전문가단체의 역할에서는 첫째,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무역을 통한 차별대우가 제거되어 자유로운 서비스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가 언급되었다. 둘째, 공공의 이익은 건축설계의 경우 생태환경보호 환경적 맥락과 재생가능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며, 셋째, 전문가의 이익에서는 주재국내의 건축사와 마찰을 줄이며, 건축사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기술



한국국 대표단



아프리카 처음 참가한 Maurilius, South Africa 대표와 함께한 심개호 위원



처음 참가한 러시아 대표와 함께한 이근창 국제위원장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내에는 감시할 수 있는 단체로 정부와 연계된 단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민간단체, 지역내 기구와 전문기구를 조정하는 상위단체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구분으로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단체, 단체와 단체를 통합조정하는 연합체, 자격소유자가 조직한 독립협회, 기타 UIA, Arcasia, ACE, Accoe, FPAA, UAA와 같은 건축관련 국제연합회 각 국에 조직된 건축사관련 조직(RIBA, NCARB, AIA, KIRA, KIA)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상기 Guideline 실무용역형태(Form of Practice), 실무용역범위(Scope of Practice)와 건축전문단체(Professional Bodies)는 1999년 북경총회에서 Accord가 통과된 이후 세부 Guideline이 확정되지 않아 유보되어 있었으나 금번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어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물때 날에는 오스트레일리아 Michael Peck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발표하였던 건축물 구매에 대한 건축실무(Architectural Practice에 Building Project Procurement)를 다양한 설계 제공 방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부제의 제목을 프로젝트 제공 시스템(Building Delivery System)으로 바꾸어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건축주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방식이 대형 Project의 출현으로 여러 형태로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는 자체의 평가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고객과 일반공공

에 이익을 주는 전문 지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방식에 있어 전통적인 설계, 감리, 시공을 별도로 하는 방법, 2단계 입찰방식, 건설사업관리, 설계시공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 다단계방식 등이 각 참여자의 책임과 임무의 한계 등을 설명하였다. 특히 설계·시공방식이 개발 도상국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계자의 윤리와 업무한계에 대해 각 국에 이견이 많이 표출되었다.

예산의 편성, 설계비책정, 책임의 한계, 설계변경 절차, 의견의 조정, 참여자와의 관계 등에 따른 점검표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

상호인정 합의(Mutual Recognition Agreement)방침에 대한 초안은 작년 대표회의에서 말레이시아의 EAS Mohamed가 발표하였으나 시안의 중요성과 보다 체계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스페인의 Jordi가 담당하였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Accord와 Guideline이 결국 각 국간 생방 또는 다자간 건축사 인정에 있으나 UIA가 WT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이고 작년회의에서 UIA이사회에 상정한 주재국에서의 실무지침(Recommended guideline on practice in a host nation)이 반려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이다.

참여자 모두 본 Guideline의 기본개념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회계사 기준이 작성되어 통용되고 있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Jordi씨는 기본적인 언어의 정의 즉 GATT, GATS, WTO, MRA, FTA, PHN, MFN 등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한 후 건축실에 관한 사항은 각 국의 WTO 협상창구에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다.

세부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본 위원회를 통하여 논의되었고, 상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일 협상 기구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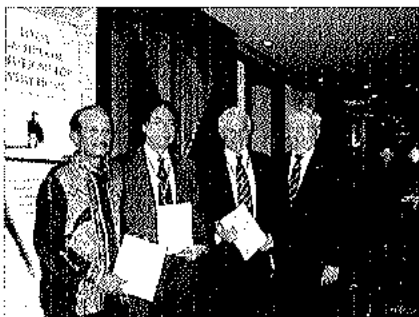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기본정책이 각 국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 문화, 사회, 국민의 안전, 공공성의 기준 등 다양한 배경을 통합, 조정하여 동일성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임을 강조하였다.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의 설명과 더불어 사전행정절차로 본 규정 사용의 의향서 합의를 추천하였다. MRA에서 포함될 내용과 기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적 적용, 수행방안, 협의의 수정 등이 논의되었으나 원칙적인 민주방식에 의한 내용을 기술하여 재차 점검 확인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었다.

미국의 David Harris씨가 발표한 건축물의 표준과 규정(Accord on building codes and standards)은 선진국에 의해 채택된 안건으로 제품 및 공법의 표준화와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다. 각 국의 규정 및 적용표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는 건축설계시 공사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폭넓은 자재를 생산하고,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국가의 유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한국의 기준과 규정은 제출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전까지는 준비하여 제출하여 적극 참여함으로써 규정과 제품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전임회장 Tan PEI Ing



PPC 13차 회의에 계근 참석한 말레이시아 Hisham Al BAKRI, 일본 Shinjiro Wachi 오스트레일리아 Michael Peck와 위원장 Russell Kelne



회의장에서 대표단

말레이시아 ESA Mohammed가 발표한 정부 부처와의 Communication부분은 참여자들이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WTO 협상 창구인 각국의 부처와의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다. 각 국에서는 건설관련 단체와 정부 부처간 본 협의 내용이 원활히 전달되어 협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사례를 제출할 것이 요청되었다.

다음 회의의 장소는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가 없었으며, 회장단에서 별도로 접촉하여 참여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그간 본 위원회에 13차례 모두 참석한 오스트레일리아의 Michael Peck, 말레이시아 Hisham Albakri, 일본의 Shinjiro Wachi에 대한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13차 위원회는 유치한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는 작년 인도 Del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장소를 바꾸게 된 배경설명에서 인도의 입·출입의 문제와 인도에서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서 개최하겠다고하여 아시아권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승낙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회의는 잘 정리되어 진행되었으며, 자체입체로부터 Sponsor를 받아 점심, 저녁, Tour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하였다.

본 위원회의 성격이 건축사의 MRA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국의 교육제도와 규정, 건설환경들이 상이하여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큰 틀에서의 동질성을 맞추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UIA에서 WTO에 요구한 공식

적인 협의기구로 인정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EU와 미국과의 MRA가 성사되지 않는 이유로 독일의 Sven Silcher씨에 의하면 EU내에서는 각국의 건축사협회에서 통합, 조정된 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의 사정(52개주를 통합하는 안이 마련되지 않음)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본 위원회에 미결된 안건은 4개 Guideline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며, 국제적으로 수용하기 힘들거나 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차기 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가 없고 새로운 참여국의 등장과 기존 참여국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내용의 숙지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과 2005~2008년에 논의 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미 1999년 북경 총회와 2002년 베를린 총회를 통해 통과된 Accord에 의해 금번 회의에서 최종(초)안을 만든 3개안과 수정안 1개를 포함하여 세부 Guideline 16개 모두 위원회에서 정리되었고, 추가적인 안건이 위원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든지 일정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면 위원회의 업무의 축소 또는 존립에 대한 논의가 2005년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본 위원회 활동을 주시하면서 요구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건축사 상호인정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위원 : 이근창, 심재호>



회장단과 주최측 대표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경남구건축사회/(051)7307
- 경북구건축사회/(033-2030)
- 김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3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노봉구건축사회/(95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농악구건축사회/(815-9028)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영등포구건축사회/(232-55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3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8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36)
- 종로구건축사회/(725-9914)
- 송구건축사회/(231-5746)
- 중랑구건축사회/(437-383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8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6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663-25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6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9-6713
- 안성지역건축사회/(031)480-6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08
- 익산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6
- 오산시건축사회/(031)375-8649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586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남도건축사회/(043)223-3084~6
- 창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육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계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북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63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651-4551
- 충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시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0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머수지역건축사회/(061)852-7023
- 낙주지역건축사회/(061)2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337~8
- 군위지역건축사회/(054)432-8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6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74-7026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1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0-605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성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6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